

# 고운 최치원(孤雲崔致遠) 문집 및 비문에서

1. 천부경(天符經)해설
2. 난랑비(鸞娘碑)서문
3. 격황소서(檄黃巢書)
5. 고운최치원의 사산비명(四山碑銘)

## 1. 천부경(天符經)

천부경을 발견 해독하여 우리에게 전한 신라시대 고운 할아버지께서는 「난랑비 서문」에서 유, 불, 선 3교는 인류시원의 이 신교로부터 갈라져 나가 제2의 고등종교로 발전한 것이며, 유, 불, 선의 사상이 포괄된 모체종교가 우리나라에 있었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적어 전했다.

一 始 無 始 一	일시무시일이니
析 三 極 無 盡 本	석삼극 무진본이고
天 一 一 地 一 二 人 一 三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이라
一 積 十 鉅 無 匱 化 三	일적십거 무궤화삼이니라
天 二 三 地 二 三 人 二 三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이니
大 三 合 六 生 七 八 九	대삼합육 생칠팔구하고
運 三 四 成 環 五 七	운삼사성 환오칠하니
一 妙 衍 萬 往 萬 來	일묘연 만왕만래라
用 變 不 動 本	용변 부동본이요
本 心 本 太 陽	본심 본태양이니
昂 明 人 中 天 地 一	앙명인중천지일할지니
一 終 無 終 一	일종무종일이니라

(해석엔 보는 사람과 보는 관점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도 있으니 이점을 양해하시어 감상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시무시일(一始無始一);** 道(도)란 하나일 따름이라. 그러므로 하나로 비롯하되 하나에서 비롯됨이 없느니라. 도라고 이름하는 그 주체는 하나만 같음이 없고 도에 사무치는 그 묘함도 하나만 같음이 없으니 하나의 뜻이 크도다.

**석삼극(析三極);** 쪼갬다 함은 나눔이요, 한 끝이란 하늘과 땅과 사람의 지극한 이치라. 繫辭(계사)에 이르기를 “六爻(육효)의 움직임은 三極(삼극)의 도라. 도는 하나를 낳고 하나는 둘을 낳고 둘은 셋을 낳아 셋에 이르러 그 변화가 다함이 없으므로 셋이 만물을 낳는다” 하였느니라.

**무진본(無盡本);** 하나란 천하의 큰 근본이며, 이것이 나뉘어 삼극이 되고 또 삼극이 이미 서때 만가지 이치가 다 이로 말미암아 나나니 큰 근본은 다함이 없느니라.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天一一地一二人一三);** 이것이 곧 삼극이라 하늘은 하나를 얻어 하나가 되고, 땅은 하나를 얻어 둘이 되고, 사람은 하나를 얻어 셋이 되니 하나를 한번 함의 나뉘이라, 그러므로 도는 하나이되 하늘에 있으면 天道(천도)가 되고, 땅에 있으면 地道(지도)가 되고, 사람에게 있으면 人道(인도)가 되나니 나누면 삼극이 되고 합치면 한 근본이 되느니라.

**일적십거 (一積十鉅);** 하나이란 數(수)의 비릇이요 열은 수의 마침(終)이라 하나로부터 비롯하여 쌓아 열이 되면 크니라 河圖(하도)의 열 수는 천지조화의 근본이니 그 이치 또한 깊이 합하니라.

**무궤화삼(無 匱 化三);** 하나에서 열까지 쌓아 이로부터 나아감은 천만 가지의 변화가 그 다함이 없되 이는 다 삼극의 변화에 말미암음이니라.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天二三地二三人二三);** 하나를 나누면 둘이 됨은 자연의 이치라, 繫辭(계사)에 이르기를 “하늘을 세움의 도는 陰(음)과 陽(양)이요, 땅을 세움의 도는 부드러움(柔)과 억셈(剛)이요, 사람을 세움의 도는 어짘(仁)과 옳음(義)이라 삼재(三才=三極)를 겸하여 두번 하나니 그러므로 易(역)은 여섯 그움(六劃)으로 그 卦(괘)를 이루느니라.

**대삼합육생칠팔구(大三合六 生七八九);** 하나를 나누어 둘로 만들고 하나에 두 갑절씩 곱하므로 여섯이 되나니 하늘과 땅과 사람이 제 가꿈 그 들씩 얻어 합치면 여섯이 되고, 이 여섯에 하나와 둘과 셋을 더하면 일곱과 여덟과 아홉이 되는지라, 대개 수는 아홉에 이르면 들고 돌아 다시 나서 그 쓰임이 다함이 없나니 洛書(낙서)의 아홉수는 천지 조화의 작용이라 그 또한 이와 더불어 깊이 합하니라.

**운삼사성환오칠(運三四成環五七);** 셋이란 끝남의 근본이요 넷은 셋으로부터 나는 것이니 이것이 근본의 변화된 자리라, 그러므로 셋과 넷으로 운행한다 이르고 여섯이란 삼극의 크게 합침이요, 일곱이란 여섯으로부터 나는 것이니 이 또한 근본의 변화함이라, 그러므로 다섯은 여섯의 먼저가 되고, 일곱은 여섯의 뒤가 되므로 가락지를 이룬다 함이니 이미 여섯의 합침을 말하였고, 또 가락지를 이룸도 말했으니 그 여섯을 말하지 않음은 뜻이 그 가운데에 있음이니라.

**일묘연만왕만래용변부동본(一妙衍 萬往萬來 用變不動本);** 中庸(중용)에 이르기를 “그 물건됨이 둘이 아니면 그 물건의 남을 측량할 수 없다” 하였으니 둘이 아니라 함은 하나를 말함이라, 이 하나의 묘한 율김이 미루어 불어서 다함이 없는지라 흠어지면 만번가고 견으면 만번오나니 간다함은 한 근본으로 만 가지가 다름이요, 이룬다 함은 만가지 다름으로 한 근본이라 그 묘한 작용의 변화를 가히 측량하여 잴 수 없나니 그 근본이 되어 일찍이 동작하는 바 있지 않으니라.

**본심본(本心本);** 마음의 근본은 곧 도의 하나이라 그러므로 사람으로 말하면 도의 근본은 또한 나의 마음의 것이라 기록에 이르기를 “사람이란 천지의 마음이라” 하였으니 또한 이 뜻이니라.

**태양양명 (太陽昂明);** 마음의 광명이란 하늘의 태양과 같아 비치지 않는 곳이 없는지라. 孟子(맹자)가 이르기를 “해와 달이 밝음이 있음에 빛을 써서 받드시 비친다” 하니 도의 근본이 있음을 말함이니라.

**인중천지일(人中天地一);** 하늘과 땅과 사람은 하나이라, 사람은 하늘과 땅의 하나에 맞추어 三才(삼재)가 되나니 사람이 능히 그 본심의 하나를 잃지 않으면, 천지 만물의 근본이 나와 一體(일체)가 되므로 이른바 천하의 큰 근본을 세우는 이는 이에서 얻음이니라.

**일종무종일(一終無終一);** 도란 하나일 따름이라 그러므로 하나로 마치되 하나에서 마침이 없느니라, 孔子(공자)가 이르기를 “나의 도는 하나로써 뚫는다” 하였고, 석가모니는 이르기를 “만가지 법이 하나로 돌아간다” 하였고 老子(노자)는 “그 하나를 얻으면 만사가 끝난다” 하였으니 그 정밀하고 미묘함을 다시 어찌 이에서 더하라.

## 2. 난랑비(鸞娘碑)서문

國有玄妙之道 曰風流 設教之源備詳神史	국유현묘지도 알풍유 설교지원 비상신사
實內包含三教 接化群生 且如入則孝於家	실내포함삼교 접화군생 차여입즉효어가
出則忠於國 魯司寇之旨也 處無爲之事	출즉충어국 노사구지지야 처무위지사
行不言之教 周柱史之宗也 諸惡莫作	행불언지교 주주사지종야 제악막작
諸善奉行 竺乾太子之化也	제선봉행 축건태자지화야

나라에 현묘한 도(道)가 있으니 풍류(風流)라 한다. 그 교(教)를 창설한 내력은 仙史에 자세히 실려 있으니 실은 삼교(유교, 불교, 도교)를 포함하여 생을 접화하는 것이다.

들어와서는 집에서 효도하고 나가서는 나라에 충성하는 것은 노사구(魯司寇)의 뜻과 같은 것이요 무위로 일을 처리하고 말없이 교를 행함은 주주사(周柱史)의 종지(宗旨)와 같은 것이요 악한 일은 하지 말고 선한일은 받들어 행하는 것은 축건태자(竺乾太子)의 교화와 같은 것이다.

<참고> 노사구: 공자가 노나라에서 대사구의 벼슬을 하였으므로 공자의 별칭임.

주주사: 노자가 주나라의 주하사의 벼슬을 하였으므로 노자의 별칭임.

축건태자: 축건은 천축의 별칭으로 인도를 일컬음이요 태자는 석가를 말함.

천부경(天符經, Chonbukyong)은 한민족(韓民族, 朝鮮族) 최고(最古)의 나라인 환국(桓國)에서 입으로 전해지다 환웅(桓雄)이 하늘에서 내려온 뒤, 신지(神誌) 혁덕(赫德)에게 명하여 녹도(鹿圖)의 글자로 기록하게 하였다. 이것이 바위에 전각(篆刻)된 것을 신라(新羅, Shilla, B.C. 57~A.D. 935)의 고운(孤雲) 최치원(崔致遠)이 보고 다시 첩(帖)으로 만들어 세상에 전해졌다. 그후 조선시대(朝鮮時代) 중종(中宗) 무렵 이백(李陌)이 태백일사(太白逸史)에 삽입(插入)하여 그 명맥(命脈)을 잇게 되었다. 일십당주인(一十堂主人) 이백(李陌)은 그의 직간(直諫)이 연산군(燕山君)의 노여움을 사게되어 갑자년(甲子年)에 충북(忠北) 괴산(槐山)으로 유배(流配)되어 귀양(歸養)살이를 한 사람이다. 16년 뒤 중종(中宗) 15년 (A.D. 1520) 이백이 찬수관(撰修官)이 되면서 내각(內閣)에 소장(所藏)되어있는 여러 비밀서적(秘密書籍)들을 접하게 되었고, 귀양시절 채록(採錄)한 것을 합하여 삼일신고(三一神誥) 등 비전(秘傳)되는 기록과 함께 태백일사를 편집(編輯)하였으나, 유가(儒家)와 불가(佛家)의 사대주의(事大主義) 위세(威勢)에 눌려 감히 드러내지 못하고 은밀하게 전해져 내려왔다. 천부경(天符經)은 태백일사(太白逸史) 소도경전본훈(蘇塗經典本訓)에 포함(包含)되어 있는 것으로, 1898년 계연수(桂延壽)가 단군세기(檀君世紀)와 태백일사(太白逸史)를 합쳐서 환단고기(桓檀古記)를 편찬(編纂)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모두하여 81자인 천부경(天符經)은 비록 간단한 문장(文章)이지만 수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다양하게 평가되며 그 해석조차 읽는 방법에서부터 적용 범위까지 천차만별

(千差萬別)이다. 천부(天符)는 여러 기록에서 환웅(桓雄) 시대부터 세상을 다스릴 때 사용한 것으로, '천부인(天符印)', '천경(天經)', '천부(天符)를 새긴 거울(鏡)' 등으로 나오는데, 주로 경전(經典)으로서 신고(神誥)와 함께 민중에게 설명하여 깨닫게끔 하고 있다. 구환(九桓)을 통일한 단군왕검(檀君王儉)이 지도자(指導者, 國人)들을 불러 약속하기를, "앞으로는 백성의 뜻을 물어 공법(公法)을 만들고 이를 천부(天符)라 할지니, 그 천부(天符)란 만세(萬世)의 강전(綱典)이며 지극히 존중(尊重)하여 아무도 이를 어길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리고 천부경과 함께 강연(講演)하였던 신고(神誥)는 삼일신고(三一神誥, Samilshinko)라 하는 것으로서 "천신造化(天神造化)의 근원(根源)과 세상 사람들과 사물들의 변화(變化)에 대하여 상세히 쓴 것으로서, 옛 책에는 구분되지 않던 것을 행촌(杏村) 선생이 처음으로 5장(章)으로 나누어 놓은 것이다."라고 이백(李陌)은 설명하였다. 즉 삼일신고(三一神誥)는 천부경(天符經)을 보충하여 기술(記述)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천부경은 말하자면 법전(法典) 이상의 천상(天上)의 진리(眞理)로서 만물(萬物)의 생성(生成)과 변화(變化)에 대한 원리(原理)를 쉽고 간단하게 요약(要約)한 것이라 하겠다.

오늘날 전해지는 천부경(天符經)은 가로, 세로 각각 9자(字)씩 모눈(方眼)으로 한자(漢字)가 정렬(整列)되어 전체적인 모양이 정사각형(正四角形)을 이룬다. 전해지는 기록에서는 이 천부경이 처음에 녹도문(鹿圖文, 鹿書)으로 기록되었고, 토판(土版)에 전문(篆文)을 새겨 패용(佩用)하였으나, 아직 녹도문(鹿圖文)이 어떠한 모양의 글씨이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평안북도(平安北道) 영변군(寧邊郡) 묘향산(妙香山)에서는 위와 같은 신지전각(神誌篆刻)이 발견되어, 이것이 천부경이라는 주장(主張)이 제기되고 있으며, 계연수가 확인한 전문(篆文) 각자(刻字)가 바로 이것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기록 상으로는 여러가지 고대(古代) 문자(文字)가 있었지만 현재까지 밝혀져서 인정된 문자(文字)의 역사(歷史)는 메소포타미아(Mesopotamia) 문명(文明)의 남부 지역인 수메르(Sumer)에서 시작되었다. B.C. 3500~3000년 경에는 중국에서도 그림문자가 발생되었으며, B.C. 2900년 경 수메르의 우루크(Urg)에서는 그림문자가 췌기모양의 설형문자(楔形文字)로 바뀌었다. 중국에서는 B.C. 1500년 경에 기호(記號)로 되었다가, B.C. 200~ A.D. 200년 사이에 체제가 완비(完備)되어 오늘날까지 거의 변하지 않은 채로 그대로 쓰이고 있어, 한자(漢字)가 제대로 사용된 것은 대략 진(秦, Chhin, B.C. 221~B.C. 207) 시대부터라고 할 수 있다.

지금의 질서있는 짜임새에서는 처음부터 한자(漢字)에 준하는 문자(文字)로 기재하였으리라 생각될 정도로 글자 하나 하나에 의미가 담겨져 있으며, 무엇보다도 반복되거나 연속된 문자들이 운률(韻律)과 함께 의미(意味)를 연결시켜주고 있어 의도적으로 구성한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 녹도문(鹿圖文)의 구성이 어찌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지만, 지금 볼 수 있는 빈틈없는 짜임새와 암호(暗號)같은 숫자에서 불리일으키는 혼돈(混沌)과 신비성(神秘性)은 한문(漢文)이 아니면 절대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런 점에서 현재의 81자는 아마도 한문(漢文)이 완벽하게 자리잡은 다음인, 기원후 2세기경 이후에 고전(古典)에 능통(能通)한 최치원(崔致遠) 할아버

지에 의하여 재구성(再構成)되고 작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어찌했든 이 천부경은 가로, 세로가 똑같은 글자수로 되어있기에 마치 마방진(魔方陣)과 같이 숫자의 조합(組合)으로 볼 수도 있고, 그만큼 다양한 방법으로 읽을 수 있으나, 한자(漢字)를 읽는 순서대로 오른쪽 위에서 아래로, 다시 왼쪽으로 줄바꾸어서 차례대로 읽어가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쉽표가 없는 관계로 어디에서 끊어 읽느냐에 따라 의미(意味)가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앞뒤의 문자가 서로 뜻이 통하여 커다란 차이가 없이 골격(骨格)은 변하지 않은채 다양한 해석(解析)이 나올 수 있어서, 이 짙막한 문장(文章)에 묘미(妙味)를 더하고 있는 것이다.

### 3. 격황소서(檄黃巢書)

廣明二年七月八日 諸道都統檢校太尉某官 告黃巢 夫守正修常曰道臨危制變曰權  
 智者成之於順時 愚者敗之於逆理 然則雖百年繫命  
 生死難期 而萬事主心 是非可辨 今我以王師則有征無戰 軍政則先惠後誅  
 將期剋復上京 固且敷陳大信 敬承嘉諭 用戢奸謀 且汝素是遐毗  
 驟爲勍敵 偶因乘勢 輒敢亂常 遂乃包藏禍心 竊弄神器 侵凌城闕  
 穢黷宮闈 既當罪極滔天 必見敗深遁地 噫 唐虞已降 苗扈弗賓  
 無良無賴之徒 不義不忠之輩 爾曹所作 何代而無 遠則有劉曜王敦覬覦晉室  
 近則有祿山朱 呌噪皇家 彼皆或手握強兵 或身居重任 叱叱則雷奔電走  
 喧呼則霧塞烟橫 然猶暫逞奸圖 終殲醜類 日輪闕輶  
 豈縱妖氛 天綱高懸 必除凶族 況汝出自閭閻之末 起於隴畝之間以焚劫爲良謀  
 以殺傷爲急務 有大 可以擢髮 無小善可以贖身 不唯天下之人皆思顯戮  
 仰亦地中之鬼已議陰誅 縱饒假氣遊魂 早合亡神奪魄  
 凡爲人事 莫若自知 吾不妄言 汝須審聽 比者我國家德深含垢  
 恩重棄瑕 授爾節旄 寄爾方鎮 爾猶自懷鳩毒 不斂梟聲 動則齧人  
 行唯吠主 乃至身負玄化 兵纏紫微 公侯犇竄危途 警蹕則巡遊遠地  
 不能早歸德義 但養頑凶 斯則聖上於汝有赦罪之恩 汝則於國有辜恩之罪  
 必當死亡無日 何不畏懼于天 況周鼎非發問之端 漢宮豈偷安之所  
 不知爾意終欲奚爲 汝不聽乎 道德經云 飄風不終朝 驟雨不終日  
 天地尚不能久 而況於人乎 又不聽乎 春秋傳曰 天之假助不善  
 非祚之也 厚其凶惡而降之罰 公汝藏奸匿暴 惡積禍盈 危以自安迷以不復  
 所謂燕巢幕上 漫恣鸞飛 魚戲鼎中 卽看燋爛 我緝熙雄略糺合諸軍

猛將雲飛 勇士雨集 高旌大旆 圍將楚塞之風 戰艦樓船  
 塞斷吳江之浪 陶太尉銳於破敵 楊司空嚴可稱神 旁眺八維 橫行萬里  
 既謂廣張烈火 燕彼鴻毛 何殊高舉泰山 壓其鳥卵 卽日金神御節水伯迎師  
 商風助肅殺之威 晨露滌昏煩之氣 波濤既息 道路卽通 當解纜於石頭  
 孫權後殿 佇落帆於峴首 杜預前驅 收復京都 剋期旬朔但以好生惡殺  
 上帝深仁 屈法申恩 大朝令典 討官賊者不懷私忿 諭迷途者固在直言  
 飛吾折簡之詞 解爾倒懸之急 汝其無成膠柱 早學見機  
 善自爲謀 過而能改 若願分茅列土 開國承家 免身首之橫分  
 得功名之卓立 無取信於面友 可傳榮於耳孫 此非兒女子所知 實乃大丈夫之事  
 早須相報 無用見疑 我命戴皇天 信資白水 必須言發響應  
 不可恩多怨深 或若狂走所牽 酣眠未寤 猶將拒轍 固欲守株 則乃批熊拉豹之師  
 一麾撲滅 烏合鴟張之衆 四散分飛 身爲齊斧之膏  
 骨作戎車之粉 妻兒被戮 宗族見誅 想當燃腹之時 必恐噬臍不及 爾須酌量進退  
 分別否臧 與其叛而滅亡 曷若順而榮貴 但所望者 必能致之  
 勉尋壯士之規 立期豹變 無執愚夫之慮 坐守狐疑 某告

이 글은 서기 881년 최치원선생이 24세에 역적 황소에게 보내는 격문을 해설한 것입니다

### < 황 소 격 문 해 설 >

광명 2년 7월 8일에 제도 공검교태위 아무는 황소에게 알린다. 무릇 바른 것을 지키고 떳떳함을 행하는 것을 도리라하고 위험한 때를 당하는 것을 권이라 한다.

지혜있는 이는 시기에 순응하는 데서 성공하고 어리석은 자는 이치를 거스리는 데서 파하는 법이다

비록 백년의 수명에 죽고 사는 것은 기약하기 어려우나 모든 일은 마음으로서 그 옳고 그른 것을 이루 분별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 왕사로 말하면은 덕을 앞세우고 죽이는 것을 뒤로한다. 앞으로 상경을 수복하고 큰 선의를 펴고자 하여 삼가 임금의 분부를 받들고 간사한 것들을 치우려 한다. 너는 본시 먼 시골 백성으로 갑자기 역센 도적이 되어 우연히 시세를 타고 감히 강산을 어지럽게 하였다. 드디어 불칙한 마음을 품고 높은 자리를 노려 보며 도성을 침노하고 궁궐을 더럽혔으니 죄가 이미 하늘에 닿을 만큼 극도로 되어서 반드시 여지없는 태망을 당하고 말 것이다. 애달다 당우시대로부터 내려오면서 묘와 호 따위가 복종하지 아니하였은 즉 양심없는 무리와 충의없는 것들이란 바로 너희들을 가리킨다. 어느 시대인들 없겠느냐, 멀리로는 유요와 왕돈이 진나라를 엿보았고 가까이는 녹산과 주사가 황가를 시끄럽게 하였다. 그들은 모두 손에 막강한 병권을 쥐었었고 또한 몸이 송요한 지위에 있어서 호령만 떨어지면 우뢰와 번개가 치닫듯 요란하였고 시끄럽게 떠들면 안개와 연기가 자욱하듯 하였지만 잠깐동안 못된 것을 하다가 필경에는 그 씨조차 섬멸을 당하였다.

햇빛이 활짝 피졌으나 어찌 요망한 기운을 그대로 두겠으며, 하늘 그물이 높이 쳐졌으니 나쁜 족속들은 반드시 제거되고 말 것이다. 하물며 너는 평민 출신으로 농촌에서 일어나 불찌르고 겁탈하는 것을 짓으로 살상하는 것을 급선무로 생각하여 헤아릴 수 없는 큰 죄만을 뿐 속죄할 수 있는 조그마한 착함은 없으니 천하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아마 땅속의 귀신까지도 가만히 죽이려고 의논하였을 것이니, 비록 숨은 붙어 있다고 하지만 낮은 별씨 빠졌을 것이다. 무릇 사람의 일이지만 제가 자신을 아는 것보다 좋은 것이 없다. 내가 헛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니 너는 자세히 듣거라. 요즈음 우리나라에서는 더러운 것을 용납하는 덕이 깊고 결점을 따지지 않는 은혜가 지중하여 너에게 병권을 주고 또 지방을 맡겼거늘 오히려 짐새와 같은 독심을 품고 올빼미와 같은 흉악한 소리를 거두지 아니하여 움직이면 사람을 물어 뜯고 하는 것이 개가 주인을 짓는 격으로 필경에는 임금의 덕화를 배반하고 궁궐을 침략하여 공후들은 험한 길을 달아나게 되고야 가는 먼 지방으로 행차하시게 되었거늘 일찌감치 덕의에 돌아올 줄 모르고 다만 흉악한 짓만 늘어가니 아야말로 임금께서는 너에게 죄를 용서해 준 은혜가 있고 너는 국가에 은혜를 저버린 죄가 있을 뿐이니 반드시 머지않아 죽고 말 것인데 어찌 하늘을 무서워 하지 않느냐. 하물며 주나라 술은 물어 볼 것이 아니요 한나라 궁궐은 어찌 네가 머무를 곳이라. 너의 생각은 끝내 어찌 하려는 것이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도덕경에 회오리 바람은 하루아침을 가지 못하고 소낙비는 온 종일 갈 수 없다고 하였으니 하늘의 조화도 오히려 오래가지 못하구나. 더구나 사람의 하는 일이야 또 자못하겠느냐. 춘추전에 하늘이 아직 나쁜자를 놓아 두어 복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 죄악을 짓기를 기다려 벌을 내리려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지금 너는 간사함을 감추고 흉악함을 숨겨서 죄악이 쌓이고 양화가 가득하였음에도 위험한 것을 편안히 여기고 미혹되어 돌이킬 줄 모르니 이른바 제비가 막에다 집짓고 막이 불타오르는데도 제멋대로 날아드는 것과 물고기가 술 속에서 너울거리지만 바로 삶아지는 꼴을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뛰어난 군략을 모으고 여러 군사를 규합하여 용맹스런 장수는 구름처럼 날아들고 날랜 군사들은 비 쏟아 지듯 모여들어 높이 휘날리는 깃발은 초새의 바람을 애워싸고 총총이 들어찬 함성은 오강의 물길을 막아 끊었다. 진나라도 태위처럼 적을 쳐부수는데 날래고 순한 양처럼 엄숙함이 신이라 불릴만하여 널리 팔방을 돌아 보고 거침없이 만리를 항행할 수 있으리 만치 치열한 불꽃을 놓아 기러기 털을 태우고 태산을 높이 들어 새알을 짓누르는 것과 무엇이 다르랴. 금신이 계절을 맡았고 수백이 우리 군사를 환영하는 이때 가을 바람은 숙살하는 위엄을 도와주고 새벽이슬은 혼잡한 기운을 씻어주니 파도는 이미 쉬고 도로는 바로 통하였다. 석두성에 뱃줄을 놓으니 손권이 후군이 되었고 현산이 돛을 내리니 두예가 앞잡이가 되었다. 앞으로 서울을 수복하기는 한 달이면 되겠지만 살리기를 좋아하고 죽이기를 싫어하는 것은 하늘의 깊으신 덕화요, 법을 늦추고 은혜를 드리는 것은 국가에 좋은 제도이다. 국가의 도적을 토벌하는 데는 사적인 원한을 생각 안해야 하고 어두운 길에 헤메는 이를 깨우쳐 주는 데는 바른 말이랴야 하는 법이다. 그러므로 나의 한장 글을 날려서 너의 급한 사정을 풀어 주려는 바이니 미련한 고집을 부리지 말고 일찍이 기회를 보아 자신의 선후책을 세우고 과거의 잘못을 고치도록 하라. 만일 땅을 떼야 받아 나라를 맡고가 업을 계승하여서 몸과 머리가 두동강이 되는 화를 면하고 뛰어난 공명을 얻기 원한다면 몸쓸 도당들의 말을 믿지말고 오직 후손에게 영화를 유전해 줄 것만 유의하라. 이는 아녀자와 아는체 할바가 아니요 실로 대장부의 활일인 만큼 그간 부를 속히 회복할 것이요 쓸데없는 의심을 두지 말라. 나는 명령은 하늘을 우러러 받았고 믿음은 맑은 물을 두어 맹세하였은즉 한번 말이 떨어지면 반드시 메아리처럼 응할 것이 매운 해가 더 많을 것이요, 원

망이 길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만일 미쳐서 날뛰는 도당들에 견제되어 줄 한 잠을 깨지 못하고 마치 당량이 수레바퀴를 항거하듯이 어리석은 고집만 부리다가는 꿈을 치고 표범을 잡는 우리 군사가 한번 휘둘러 쳐부수므로써 까마귀 떼처럼 질서없고 술개처럼 날뛰던 무리가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칠 것이며 너의 몸동이는 도끼날에 기름이 되고 뼈다귀는 수레밑에 가루가 될 것이며 처자는 잡혀죽고 권속들은 배임을 당할 것이다. 옛날 동탁처럼 배를 불태울 그 때가 되어서는 사슴처럼 물어 뜯는 후회가 있을지라고 시기는 이미 늦을 것이니 너는 모름지기 퇴진을 참작하고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라. 배반하다가 멸망하기보다 어찌 귀순하여 영화롭게 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다만 너의 소망은 이루게 될 것이니 장부의 할일을 택하여 표변하기를 기할 것이요, 못난이의 소견을 고집하여 여우처럼 의심만 품지 말라.

## 5. 고운 최치원(孤雲 崔致遠) 사산비명(四山碑銘)

- 1) 지리산쌍계사진감선사대공탑비명(智異山雙谿寺眞鑑禪師大空塔碑銘)
- 2) 고힌양산봉암사지증대사적조탑비명(故曦陽山鳳巖寺智證大師寂照塔碑銘)
- 3) 초월산대승복사비(初月山大崇福寺碑)
- 4) 대낭혜화상백원보광탑비(大朗慧和尚白月葆光塔碑)

### 1. 智異山雙谿寺眞鑑禪師大空塔碑銘

夫道不遠人 人無異國 是以東人之子 爲釋爲儒

[人不以國土而異其性 故新羅人之子 可以爲天竺之佛 又可以爲中國之儒]

必也西浮大洋 重譯從學

[重譯者 通兩蕃之語曰重譯 蓋所去遐遠 不可以一譯人通之 故云重譯也] 命寄剝木

[黃帝 剝木爲舟] 心懸寶洲 [中國多寶 故寶洲也] 虛往實歸 [莊子云 立不教 坐不議 虛而往 實而歸]

先難後獲 亦猶采玉者 不憚崑丘之峻 [治水經云 崑崙山 高五萬里 河源出其東 日月相碍而隱 其中多寶玉] 探珠者 不辭驪壑之深 [說文云 河上翁 家貧 緯葛而食 其子沒川 得千金之珠 翁曰 珠在驪龍頰下 汝遭其睡也 使其寤了 當爲齏粉] 遂得慧炬 [慧炬 佛慧之炬] 則光融五乘 [五乘 聲聞 緣覺 菩薩 人乘 天乘] 嘉肴則味飫六籍

[禮記云 雖有嘉肴 不食 不知其旨 雖有至道 弗學 不知其善 嘉肴

美饌也 六籍 指六經也] 競使千門入善 能令一國興仁 [大學曰 一

家仁 一國興仁 一家讓 一國興讓] 而學者或謂身毒 [身毒 印度別名

佛所生地] 與闕里 [孔子所居里] 之設教也 分流異體 圓鑿方柄 [鑿柄本相入之物 惟方柄圓鑿 則不相入] 互相矛楯 [韓子曰 有賣矛與盾者 譽其矛曰 犀革無所不入 譽其盾曰 矢戟不能入 傍人曰 以子之矛 刺子之盾 入耶 不入耶] 守滯一隅 嘗試論之 說詩者 不以文害辭 不以辭害志 禮所謂 言豈一端而已 夫各有所當 故廬峯慧遠 [東晉人 雁門賈氏 與弟慧持 造道安法師席下 聞出世法 大衆數千 遠居第一 抵潯陽匡山之陰廬峯 居之] 著論 [桓玄 下書 令僧拜俗 遠公 著沙門不敬王者論五篇 一在家 二出家 三求宗不順下 四體極不兼應 五形盡神不滅 此中引彼第四篇文] 謂如來之與周孔 [本文 堯孔] 發致雖殊 所歸一揆 [揆 理也] 體極 [體達至極之理] 不兼應者 [釋不兼孔 孔不兼釋] 物不能兼受故也 沈約有云 孔發其端釋窮其致 [案孔發其端 儒論福善禍淫之事 只發其端而已 佛窮其致佛明三世因果 窮盡這理致也 有云孔發其端 儒明形而下者故也 釋窮其致 釋主形而上者故也] 真可謂識其大者 始可與言至道矣 [孤雲許沈約之言也] 至若佛語心法 玄之又玄 名不可名 說無可說 雖云得月 指或坐忘 [見月休觀指 歸家罷問程] 終類係風 影難行捕 [言道體難見也] 然陟遐自爾 [遐喻佛法 邇喻儒道] 取譬可傷 且尼父謂門弟子曰 予欲無言 天何言哉 [子曰 予欲無言 子貢曰 子如不言 則小子何述焉 子曰 天何言哉 四時行焉 萬物生焉 天何言哉] [則彼淨名之默對文殊 [淨名經云 文殊問維摩曰 何等是不二法門 淨名默然不應 文殊讚曰 善哉善哉 乃至無有言語文字 是直入不二法門也] 善逝 [善逝 佛之十號之一也 善往涅槃之義] 之密傳迦葉 [世尊 在靈山會上 拈花示衆 獨迦葉 微笑破顏] 不勞鼓舌 能叶印心 言天不言 捨此奚適 而得遠傳妙道 廣耀吾鄉 豈異人乎 禪師是也 禪師法諱慧昭 俗姓崔氏 其先漢族 冠蓋山東 [山東 指中國之山東半島] 隋師征遼 多沒驪貊 [驪貊 指吾邦] 有降志而爲遐眈者 爰及聖唐 囊括四郡 [指羅唐合力 平麗濟事也] 今爲全州金馬人也 [金馬 今益山 舊屬全州] 父曰昌元 在家有出家之行 母顧氏 嘗晝假寐 [不脫衣冠而眠] 夢一梵僧謂之曰 吾願爲阿 之子 [阿 方言謂母] 因以瑠璃甕 [甕音鶯 瓶之總名] 爲寄 未幾娠禪師焉 生而不啼 迺夙挺銷聲息言之勝芽也 既齏 [齏音櫛 改齒也 男子八月生齒 八歲而齏 女子七月生齒 七歲而齏] 從戲 必 葉爲香 采花爲供 或西嚮雪坐 [危坐 跪也] 移晷未嘗動容 是知善本 固百千劫前所栽植 非可跂

[跂 舉足望也] 而及者 自卯泉弁 [卯音貫 束髮在後也 弁 冠也  
男二十而冠] 志切反哺 [烏哺其雛 五十日而後 雛還哺其母] 跬步不忘  
[跬音圭 步徐行也 一舉足爲跬 再舉足爲步 兩步曰武 跬三尺  
步六尺也] 而家無斗儲 又無尺壤 可盜天時者 [列子云 齊之國氏  
大富 宋之向氏 大貧 自宋至齊 請其術 國氏告之曰 吾善爲盜也一年而給  
三年而足 五年而大壤 自此以往 施及州閭 向氏大喜 喻其爲盜之言  
不喻其爲盜之道 遂踰牆鑿室 手目所及 無不探之 未及時  
以贓獲罪 沒其先居之財 向氏 以國氏謬己也 往而怨之 國氏曰  
若爲盜何若 向氏言其狀 國氏曰 噫 若失爲盜之道 至此 于今將告若矣  
吾聞天有時 地有利 吾盜天地之時利 雲雨之滂潤 山澤之產育以生吾禾  
植吾稼 築吾垣 建吾舍 陸盜禽獸 水盜魚鼈 亡非盜也 夫禾稼土木禽獸魚鼈  
皆天之所生 豈吾之所有 然吾盜天而亡殃也] 口腹之養  
惟力是視 乃裨販媪隅 [媪隅 卽東海所謂青魚也 郝隆爲南蠻校尉詩曰  
媪隅躍清池 裨 補也 販 賣也 販媪隅以補親] 爲贍滑甘之業  
[以若澁者自養 滑甘者奉親 乃孝子之事] 手非勞於結網 心已契於忘筌  
[網 捉口具 筌 捕魚器 網筌 喻能詮 口魚 喻所詮 言不假文字而得旨之意]  
能豐啜菽之資 [菽 豆太之搃名 禮檀弓 啜菽飲水  
能盡其歡 註 熬豆而食 但飲水 不違其志 故能令親歡也] 允叶采蘭之詠  
[詩云 循彼南山 言采其蘭 此是孝子養親之事] 暨鍾 棘  
[暨 及也 鍾 聚也 難也 棘 居喪也 詩云 庶見素冠兮 棘人欒欒兮  
註云 棘 急也 欒欒 瘠貌也 言喪事 欲其忽忽爾 哀遽之狀] 負土成墳  
迺曰鞠育之恩 [詩云 父兮生我 母兮育我 欲報其德 昊天罔極]  
聊將力報 希微之旨 盍以心求 [道經云 目之不見 曰希 搏之不得  
曰微 言至道玄玄] 吾豈匏瓜 壯齡滯跡 [論語曰 吾豈匏瓜也哉  
焉能係而不食] 遂於貞元十年 [唐德宗年號 新羅元聖王元年  
詣歲貢使 [冬至使也] 求爲榜人 [榜人卽篙工 主倡聲進船者 張楷亡命註  
榜人 奏采菱之歌也] 寓足西泛 多能鄙事 [子曰 吾少也賤  
故多能鄙事也] 視險如夷 [夷 平也] 揮楫慈航 超截苦海 及達彼岸告國使曰  
人各有志 請從此辭 遂行至滄洲 謁神鑑大師 [馬祖傍傳  
卽八十員中之一也] 投體方半 大師怡然曰 戲別匪遙 喜再相遇 [通載云  
杯度在彭城 聞羅什入關中 歎曰 吾與此子戲別 三百餘年也  
相見杳然 未期遲來世耳] 遽令削染 頓受印契 若火沾燥艾 水注卑原然  
徒 [徒 神鑑大師追從之人] 中相謂曰 東方聖人 於此復見 [初見道義

今見禪師 故云復也] 禪師形貌黯然 衆不名而目爲黑頭陶  
斯則探玄處默 眞爲漆道人後身 [通載云 道安法師貌黑 人謂之黑頭陶  
亦曰漆道人 亦曰印手菩薩也] 豈比夫邑中之黔 能慰衆心而已哉 [左傳云  
宋皇國父 爲平公築臺 子罕 請俟農工之隙 築者謳曰 澤門之白  
實與我役 邑中之黔 能又 永理狝罕黑色 居邑中 國父白色 居澤門也]  
永可與赤頰青眼 以色相顯示矣 [佛陀耶舍 赤髭 達麼 青眼]  
元和五年 [唐憲宗年號] 受具於嵩山少林寺 [嵩山 卽中岳也  
少林寺之前 有二株桂 故因謂之少林 應聖識云 二株嫩桂久昌昌 密記  
曹洞臨濟二宗 聯芳不絕云] 瑠璃壇 則聖善 [聖善 母也 詩云  
母氏聖善 我無令人] 夢 宛若合符 既瑩戒珠 復歸橫海 [橫 學舍也]  
聞一知十 茜絳藍青 [淮南子曰 絳生於茜而絳於茜 青生於藍而青於藍  
茜 一名地血 葉似棗而銳 四五葉對生節間 根 紫色 可染絳 藍者  
通志曰 藍有三種 蓼藍染綠 大藍 如芥 染碧 槐藍 染青 三藍  
皆可爲澱也] 雖止水澄心 [莊子云 人莫鑑於流水 而鑑於止水也] 而斷雲浪跡  
粵有鄉僧道義 先訪道於華夏 邂逅 滴願 西南得朋 [易坤卦  
東北喪朋 西南得朋 邂逅相遇 適我願兮] 四遠參尋 證佛知見  
義公前歸故國 禪師卽入終南 [山名 在長安也] 登萬仞之峯 餌松實而止觀  
寂寂者三年 後出紫閣 [終南山之一名] 當四達之道 織芒屨 [芒屨  
芒色如茅 花將放時 剝其籜皮 皮可爲繩 穗可爲箒 分黃白二芒  
而白之柔軟 不及黃 又稻之有芒刺者 柔軟可織履也 黃帝時 於則作履  
後倣之] 而廣施 憧憧者 [憧憧 往來不絕之貌 又三年 於是苦行既已修  
他方亦已遊 雖曰觀空 豈能忘本 乃於太和四年 [唐文宗年號]  
來歸 大覺上乘 照我仁域 [仁域與仁方 同指吾邦] 興德大王  
飛鳳筆迎勞曰 道義禪師 曩已歸止 上人繼至 爲二菩薩 昔聞黑衣之傑  
 [通載曰 南朝 齊武帝 勅沙門法獻玄暢 爲天下僧主 會于帝前  
肩輿入殿 時稱黑衣二傑] 今見縷褐之英 [縷音呂 絲麻之縷 可經緯者  
卽敝衣也 褐音曷 卽毛布 織之而禦寒者也] 彌天慈威 舉國欣賴  
寡人行 [行 將也] 當以東雞林之境 成吉祥之宅也 始憩錫於尚州露岳長柏寺  
 [長柏寺遺址 今在尚州] 醫門多病 來者如雲 方丈雖寬  
物情自隘 遂步至康州 [康州 今晉州] 智異山 有數於菟 [於菟楚人稱虎之名]  
哮吼前導 避危從坦 不殊兪騎 [兪騎 引路人] 從者無所怖畏  
豢犬如也 則與善無畏三藏 [善無畏 三藏 僧名] 結夏靈山  
猛獸前路 深入山穴 見牟尼立像 宛司事跡 彼竺曇猷之扣睡虎歌 令聽經

亦未專嫩於僧史也 [晉沙門竺曇猷 一名法獻 康居國人 在豐城赤石山  
石室誦經 有猛虎數十蹲在猷前 一虎獨睡 猷以如意杖  
扣睡虎頭 呵曰 何不聽經 俄而羣虎皆去] 因於花開谷 故三法和尙蘭若遺基  
纂修堂宇 儼若化城 洎開成 [開成 唐文宗年號] 愍哀大王  
驟登寶位 [開成三年戊午 金明弑僖康王 自立 四年己未 金陽等討金明  
誅之 立古微爲王 卽神武王也 追謚金明曰愍哀] 深託玄慈  
降璽書餽齋費 而別求見願 禪師曰 在勤修善政 何用願爲 使復于王聞之愧悟  
以禪師色空雙泯 定惠俱圓 降使賜號爲慧昭 昭字避聖祖廟諱  
易之也 [廟諱 似指孝昭大王 孝昭 本是孝照] 仍貫籍于大皇龍寺  
編入無皇龍寺僧籍] 徵詣京邑 星使 [漢書 李邵善天文 和帝  
遣使觀風 邵見使 問京中消息 使曰 君何以知吾爲使也 邵曰 見有二使星  
來向益州 故知之] 往復者 交轡于路 而岳立不移其志 昔僧稠  
拒元魏之三召云 [通載曰 齊鄴西龍山雲門寺僧稠 拒元魏孝明帝之前後三召也]  
在山行道 不爽大通 [爽 差也 忒也] 棲幽養高 異代同趣  
居數年 請益者 稻麻成列 殆無錐地 遂歷銓 [銓音全 言選擇也]  
奇境 得南嶺之麓 爽塏 [爽音桑 地高明 塏音凱 亦高也 明也  
言其地爽快也] 居最 經始禪廬 却倚霞岑 俯壓雲澗 清眼界者  
隔江遠岳 爽耳根者 迸石飛湍 至如春谿花 夏徑松 秋壑月 冬嶠雪  
四時變態 萬象交光 百籟 [凡有孔竅 皆曰籟 人籟則比竹是已 地籟則衆竅是已  
天籟則人心自動者是已 見莊子齊物] 和唵 千巖競秀  
嘗遊西土者 至此咸愕視 謂遠公東林 [晉慧遠 於廬山 創東林寺]  
移歸海表 蓮花世界 非凡想可擬 壺中別有天地則信也 [列仙傳云  
費長房 爲汝南市掾 市中一老翁賣藥 掛一壺於肆頭 輒入壺中 惟長房  
睹之 因再奉酒脯 翁乃與俱入壺中 見玉堂巖麗 旨酒甘肴 俱飲畢而出  
乃俱入深山 于羣虎中 使獨處 長房不恐 及臥于空室 以朽索  
懸巨石 石上 衆蛇嚙其索 長房亦不使獨處 長房不恐 翁曰 子可教也  
後令食糞中蟲 長房惡其穢 翁曰 子幾得道 恨于此不成 遂令歸  
翁與以竹杖 任所之自至 後捉于葛陂 化爲龍而去] 架竹引流 環階四注  
始用玉泉爲榜 屈指法胤 則禪師乃曹溪之玄孫 是用建六祖影堂  
[今雙溪寺也] 彩飾粉墉 廣資導誘 經所謂 [法華經偈] 爲悅衆生  
故綺錯繪衆像者也 大中四年 [唐宣宗年號] 正月九日詰旦  
[平明] 告門人曰 萬法皆空 吾將行矣 一心爲本 汝等勉之 無以塔藏形  
無以銘紀跡 言竟坐滅 報年 [俗世之享年] 七十七 積夏 [夏

謂夏安居 積夏 卽出家受戒以後之年條] 四十一 于時 天無纖雲 風雷 起  
虎狼號咽 杉栝變衰 俄而紫雲翳空 空中有彈指松 會葬者  
無不入耳 則梁史 載楮侍中翔 嘗請沙門 爲母疾祈福 聞空中彈指  
聖感冥應 豈誣也哉 凡志於道者 寄聲相吊 未忘情者 銜悲以泣 天人痛悼  
斷可知矣 靈函幽隧 [函 棺也 隧 墓道也] 預使備具 弟子法諒等  
號奉色身 [色身 佛僧之肉身] 不踰日而窆于東峯之冢 [冢  
山頂也] 遵遺命也 禪師性不散樸 [不亂不質而得其中] 言不由機  
[機 心思而巧飾者也] 服煖縕屨 [列子曰 父衣縕屨 縕久絮 屨雄麻也  
言挾縕弊麻衣] 食甘糠粇 [粇音屹 漢書 晉灼註 米屑也 又音劾 說文云堅麥]  
芋 [芋音序 山栗 卽橡子也] 菽雜糲 蔬佐 [蔬佐 蔬菜與佐飯也]  
無二 貴達時至 曾不異饌 門人以糝腹 [糝音參 不澄清之意]  
進難 則曰有心至此 雖糲 [糲 糲米] 何害 尊卑耄釋 接之如一  
每有王人 [王使] 乘駟傳命 遙祈法力 則曰凡居王土而戴佛日者  
孰不傾心護念 爲君貯福 亦何必遠污綸言 [綸言 王之傳旨] 於枯木朽株  
傳乘之飢不得齧 渴不得飲 吁可念也 或有以胡香爲贈者  
則以瓦載塘灰 [塘灰 盆中之火] 不爲丸而煇 [煇 與蒸同也] 之曰  
吾不識是何臭 虔心而已 復有以漢茗爲供者 則以薪爨石釜 不爲屑而 之曰  
吾不識是何味 濡腹而已 守真忤俗 皆此類也 雅善梵唄  
[唄 短偈而流聲 雄而不猛 諸天聞唄 則無不歡喜] 金玉其音 側調飛聲  
爽快哀婉 能使諸天歡喜 永於遠地流傳 學者滿堂 誨之不倦  
至今東國 習魚山之妙者 [通載云 魏陳思王曹植 字子建 武帝中子] 每  
讀佛經 留連嗟玩 以爲至道之宗極 轉讀七聲 升降曲折之響 世皆諷而則之  
遊魚山 聞有聲特異 清颯哀婉 因倣其聲 爲梵唄 今法事中  
魚山梵 卽其遺奏] 競如掩鼻 [晉書云 謝安能作洛下諸生詠 有鼻疾  
故名流愛其詠 或掩鼻效之 其見慕如此] 效玉泉餘響 豈非以聲聞  
度之之化乎 禪師泥洹 [本出黃庭經 經云 腦神精氣 字泥洹  
註云丹中眞火 自尾閭上升 過夾脊玉京隨海骨 入泥洹宮 則脫殼升天  
如佛之涅槃也] 當文聖大王之朝 上惻僊襟 [僊襟 王心] 將寵淨諡  
及聞遺戒 [坐滅時語] 愧而寢之 越三紀 門人以陵谷 [陵變爲谷 谷變爲陵]  
爲慮 扣不朽之緣於慕法弟子 內共奉一吉干 [干音 汗也 一品爵]  
楊晉方 崇文臺鄭詢一 斷金爲心 [易曰二人同心 其利斷金] 勒石是請  
獻康大王 恢弘至化 欽仰眞宗 追諡眞鑑禪師 大空靈塔  
仍許篆刻 以永終譽 懿乎日出暘谷 無幽不燭 海岸植香 久而彌芳

或曰禪師垂不銘不塔之戒 而降及西河之徒 [弟子] 不能確奉先志  
求之歟 仰與之歟 [案 求之 自下求請也 與之 自上特賜也 仰者 不定之辭也]  
適足爲白珪之玷 [詩大雅 抑篇文云 白珪之玷 尚可磨也斯言之玷  
不可爲也 南容讀詩 至此文 反復三讀 孔子聞之 以兄女妻之]  
嘻非之者 亦非也 不近名而名彰 蓋定力之餘報 與其灰滅電絕  
曷若爲可爲於可爲之時 使聲震大千之界 而龜未戴石 龍遽昇天  
[獻康王薨] 今上 [定康王也] 繼興 塤箎相應 [小雅 伯氏吹塤 仲氏吹箎]  
義諧付囑 善者從之 以鄰岳招提 有玉泉之號 [卽今之晉州玉泉寺]  
爲名所累 衆耳致惑 將俾棄同卽異 則宜捨舊從新 使視其寺之所枕倚  
則以門臨複澗 爲對 乃錫題爲雙溪焉 [改玉泉爲雙溪] 申命下臣曰  
師以行顯 汝以文進 宜爲銘 致遠拜手曰 唯唯 退而思之  
頃捕名中州 [先生 十二入唐 十八登第 文名大振 二十八東還 乃僖宗光啓元年  
而定康王嗣位之初載也 至翌年 僖宗遣使 特命先生 撰中興功德頌一卷]  
嚼腴咀雋于章句間 [腴 肥魚鱗 雋 肥鳥肉 比古人典籍深奧有味也]  
未能盡醉衢罇 [淮南子云 聖人之道 猶中衢而致樽  
飲者 斟酌多少 各得其宜 唯愧深蹠泥甃 [蹠 就 泥 淤泥 甃井也  
言蛙盡其勇 只就泥甃間] 況法離文字 無地措言 [先生自言  
北學中州 未能盡得聖人之道 則況於佛家文字 無所措言] 苟或言之北轅適郢  
[北向車之誤向南郢] 第以國主之外護 門人之大願 非文字  
不能昭昭乎羣目 遂敢身從兩役 [兩役 口啣手寫也 或云中興詩與碑文  
是兩役 非也] 力效五能 [鼯鼠 一名夷由 有五能 五不能  
一能飛不能過屋 二能緣不能穿木 三能逾不能渡谷 四能穴不能掩身 五能走不能先人  
喻述作之能 反不能也] 雖石或憑焉 可慙可懼 [懼於心而懼於人也]  
而道強名也 何是何非 [字解曰 強 自是也 自是以道爲名  
何必是非] 掘 [掘音凡 莊子 掘若枯木 不動之貌] 筆藏鋒 [掘  
與槽同 發也 吳語云 狐狸之 狐槽之 是以無成功 言發筆欲書  
而更藏其筆鋒也] 則臣豈敢 [王命也 不敢不作] 重宣前義 謹札 [札櫛也  
編之如櫛齒相比] 銘云  
杜口禪那 [禪那 此云靜慮] 歸心佛陁 [佛陀 覺也] 根熟菩薩 弘之靡也  
猛探虎窟 [不入虎穴 不得虎子 比入中原 得妙法] 遠泛鯨波  
去傳秘印 來化斯羅 [新羅之一稱] 尋 幽選勝 卜築巖磴 水月澄懷  
雲泉寄興 山與性寂 谷與梵應 觸境無 息機是證 道贊五朝 [五朝  
憲德 興德 僖康 神武 文聖] 威摧衆 妖 默垂慈蔭 顯拒嘉招 海自飄蕩

山何動搖 無思無慮 匪斲匪雕 食不兼味 服不必備 風雨如晦  
 始終一致 慧柯方秀 法棟俄墜 洞壑淒涼 烟蘿憔悴 人亡道存 終不可諼  
 [爾雅云 忘也 詩 衛風 終不可諼兮] 上士陳願 大君流恩  
 燈傳海裔 塔聳雲根 [雲根 石也] 天衣拂石 [天衣拂石 取久遠之意劫頌云  
 有石長廣四萬里 長壽天人過百年 六銖袈裟磨鍊盡 是則名爲一大劫]  
 永耀松門 [松門 卽寺刹]

## 유당 신라극 고 강주 지리산 쌍계사 교시 진감선사 대공탑 비명

전서국 도통순관 시어사 내봉공 사 자금어대 신 최치원은 교지를 받들어 찬술함.  
 (국보 제 47 호)

대저 도가 사람에게 멀지 아니하고 사람은 다른 나라가 없다 이르므로 동방사람의 아들이 석(釋)이 되고 유(儒)가 되는데는 반드시 서쪽으로 큰 바다에 떠서 이중 삼중 통역을 거쳐 유학 할 제 목숨은 조각배에 부쳤고 마음은 보배의 고장으로 행하였다.

빈것으로 갔다가 채워서 돌아오고 어려움을 먼저 한 뒤에 소득이 있었으니 마치 옥을 캐는 자가 곤륜산의 높은 것을 꺼리지 아니하고 주를 더듬는 자는 용이 잠든 물속의 깊은 것을 피하지 아니함과 같았다. 드디어 지혜의 횃불을 얻어서 빛이 오승에 통하고 아름다운 음식을 얻어 맛이 옥경에 배불렀다. 다투어 청문으로 하여금 선으로 들어오게 하고 능히 일국으로 하여금 인에 흥기되게 하였다.

학자들이 혹 말하기를 인도와 켈리의 교를 설하는 것이 흐름이 나누이고 체(體)가 달라서 둥근 구멍에 모난 나무를 박는 것이라 하여 서로 모순되어 각기 한모퉁이만 고집한다.

내가 시험삼아 논하건대 시를 설하는 자는 문으로서 사(辭)를 해하지 아니하고 사로서 뜻을 해하지 아니할 것이니 예기에 이른바 말이 어찌 일단 뿐이리오 대저 각기 마땅한 바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여산의 혜원이 눈을 지어서 여래와 주공 공자가 출발한 것은 비록 다르나 돌아가는 바는 한가지이니 지극한 이치에 통달하였다.

능히 서로 겹치지 못하는 것은 물이 능히 겹하여 용납하지 못하는 때문이다. 심약의 말에 공자는 발단(發端)을 하였고 석씨는 극치가 된다 하였으니 참으로 그 큰 것을 아는 이로써 비로소 더불어 지극한 도를 말 할 수는 있다 하겠도다. 불이 말한 심법은 현(玄)하고 또 현(玄)하여 이름으로 이름 할 수 없고 설하려 하여도 설할 것이 없어서 비록 달(月)을 얻었다 이르나 손가락을 혹 잊어버려 마침내 바람을 매고 그림자를 포착하기 어려움과 같다. 그러나 멀고 높은데로 오르자면 가깝고 낮은데서부터 하는 것이니 여기서는 글로써 표현한들 무엇이 말을 하리오 하였으니 곧 저 정명이 침묵으로써 문수를 대한 것과 선서(善逝)가 비밀히 가섭(迦葉)에게 전한 것은 혀를 놀리지 아니하고 능히 심인에 맞은 것이니 하늘이 말하지 아니한다고 말하는 것을 어디에 가서 얻으리오.

미묘한 도를 멀리 전하여 우리 고장에 널리 빛낸 이가 어찌 다른 사람이라. 선사가 그분이

다. 선사는 법회는 해조요 속성은 최씨이다. 그 선대는 한쪽으로 산동의 명문이었는데 수나라가 요동을 칠 때에 고구려에서 많이 죽고 뜻을 굽혀 그곳의 백성이 된 자가 있었으니 당에 이르러 사군을 점령하매 지금은 전주 금마 사람이 되었다.

아버지는 창원인데 재가 하면서 출가의 행이 있었다. 어머니 고씨가 일찍이 낮잠을 자는데 꿈에 한 중이 와서 이르기를 내가 어머니의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유리 향아리로서 표적을 삼더니 얼마 안되어 선사를 임신하였다. 나면서 울지 아니하였으며 곧 일찍부터 소리없고 말없는 깊은 도의 싹을 타고났던 것이다. 칠팔세가 되자 유희할 때에 반드시 있을 태워서 향을 삼고 꽃을 따서 공양을 삼았으며 혹 서쪽을 향하여 꿇어앉아 시간이 지나도록 몸을 움직이지 않았으니 이것은 선의 뿌리가 실로 백천겁(百千劫)전에 심어진 바이요 배워서 따라갈 수 없는 것이었다.

십여세로부터 이십세에 이르기 까지 부모를 봉양하기에 뜻이 간절하여 잠깐도 잊지 아니하였으나 집에 저축이라곤 없었고 또 농사지을만한 땅도 없어서 부모의 봉양은 오직 자기의 노력으로만 해야 되었기 때문에 이에 생선 장사를 하여 부모를 봉양하였다.

손으로는 그물을 맺지 아니하였으며 마음은 이미 통살을 잇는데 계합하였다. 속수의 즐거움으로 지성으로 봉양하다가 상을 당하자 스스로 흠을 저다가 성분하고는 말하기를 길러준 부모 은혜는 힘으로 갚았으나 미묘한 도리는 어찌 마음으로 구하지 아니하랴. 내가 어찌 박과 오이가 등글에 매인 것처럼 젊은 나이에 한구석에 박혀 있으리요. 하고 드디어 정원 년간에 당나라로 가는 세공사에게 찾아가서 선장이 되기를 청하여 몸을 의탁하여 서쪽으로 바다를 건널적에 고된 일을 많이 하고 험한 풍파를 평지와 같이 여겼다.

자비의 배에 노를 저어서 고해를 질러 건넜었다. 피안에 도달하자 국사에게 고하기를 “사람마다 각각 뜻이 있는 것이니 나는 여기서부터 하직하겠소” 하고 드디어 행하여 창주에 이르러 신감대사를 뵈옵고 절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대사가 기뻐하며 “장난삼아 이별한지가 멀지 아니하였는데 두번 서로 만남이 기쁘구나” 하고 문득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히고 심인과 계를 함께 주니 마른 쑥에 불을 부치고 낮은데로 물이 흐르는 것 같았다.

무리들 가운데서 서로 이르기를 동방의 성인을 이에 다시 보겠다 하였다. 선사의 얼굴빛이 검으므로 모두가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지목하여 흑두타라 했으니 이는 곧 현묘함을 탐구하고 묵묵히 행함이 진정 칠도인의 후신이었으니 어찌 읍중의 검은 자가 능히 백성의 마음을 위로해 준 것에 비길 것이라. 영원토록 수염이 붉은 불타야사 및 눈이 푸른 달마와 함께 색상으로써 나타내 보이리라. 원화 오년에 구족계를 승산 소림사의 유리단 곁에서 받으니 어머니의 전일의 꿈이 완전히 부합했다,

이미 계주가 밝았으며 다시 경을 배웠다. 하나를 듣고는 열을 알매 강색이 꼭두서니에서 나와 꼭두서니 보다 붉었고 청색이 쪽에서 나와 쪽보다 푸르렀다. 비록 고인 물처럼 맑은 마음이나 조각 구름같이 떠다니는 자취였다. 고향의 중 도의라는 이가 먼저 중원으로 도를 물으러 왔었는데 뜻밖에 서로 만나 기뻐하며 친구가 되어 사방으로 멀리 참례하고 찾아 불도를 증득하였다.

도의 는 먼저 고국으로 돌아오고 선사는 바로 종남산에 들어가 만길봉우리에 올라가서 솔씨를 따먹으며 적적하게 지관하기 삼년이요 뒤에 자각으로 다시 나와 사방으로 통하는 길에 당하여 짚신을 삼아 보시를 널리하여 왕래하기 또 삼년이였다. 이리하여 고행을 닦기를 이미 닦았으며 다른 곳으로 다시 놀기도 하였으며 비록 공을 공부한다 할지라도 어찌 근본을

잊어서 될 것인가.

드디어 태화 사년에 돌아오매 대각의 상승이 우리의 어진 강토를 비쳤다. 흥덕대왕이 친히 수레를 타고 맞아 위로하기를 “도의 선사가 전일에 돌아왔더니 상인이 잇달아 이르렀으며 두 보살이 되었도다 옛날에 검은 옷입은 호걸이 있었다 들었더니 지금에 누더기 걸친 영웅을 보겠도다. 미천의 자 위를 온 나라가 통틀어 기쁘게 의지하겠도다 과인이 장차 동쪽 계림 지경으로 길상의 집을 만들리라” 했다.

처음에 상주 노악산 장백사에 석장을 멈췄는데 의원 문전에 병자가 많듯이 찾아오는 이가 구름 같았으며 절간이 비록 넓었으나 사람들이 자연 군색했다. 드디어 걸어서 강주 지리산에 이르렀는데 몇마리 호랑이가 으르렁거리며 앞에서 인도하여 위험한 곳을 피해 평탄한 길로 가게 함이 유순한 말과 다르지 않았으며 따르는 사람들도 두려워함이 없어 마치 기르는 개처럼 여겼다. 곧 선무외삼장이 영산에 하안거를 하는데 맹수가 길을 앞서 깊이 산혈로 들어가매 모니의 입상을 본것과 사적이 완전히 같으니 저 축담유가 자는 범을 두드려 경을 듣게 한일 그것만이 홀로 승사에 미답이 될수 없다.

화개곡에 옛 삼법화상의 절터를 그대로 인하여 절을 지으니 엄연히 화성이 같았다.

개성 삼년에 이르러 민애대왕이 갑자기 보위에 오르자 깊이 자비에 의탁하려고 새서(璽書)를 내려 공양할 물자를 보내고 특별히 기원할 것을 청했는데 선사가 이르기를 “부지런히 정사를 닦는데 있을뿐 기원해 무엇하리요” 하고 사신이 돌아가 왕에게 복명하니 왕이 듣고 부끄러워하고 깨달아서 선사가 색과 공이 함께 소멸되고 정과 혜가 모두 원만하다 하여 사신을 보내 호를 주어 혜조라하니 소자는 성조의 어휘이므로 피하여 바꾼 것이다. 인하여 대황룡사에 적을 읊기게 하고 서울로 오라고 불렀는데 사자의 왕래가 길게 고삐를 이었으나 산악처럼 곳곳하여 그 뜻을 읊기지 않았다.

옛날 조승이 원위의 세번 부름을 거절했다 했으니 산에 있어 도를 행하매 대통에 어긋나지 않았으며 깊숙한데 살아서 고상함을 길는 것이 시대는 달랐으나 지취는 한가지다.

두어 해를 머물매 가르침을 청하는 자 벼와 삼대처럼 늘어서고 성같이 에워싸서 거의 송곳꽃을 틈조차 없었다. 드디어 기이한 지경을 두루 선택하여 남령의 산기슭을 얻으니 높고 시원함이 제일이었다.

사찰을 창건하는데 뒤로는 노을 끼는 언덕을 의지하고 앞으로는 구름이치는 시내를 굽어보니 안계를 맑게 하는 것은 강건너 먼 산이요 귀를 서늘하게 하는 것은 돌 구멍에서 쫓는 나르는 여울이었다.

더욱이 봄에 피는 시내의 꽃과 여름에 그늘지는 길옆의 솔이며 구렁을 비추는 가을의 달과 봉우리를 덮는 겨울의 눈들이 사시 변하고 만상의 빛을 번갈으며 백가지 울림소리가 어울려 울조리고 수 천개의 바위들이 다투어 빼어났다.

일찍이 서토에 놀던 자가 와서는 모두 보고 깜짝 놀라 이르기를 “혜원의 동림사를 바다건너 옮겨 왔구나 연화세계는 범인의 상상으로 비껴 볼바 아니로되 항아리 속에 별천지가 있다더니 정말인가” 했다.

대로 흙을 만들어 시냇물을 끌어다가 축대에 돌아가며 사방으로 물을 대고 비로소 이름하여 옥천이라고 현판을 붙였다. 범통을 헤아려 보니 선사는 곧 조계의 현손이다 이에 육조의 영당을 세워 분바른 벽에 단청으로 채색하여 널리 신도를 귀의시키는 데에 이바지 하니 경에

이른바 “중생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문채를 섞어 여러상을 그린다” 함이 었다.

대중사년 정월 구일 이른 아침에 문인에게 말하기를 만가지 법이 다 공이니 내 장차 가련하다. 하나의 마음이 근본이나 너희들은 힘쓸지니라,

“ 탐으로서 형해를 갈무리지 말고 명으로써 행적을 기록하지 말아라” 하고 말을 마치자 앉아서 열반에 드니 칠십칠이요 중이 된지 사십일년이였다.

그때 하늘에는 실구름도 없었는데 바람과 우뢰 소리가 혼연히 일어나며 호랑이는 슬피 울부짖고 삼나무.갓나무는 변하여 시들더니 이윽고 자줏빛 구름이 하늘에 자욱하고 공중에서 손가락 통기는 소리가 나서 장사에 모인 자는 듣지 못한 이가 없었다.

양나라 역사에 실려 있기를 “저시중 상이 일찍이 사문을 청하여 어머니의 병환을 위해 복을 빌즈음 공중에서 손가락 통기는 소리가 났다” 했으니 성자의 영감으로 명명중 응함이 어찌 헛되다 할 것인가. 무릇 도에 뜻을 둔자는 글을 보내어 멀리 조상하고 정을 잊지 못하는 이는 슬픔을 머금어 울었으니 하늘과 사함이 애도함을 단연히 알 수 있다.

관곽과 묘혈을 미리부터 준비 했으며 제자 범량등이 울부짖으며 색신을 모셔서 날을 넘치지 않고 동쪽 산봉우리에 장사 지내니 유명을 좇음이었다.

선사는 성품이 산하지도 아니하며 박하지도 아니하고 말은 꾸미지 않았으며 웃은 현 숨과 굵은 삼베도 따스했고, 밥은 겨와 귀리도 달게 먹었다.

꿀밤과 콩에 섞인 반찬도 두 가지가 없었으며 귀한 손이 가끔 왔으나 일찍이 다른 반찬이 없었으며 문인이 깨끗지 못한 음식을 귀한 손님에게 드리기 어려워하면 곧 이르기를 “마음이 있어 여기까지 왔으니 추식인들 어찌 상관하라” 했다.

높은 이나 낮은 이나 늙은이나 젊은이나 한결같이 대접했으며 가끔 왕사가 역마를 타고 와서 왕명을 전하여 멀리 법력을 빌면 곧 말하기를 “무릇 왕토에 살고 불일을 이고 있는 자로서 주군들 호국하는 일념에 마음을 기울여 왕을 위해 복을 쌓지 않으리요 무엇하러 마른 나무 썩은 등걸 같은 나에게 멀리 운언을 욕되게 할 것인가. 사람과 말 일행이 굶주릴 때 먹지 못하고 목마를 때 마시지 못하는 것이 저욕이 마음에 걸린다” 했다.

어떤이가 호향을 선사하니 기와에다 잿불담아 환을 짓지 않은 채로 태우면서 말하기를 “나는 이 냄새가 어떠한지 알지 못한다. 마음만 경건히 할뿐이다”. 했으며 다시 중국의 차로 공양하는 이가 있으니 섶으로 돌술에 불지피고 가루를 만들지 않은 채로 끓여 마시며 말하기를 “나는 이 맛이 어떠한지 아지 못한다. 창자를 적실 뿐이다” 했으니 진을 지키고 속을 싫어함이 다 이런 등류이었다.

평소부터 범패를 잘 불렀으니 그 목소리가 금 옥 같아서 곁들인 음조와 날아가는 소리가 상쾌하여 애완하여 능히 제천으로 하여금 환희케 하고 길이 먼곳까지 흘러 전했으며, 배우는 자가 당에 왔는데 가르치기를 게을리 하지 않아서 지금껏 동국에서 어산의 묘한 곡조를 익히는 자가 다투어 손으로 코를 가리고 옥천의 남긴 음향을 본뜨려 하니 어찌 성문으로 중생을 제도하는 교화가 아니리오.

선사가 열반에 든 것이 마침 문성대왕때 었는데 왕이 마음이 칙연하여 장차청정한 시호를 내리려 하다가 그 유계를 듣고는 부끄러워해 그만 두었다.

삼기를 지난 뒤에 문인이 세월이 오래되면 언덕이 골짜기가 될 것을 염려해서 법을 사모하는 제자들에게 길이 썩지 않게 할 인연을 의론했더니 내공봉 일길한 이 굳게 합심하여 돌에

새기기를주청했다.

헌강대왕이 지극한 덕화로 넓히고 진종을 흠양하여 진감선사라 추시하고 대공령탑이라 이름하고 인하여 전자의 새김을 허락하여 아름다운 이름을 영구히 하도록 했다.

거룩하다 해가 양곡에서 뗏으며 깊숙한 데까지 비치지 않음이 없고 향을 해안에 심었으니 오랠수록 더욱 향그럽다.

어떤이가 말하기를 “선사가 탐하지 말라 명하지 말라” 는 훈계를 남겼는데 지금에 문도들이 능히 확고하게 스승의 뜻을 받들지 못했으니 그네들이 구했던가 아니면 위에서 주었던가 실로 백규의 티가 될 뿐이로다. 했다 슬프다 그르게 여기는 자 또한 그르다 이름을 가까이 앉으렸는데 이름이 떨쳐진 것은 원래 정력의 남은 보답이니 저 재처럼 사라지고 번개처럼 끊어지기 보다는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때 해서 명성으로 하여금 대천세계에 떨치도록 함이 어느것이 낫다 하겠는가.

귀석에 비를 엇기 전에 대왕이 갑자기 승하하고 금상이 이어 즉위하니 형체가 서로 잔했으며 유축에 따라 착한 일을 계승하였다. 근처의 산에 절이 있어 옥천이라 불렀으니 이름이 중복되어 듣는이 분간하기 어려웠다.

장차 같은 것을 버리고 든 것을 취하자면 마땅히 옛것을 떠나서 새것을 지어야 했으므로 하여금 그절의 전후를 둘러보게 한바 문간이 두갈래의 시내에 다달아 있다고 복명했으므로 이에 쌍계란 제호를 주었다.

신에게 명해 이르기를 선사는 행적으로 나타났고 너는 글로써 출신했으니 마땅히 명을 지으라 하셨다.

치원이 손들어 절한 후”네네” 하고 대답했다.

물러나와 생각하니 초년에 중원에서 이름을 얻어 장구의 사이에서 아름답고 맛난 것을 맛보았으나 미처 거리에 둔 술 향아리를 마시어 취하지 못했으며 오직 진흙 속에서 허우적거림이 부끄러울 뿐이다. 하물며 법음 문자를 떠났으며 말은 부칠 곳이 없으니 혹 말한다면 수레채를 북으로 하여 영 땅에 가려는 것이 된다.

그러나 국왕의 외호함과 문인의 대원은 문자가 아니면 못 사람의 눈에 소상하게 할 수 없으므로 드디어 몸은 양역에 겸하고 힘은 오능을 본받으려 하노니 비록 돌이 혹 말을 한다면 부끄럽고 두려우나 도란 것은 억지로 이름한 것이니 어느것이 옳고 어느것이 그른 것인가 붓으 꺾고 만다는 것을 신이 어찌 감히 하라 앞에 말한 뜻을 거듭 술하여 삼가 명을 짓는다.

선정으로 입다물고 불타에 귀심했네. 근숙한 보살이 이 도를 넓혔도다 담크게 호굴을 더듬었고 멀리 경과를 넘었구나. 가서는 비인을 전해받고 돌아와 신라를 교화했네. 깊은 승지찾아 골라 바위 벼랑에 절을 지었네. 물과 달에 마음 밝히고 구름과 샘물에 흥을 부쳤네. 산은 성과 함께 적연하고 골은 범패소리에 메이리쳤네. 경계에 닿는 곳마다 걸림이 없고 기심을 끊었으니 이가 곧 증독이다. 도는 다섯 왕조 힘찬했고 위엄은 모든 요귀 꺾었었네. 묵묵히 자비 음덕 드리우면서도 겉으로는 부름을 물리쳤네. 바다야 제대로 표탕하나 산이야 어찌 동요될까. 사려가 없었으며 다듬지도 않고 꾸미지도 않았네. 음식은 맛을 겸하지 않았으며 옷은 갖추어 입지 않았다.

바람 비가 그믐밤 같은데도 시종이 한결 같았네. 지혜의 가지가 바야흐로 빼어나는데 법의

동량이 갑자기 꺾였다. 골과 구렁이 처량도 하고 연하와 등라가 초췌하다. 사람은 가도 도는 남였으니 영원토록 잊지 못하리라.

상사가 소원을 진달했으매 대군이 은덕을 베풀었네. 등불은 동해에 전해왔고 탑은 구름속에 솟구쳤네. 천의가 돌으 스치도록 영원히 송문에 빛나도다.

## 2. 故曦陽山鳳巖寺智證大師寂照塔碑銘

叙曰 五常分位[以仁義禮智信 配東西南北中] 配動方 [東是萬物始生之方故曰 動方]者曰仁 三教[儒佛老]立名 顯淨域者曰佛 仁心即佛 佛日能仁[梵語釋迦 華言能仁] 則[音測 法也]也 導郁夷 [東方柔順性源 達迦衛[竺國] 慈悲教海 寔猶石投水雨聚沙然[以石投水無碍而直下 大而瀑流 不勞而沙聚 言其易也] 矧[音申 況也] 東諸侯之外守者 莫我大也 而地靈既好生爲本 風俗亦交讓爲先 [東方生長萬物先於他域故云 地靈好生 三韓古俗 好讓不爭 行者相逢皆住讓路故云 交讓爲先] 熙熙[和樂貌 老子云 衆人熙熙 如享太牢如春登臺]太平之春 隱隱[安心貌 又彷彿貌] 上古之化 加以性參釋種 遍頭居寐錦之尊[遍頭 削髮也 寐錦 王號也 眞興王末年祝髮被僧衣 自號法雲 王妃亦效之爲尼 住永興寺] 語襲梵音 彈舌足[音走]多羅之字[多羅 且云貝多羅 卽西域木名 其葉長廣潔白 故書寫經文也] 是乃天彰[彰 明也 或云 指漢明帝 未詳]西顧 海印東流 [海印佛之證法也 會玄記 七寶山間 香水海中 閻浮提 有情無情一切物像 炳現其中 故謂之海印] 宜君子之鄉 染法王之道 [佛爲萬法之王 故云法王也] 日日深又日深矣 且自魯紀隕星[道安三教論云 惠光還照莊王日觀夜明 註云 春秋云 魯莊公七年歲次甲寅四月辛卯夜恆星不現 星隕如雨 卽周之莊王十年也 莊王遂易筮云 西域銅色人出也 所以夜明 非中華之灾也 淨名疏云 周時佛興 星隕如雨] 漢徵佩日[弘明集云漢明帝永平三年 帝夢金人 項佩圓光 飛行殿庭忻而悅之 詰朝遍問羣臣 此何神耶 通事舍人傳毅曰 臣聞 天竺有道者 號曰佛也 殆將其神乎 帝信爲然 卽遣中郎蔡諳 博士王遵等十八人 同往西域 求迎佛法 往月支國 遇迦葉摩騰 竺法蘭二梵僧 帝白 畫釋迦像及舍利并四十二章經白馬馱之至洛陽 乃永平十年 帝大悅 立精舍 號曰白馬寺 以安之也] 像跡則百川含月 法音則萬籟號風或緝懿縑緗[古文云 學富縑緗 ○ 縑緗淡黃帛 古者無紙 書用竹帛也 懿 懿德也 如魯史列子等文 或纂四聖懿德故也] 或鐫花琬琰[鐫 刻也 琬琰 美玉也 言佛之花容 刻於美玉也] 故濫觴洛宅 [書云三江浩浩 其源濫觴 註 濫泛也 觴杯也 謂江出岷山 初出之源 可泛一盃而已凡事之始初云濫觴 ○ 洛宅 召公宅於洛邑 故云洛宅 言佛法始到洛陽故也又弘明集云 周昭王二十四年甲寅夏四月八日 江漢川池忽然汎漲 山泉大地 皆悉動震 五光氣 入貫太微 遍於四方 盡作青黃色間 王問太史蘇由 對曰 有大聖人 生于西方 故現此瑞 一千年後 聲教及此 因刻石 埋南郊祀側 此佛法將來之始應 此應上魯紀句] 懸鏡秦宮[始皇時 有外國沙門悉利防等十八人 持佛經來 始皇囚防等 夜有丈六金身 面如懸鏡 破獄出之 乃驚懼謝焉 此佛法現著之事]之事跡 昭昭焉如揭合璧[此明白之意 古詩 日月如合璧 五星如連珠 苟非三尺喙[孔子曰 丘願有三尺喙 說盡天下之事也] 五色毫[說文云 江淹夢受五色筆 自後文藻日新] 焉能措辭其間 駕[傳也]說于後 就以國觀國 考從鄉至鄉[此用道經文 以一國觀一國 以一鄉觀一鄉 ○ 舊註云 上國字中國 下國字西國也 上鄉字中原也下鄉字東方也 言以我國觀他國也] 則風傳沙嶮而來 [沙卽繩度之流沙也 嶮卽傳 傳身之葱嶺也 見三莊傳] 波及海隅[東國]之始 昔當東表鼎峙之秋 [鼎峙 三韓也 卽指三國並立言] 有百濟蘇塗之儀 [三韓古代諸國 各有別邑 建大木縣鈴鼓事鬼神 謂之蘇塗 出魏志東夷傳] 若甘泉金人之祀[魏書佛老志云 武帝元狩中 霍去病 入西域獲渾邪王及金人一軀來 長丈餘 帝以爲大神 置甘泉宮 燒香禮拜 此佛道之漸興也] 厥後西晉曇始 始之貊[東夷] 亦攝騰東入[攝騰 西域僧名 漢明帝時 入中國也] 句驪阿度 度于我[阿度 新羅訥祇

王時墨胡子 自高句麗 禮作窟室處之 後阿度與侍子三人亦來] 如康會南行[吳書 赤烏四年 有康居國大丞相子 姓康 名僧會者 棄俗被緇 以遊化爲任 行至建康 營立茅茨設像行道 限于三七日 瓶中乞舍利有驗 吳王權喜 建塔立寺度人] 時酒梁菩薩帝 反同泰一春 我法興王 副律條八載也 [梁書 武帝紀云 大通元年三月辛未 輿駕幸同泰寺 捨身 甲戌還宮 卽新羅法興王十五年也] 亦既海岸植與樂之根[慈能與樂 悲能拔苦] 日鄉耀增長之寶[信能增長智功德也] 天融善願 地聳勝因[海岸 東海之岸 日鄉 日出之鄉 皆指東國也] 爰有中貴 [廣利傳 中貴從廣 註 居中用事之貴人] 捐軀[指異次頓殉教事] 上仙 [君也] 剔髮[指眞興王剃髮事] 苾芻[草名 具五義故比僧 見大法數] 西學羅漢[此云殺賊 亦云應供 殺無明賊 應人天供器也] 東遊 因爾混沌能開[東國佛教之初世界] 娑婆[堪忍也] 遍化 莫不選山川勝槩 窮土木奇功 藻[音早 文飾也] 宴坐之宮 燭修行之路 信心泉涌 慧力風揚 果使漂杵[書 武成云 既戊午 師渡孟津 癸亥 陣于商郊 俟天休命 甲子昧爽 受率其旅 若林會于牧野 罔有敵于我師 前徒倒戈攻于後徒 以此血流漂杵 一戎衣天下大定云云 註曰 杵或何鹵楯也 昧爽昧冥 爽明 將明未明之時也 若林 詩所謂其會如林也 紂兵若林 然無克我師之志 故紂之前徒倒戈 反攻其在後之徒 自相屠殺 至血流漂杵也] 饑災[三國戰爭 血流漂杵 至新羅統合 而時得平和] 鍵囊騰慶[禮記云 武王克商 濟河而西 馬散華山之陽 不復乘 牛散之桃林之野 不復服 車甲斲而藏之府庫 而不復用 倒載干戈包以虎皮 名曰建囊 註云 建鍵同 鎖閉兵器也] 昔之叢爾[叢音萃 小貌 左傳叢爾同] 三國 今也壯哉一家[新羅武烈王滅百濟 文武王滅高句麗也] 雁刹[西域記 昔有一伽藍僧 依小乘教 食五淨肉 見羣雁飛翔 戲曰 今日廚供有缺 宜善知時 有雁折翼而下 上座大德曰 此佛菩薩 憐汝等愚昧 示現 因以瘞雁爲塔 故塔謂之雁塔 刹 塔上竿柱也] 雲排 將無隙地 鯨桴[張衡東京賦 發鯨魚 魚鏗牢鍾 註云 海岸有獸 名蒲牢 其聲如鍾

性畏鯨 見鯨輒吼 故如今鑄鍾 像蒲牢爲頭 擊鍾之桴 像鯨故曰鯨桴] 雷振 不遠諸天 漸染有餘 幽求不斲[音亦 厭也 詩云 爲締爲紕 服之無斲也] 其教之興也 毘婆娑[音義云 此云廣解 又云分分說 總有三義 廣說 勝說 異說 卽小乘教論也] 先至 則四郡 [樂浪 臨屯 玄菟 眞蕃] 驅四諦[苦 集 滅 道]之輪 摩訶衍[大乘教也] 後來則一國耀一乘[佛乘]之鏡 然能令義龍雲躍 律虎風騰[高僧傳云 陳義淨 能通義學 故曰義龍 隋贊寧 能解律學 故曰律虎也] 洵[音旬 水勢湧貌] 學海之波濤 蔚[音鬱 草木盛貌] 戒林之柯葉 道咸融乎無外 情或涉於有中 抑止水停漪[漪 水波也 比妄想] 高山佩旭[旭 初出日 比心印]者 蓋有之矣 世未之知 泊長慶[唐穆宗年號]初 有僧道義 西泛睹西堂之奧[西堂 馬祖弟子智藏禪師] 智光[自心也] 俾智藏而還 始語玄契者 縛猿心 護奔北之短[奔北者 適越北轅之意 矜鷄翼 諛圖南之高[莊子 斥鷄笑大鵬曰 彼且奚適也 我騰躍而上 不過數仞而下 翱翔蓬蒿之間 此亦飛之至也 而彼奚適也 此比教學之謗禪] 既醉於誦言[詩云 誦言如醉] 競嗤爲魔語 是用韜光廡下 [見無染碑中廡玉註] 斂迹壺中[並見無染註] 罷思東海東[東海 通一國東 新羅之東] 終遁北山北[佛陀耶舍 謝秦使曰 脫如見禮羅什 則貧道當遠遁於北山之北] 豈太易之無悶[文言曰 遯世無悶 不見是而無悶 註云 悶病也 又憂也] 中庸之不悔者耶[中庸云 君子依乎中庸 遯世不見知而不悔也] 然秀冬嶺[陶淵明四時詩曰 秋月揚明輝 冬嶺秀孤松也] 芳定林 螳慕[徐無鬼云 羊肉不慕蟻 蟻慕羊肉 羊肉羶也 舜有羶行 百姓悅 故三徙成都 至 之墟 而十有萬家]者 彌山 鷹化[變惡爲善 如鷹化爲鳩也 出禮月令]者 出谷 道不何廢 時然後行 [時至後行化也] 及興德大王纂戎[纂 繼也 戎 大也] 宣康太子監撫[監撫者 太子之職 古詩云 撫軍監國太子事] 去邪鑿國 樂善肥家[去邪云云 善治國家之意] 有洪陟大師 去西堂證心 來南岳休足 驚冕[驚似山雞而小 乃華虫 天子玉冕 公衮冕 侯伯驚冕 子男毳冕 大夫絺冕 士玄冕 蓋朝祭之冠 上玄下纁 前後有旒各十二 每旒十二玉 玉之色 以朱白蒼黃玄爲次 冕者 略俛之意 前低一寸二分] 陳順風之請[順風 莊子云 廣成子在崆峒 黃帝問至道 又欲官陰陽遂郡生 廣成子曰 而欲問者物質也 欲官者物殘也 奚足語至道 黃帝退 捐天下築特室 席白茅 問在三月 復往邀之 廣成子南首而臥 黃帝順下風膝行而進 再拜稽首 而問治身之道] 龍樓[宮闕也 杜詩 雞鳴問寢龍樓曉] 慶開霧之期 [開霧云云 師來南岳休足 故以比南山玄豹隱霧澤毛也 霧雨七日而限滿 則開霧而出頭也 大師出

山之期 猶玄豹開霧出頭之時也] 顯示密傳 朝凡暮聖 變非蔚也[繫辭云 聖人虎別 其文炳君子豹別 其文蔚 辨人狸別 其文華 言殊炳明著也 蔚文深密貌 猶為漸次也] 興且勃焉[左傳 臧文仲曰 禹湯罪已 其興也勃焉] 試較其宗趣 則修乎修沒修 證乎證沒證[無修 無證 言虛無也] 其靜也山立 其動也谷應 無為之益 不爭而勝 於是乎 東人方寸地 [人之心 四方各一寸也]靈矣 能以 [靜同]利 利海外 不言其所利 大矣哉 [能以云云 用乾卦 能以美利利天下 不言其所利 大矣哉之文也] 爾後觴鷺河[觴盃也 鷺 飛也 盃度和尚 携一木盃渡河] 筌融道[即道義明宗旨之意] 無念爾祖 寔繁有徒 或劍化延津 [言得道中原而不還也 西晉惠帝時 張華 使雷煥掘鼓城獄而得雌雄二劍 各佩其一 華誅 失劍所在 煥死 其子雷華 持劍渡延平津 劍躍入水 使潛水者求之不得 但見雙龍 琬蛇而去] 或珠還合浦[言得道而還也 後漢孟嘗 為合浦太守 郡不產穀 海出寶珠 民以為業 先是太守貪取珠 民不勝其苦 珠徙交趾郡 至是革祛舊弊 珠即還來] 為巨擘[即居首指者也] 者 可屈指焉 西化則靜衆無相[高僧傳云 大師燒指求法 草衣 食土<凡木根之皮曰土> 居靜衆寺 保唐 無住 亦門人也 玄宗西幸 禮敬殊甚 有唐近朝詞宗柳尚書宗元 按節東川 畫無相 無住 道一 智藏 四祖師真 起四證堂 幕吏詞宗李商隱 為碑序 大師冠其序 云 大師表海遐封辰韓顯族 始其季妹 夙挺冥機 見金夫 以有躬 授寶刀以敗面 大師得因上行 豁悟迷途 載驗土風<風俗> 東國素稱君子 旋觀沙界 西方始有聖人 銘曰 猗歟靜衆 太隔天尋 遺珪擲組 爐指求心 柔管伐毳 掬土<食土> 延陰 蘇<倉廩>含檀鉢 露涉瓊針 其碑在蜀東川 惠義寺南禪院 是也 凡物之長 謂之天尋 謂中原也] 常山慧覺[金雲卿弟也 馬和尚弟子] 禪譜益州金 鎮州金者[禪譜云 黃梅子金生名也]是 東歸則前所叙北山義[道義] 南岳陟[洪陟]而降太安徹[惠徹]國師慧日育 智力聞 雙溪照[惠昭] 新興彥[沖彥] 涌巖體 珍丘休[覺休] 雙峯雲[惠雲]孤山日[品日] 兩朝[景文憲康] 國師聖住染[高僧傳云 無染 新羅國傳法師 西堂藏法嗣 道義洪陟惠徹 章敬暉法嗣玄昱覺休 鹽官安法嗣 品日 大梅常法嗣 迦智沖彥 白兆圓法嗣 惠雲 兩朝國師法嗣 景文憲康二王育門體三人 各上字及嗣法 皆未詳 昭之嗣法 亦未詳] 菩提宗 德之厚為父衆生 道之尊為師王者 古所謂逃名名我隨 避聲聲我追者[綱目云 法真 名可得聞 身難得見 逃名而名我隨 避聲而聲我隨也] 故得皆化被恒沙[衆生也 世界也] 蹟傳豐石[浮屠與碑] 有令兄弟 宜爾子孫 俾定林標秀於雞林 慧水安流於鯨水[爾雅云 東方有比目魚 其名鯨 音帖 即東海也]矣 別有 [別有云云 不往中國 在此得道之意]不戶不牖而見大道[不戶云云 老子云 不出戶知天下 不窺牖見天道 其出彌遠 其知彌少 但穿明則為戶 更以木交飾則為牖] 不山不海而得上寶[漢書云 邴原欲遠遊學 請安丘孫崧 崧辭曰 君鄉里鄭君玄 學覽古今 博聞強識 誠學者之師模也 君乃捨之 躡屣千里 所學以鄭為東家丘耶 原曰 人各有志 所向不同 有登山而採玉者 有入海而探珠者 豈可以登山者不如海之海入海者不如山之高哉 君謂僕以鄭為東家丘 則君以僕為西家之愚夫耶 崧謝 愚夫者 家語云 孔子西家有愚夫 不能識孔子為聖人 乃曰 彼東家丘 吾知之矣] 恬然息意 澹乎忘味[莊子云 魚相忘於江湖 人相忘於道術 以至於廢枕忘饋] 彼岸也不行而至 此土也不嚴而治 七賢[見道以前凡夫之位 小乘以五停心觀 別相念住 總相念住之三賢位及煖 頂 忍世 第一法之四善根為七賢 大乘以初發心人 有相行人無相行人 方便行人 習種性人 性種性人 道種性人為七賢] 孰取譬 十住[發心 治地 修行 生貴 具足 正心 不退 童真 法王子 灌頂]難定位[不歷階位而證大道]者 賢溪山智證大師其人也 始大成也[大成者 取孟子 夫子集大成之語也 成 變也 金石絲竹匏土革木八音 各為一變 是小成 合八音 以金為始 修理 以玉為終 條理 則是大成也] 發蒙于梵體大德 稟具于瓊儀律師 終上達也[下學而上達大法也] 探玄于慧隱嚴君[智證大師法統上之父也] 授默于揚孚令子 [法統上智證之子也 嚴令 尊美之稱] 法胤[胤音允 說文 子孫相承續也] 唐四祖 為五世父[道信之傍出者] 東漸[進也 次也]于海 遡游[遡與泝同爾雅云 逆流而上曰泝 順流而下曰泝流也]數之 雙峯[四祖諡號]子法朗 孫慎行 曾孫遵範 玄孫慧隱 來孫大師也 朗大師 從大鑿[代宗諡四祖曰大鑿]之大證 按杜中書正倫纂銘 [纂與撰同 集述也 即四祖銘也] 叙云 遠方奇士 異域高人 無憚嶮途 來至珍所 則掬 [與寶同 掬 曲禮云 受珠玉者 以掬 註云 兩手承之 恐墮破也] 歸止 非師[法朗]而誰 第知者不言[道

經云 知者不言 言者不知也] 復藏于密 能擇[古探字]秘藏 唯行[慎行]大師 然時不利兮 道未亨 [通也]也 乃浮于海[論語云 子曰 道不行 乘桴浮于海 從我者由] 聞于天肅宗皇帝 寵賂天什[什篇也 天什 即天子所製詩文也]曰 龍兒渡海不憑筏 鳳子沖虛無認月[龍兒鳳子 指大師 不憑筏無認月 不執方便云] 師以山鳥海龍二句爲對[山不擇鳥 鳥能擇山 海不擇龍 龍能擇海之語也]

有深旨哉 東還三傳至大師 畢萬之後 斯驗矣[左傳 晉卜偃曰畢萬之後必大 指魏文侯斯 能興宗業 言今大師能復振祖風]其世緣則王都[慶州]人金姓子 號道憲 字智洗 父贊壞 母伊氏 長慶 [

唐穆宗年號]甲辰歲 現乎世 中和[僖宗年號]壬寅曆 歸乎寂 恣坐 [夏安居最終之日 謂之姿坐]也 四十三夏 歸全也[曾子臨死 謂門人妻子曰 啓予手足見之 我身托於父母 所生之身 不壞而歸全云云 孝經亦同此說也] 五十九年 其具體則身仞[七尺]餘 面尺所[所餘也]儀狀魁岸[江充爲人魁岸

岸者有廉積如崖岸不形] 語言雄亮[亮 明朗也] 眞所謂威而不猛者[論語贊孔子語] 始孕洎滅 奇蹤秘說 神出鬼沒 筆不可紀 今撮其感應聳人耳者六異 操履[志操行履]警人心者六是 而分表之初母夢一巨人告曰 僕昔勝見[毘波尸也]佛 季世爲桑門[僧也]以謫恚故 久墮龍報 報既既[既盡也]矣 當爲法孫 故侂 [侂與托同]妙緣 願弘慈化 因有娠 幾四百日灌佛[佛誕之日儀 即浴佛會也]之旦[四月八日] 誕焉 事驗麟亭[高僧傳云 漢安息國沙門安清 字世高 本世子 當嗣位 讓叔父

出家 聰敏好學 外國典籍無不綜達 既已遊方徧歷諸國 以漢桓帝建和四年 至洛陽 值靈帝末 關洛擾亂 因附舟 至廬山渡 昔同學達 湖廟神 靈甚 能分明 風途往來之舟 會艤舟 奉牲請福 神降語曰 舟有沙門 可上來 高至 神曰 吾昔與汝 俱出家學道 吾雖好施 性多嗔 故今爲廟神 周回千里 皆吾所管轄 報形極醜 旦夕且死 必入地獄 吾有絹疋并雜寶物 可爲代吾造塔建寺 使我生善處 高曰 何不出形 神曰 形甚醜異 衆人必懼 高曰但出形 神從帳中出頭 乃大蟒 至高膝邊 高出梵音 贊唄祝願 蟒悲淚如雨 高即取絹疋寶物 辭別神 神即過命 暮有一少年 上船跪高前受其祝願

神報曰 得離惡形 生善處已 後人於西山澤中 見一死蟒 頭尾數里 高至預章 建大安寺也] 夢符象室[世尊生也 見相者 相者曰 自古夢見象 則生大聖人也 今兒無乃夢見象而生耶 慈母許之曰

如是云云 佛母摩耶 夢見大聖乘六牙白象 從天而降 神入胎故 見西域記 見釋氏源流] 使佩韋者益誠[西門豹性急 佩韋自警] 擁毳者[被袈裟而修行之僧也]精修 降生之異一也 生數夕不嚙乳 [音耨 上聲 又音邁 以手壓取乳而餉也 楚人以 爲乳]之則號欲嗷 [嗷音愛 嘔逆也] [音忽 所吹起也]有道人 過門誨曰 欲兒無聲 忍絕焮腥[焮 借作葷 辛臭之菜 腥 魚肉也 言乳母不食也] 母從之 竟無恙 使乳育者加慎 肉食者懷慚 宿習之異二也 九歲喪父 殆毀滅[毀形滅性也] 有追福僧[主典父濟之僧也] 憐之諭曰 幻軀易滅 壯志 [出家度生之志]難成 昔佛報恩有大方便 子勉之 因感悟輟哭 白所生[母也] 請歸道 母慈其幼 復念保家無主 確不許 耳踰城故事 [釋氏源流云

悉達太子踰城出家 成佛度生也]則亡去 就學浮石山 忽一日心警坐屢遷 俄聞倚閭[母也]成疾 遽歸省而病隨愈 時人方之阮孝緒梁武帝時人 家世仕宦 年十四五 通經大旨 十六丁外艱 終喪入鍾山聽經久之 在席驚心而歸家 母果罹疾而合用蓼 躬入終南山 有鹿引指蓼處 採用而母疾愈 居無何[言不多時] 染沈疴[沈疴 痼疾也 即師染母之疾故也] 謁醫無效 枚卜之[杵 箇箇請卜而問之] 僉曰 宜宜名隸大神[佛也] 母追惟曩夢 試覆以方袍[袈裟]而泣 誓言斯疾若起 乞佛爲子 信宿[左傳 凡師行 一宿爲舍 再宿爲信 過信爲次也] 果大瘳[瘳音秋 愈也] 仰悟慈親 終成素志 使舐犢者割愛[漢書太尉楊彪之子修 爲曹操所殺 操見彪問曰 公何瘦之甚 對曰 愧無日磾先見之明

猶懷老牛舐犢之愛 操爲之改容 注云 金日磾 漢昭帝之臣其子與宮人戲 日磾見之即殺其子也] 飲蛇者釋疑[晉書 樂廣遷河南尹 有親客 久不至 廣問故 答曰 前蒙賜酒 見盃中有蛇影而疾 是以久失問候 時廳掛有角紫弓 廣意弓影如蛇 復置前處 謂客有所見否 客曰如初 乃告所以 客病遂豁然而愈 註云 客杜滿] 孝感之異三也 至十七受具 始就壇[羯摩戒壇]覺袖中光熠熠然 探之得一珠 豈有心而求[黃帝遊於赤水北 登于崑崙丘 遺其玄珠 使智者索之 不得 使離婁索之 不得 乃使罔象 索而得之 注云 明眼者 有心故不得 盲眼者 無心故得之也] 乃無脛而至[會稽典錄 孔融云 珠

玉無脛而自至者 人好之也 善言不行而自至者 亦類是矣 眞六度經所喻矣 [以戒喻珠] 使飢噉者 [楞嚴經云 說食飢夫 蒸沙迷客 比教學人] 自飽 醉偃者 [法華經云 醉臥不識衣內繫珠 比禪學人] 能醒 勵心之異四也 坐雨 [卽夏安居 西域之法 一年分爲帆悶寒三際 自二月十六日至 六月十五日 爲熱際 六月十六日 至十月十五日 爲雨際 十月十六日 至二月十五日 爲寒際] 竟 將他適 夜夢 遍吉 [普賢也] 菩薩撫頂提耳曰 苦行難行 行之必成 形開 [莊子云 其寐也魂交 其寤也形開] 痒然 [心驚聳縮貌] 默篆肌骨 [言銘佩也] 自是不復服繒絮焉 修 [與線同] 之須 [須補破之具 取必麻楮 不穿達履 [詩云 先生如達 達 小羊也 三韻聲彙云 達與 同 達履 羊皮履] 矧羽鬣 [扇也] 毛茵 [毛皮褥也] 餘用乎 使縑贖 [縑 麻絮也 贖 麻布也 言著麻絮衣也] 者開眼 衣蟲者 [錦繡衣者] 厚顏 [惡怩也] 律身之異五也 自綺年 [妙年也] 飽老成之德 加瑩戒珠 可畏者 [論語云 後生可畏也] 競相從求益 大師拒之曰 人之大患 好爲人師 [孟子曰 人之大患 在好爲人師 王勉註曰 學問有餘 人資於己 不得已而應之可也 若好爲人師 則自足而不復有進矣 此人之大患也] 強欲惠不惠 [言無惠人之才 而強欲惠之則大不可也] 其如模不模邪 [模 法也 言其如爲師而不可爲師 何耶之意也 淮南王草木譜 吳證問曰 何以取木爲義 曰 昔 模木 生周公塚上 其葉春青夏赤秋白冬黑 以色得其正也 楷木 生孔子塚上 其幹枝疎而不屈 以質得其直也 正與直可爲法 則況在周孔之塚乎] 況浮芥海鄉 [所得者小 如浮舟於大海] 自濟未暇 無影逐 [楞嚴 演若達多迷頭逐影之事] 爲必笑之態 後山行 有樵叟礙前路曰 先覺覺後覺 [孟子曰 伊尹曰 天之生斯民也 使先知覺後知 使先覺覺後覺也 予天民之先覺者也 予將以斯道 覺斯民也 非予覺之而誰云云] 何須恪空殼 [幻身] 就之則無見焉 爰媿且悟 不阻來求 森竹葦 [衆多貌] 于雞籃山水石寺 [卽連山開泰寺 或云 尙州龍興寺 未詳] 俄卜築他所曰 不繫 [孔子曰 吾豈繫匏瓜哉 言周遊天下也] 爲懷 能遷是貴 使佔畢者 [佔音占 初學記云 今之教學者 呻其佔畢 註 佔 視也 畢 簡也 但諷詠所覘視之簡牘 不能通其蘊奧也 呻 諷吟之聲也] 三省 [論語曰 曾子曰 吾日三省吾身 爲人謀而不忠乎 與朋友交而不信乎 傳不習乎 註云 傳謂受之於師 習謂熟之於己] 營巢者 [禮記云 昔者 先王未有宮室 冬則居瑩室 夏則居橧巢云云] 九思 [論語云 君子有九思 疑思問 視思明 聽思聰 色思溫 貌思恭 言思忠 事思敬 忿思難 見得思義] 垂訓之異六也 贈太師景文大王 心融鼎教 [三教也] 面渴輪工 [大轉法輪之工 指大師] 遙深爾思 覬俾 [覬 覬覦也 俾 俾倪也 言欲得希幸之貌] 我卽 乃寓書曰 伊尹大通 [孟子曰 伊尹曰 何事非君 何使非民 治亦進 亂亦進] 宋纖小見 [晉書 宋纖有遠操 不與世俗交遊 太守馬岌造焉 高臺重閣拒不可見 岌嘆曰 名可望而身不可見 德可仰而形不可覩 然後 知先生人中之龍也 乃銘詩於石壁曰 丹岸千尺 青壁萬尋 奇林鬱鬱 蔚若鄧林 其人如玉 維國之珍 室邇人遠 實勞我心] 以儒辟釋 自邇陟遠 旬邑 [旬音田 王居五百里內爲旬服 卽五服之一 見禹貢] 巖居 頗有佳所 木可擇矣 [仲尼曰 鳥能擇木 木豈擇鳥耶] 無惜鳳儀 [尙書 蕭韶九成 鳳凰來儀 註來舞而有容儀也] 妙選近侍中可人 [桓溫過王敦墓曰 可人可人 言稱可之人也] 鶴陵 [先王陵號元聖卜陵白鶴墟 故似仍號焉] 昆孫 立言爲使 旣傳教已 因攝齊 [攝 攝也 齊 衣下縫也 禮 將升堂 兩手攝衣 使去地尺 恐躡之而傾跌失容也 景景褰衣 弟子之禮也] 焉 答曰 修身化人 捨靜奚趣 鳥能之命 [應擇木語 善爲我辭 幸許安塗中 莊子釣於濮水 楚王使大夫二人往先焉曰 願以竟內累矣 莊子持竿不顧曰 吾聞楚有神龜死已三千歲矣 王巾筭而藏之廟堂之上 此龜者 寧其死爲留骨而貴乎 寧其生而曳尾於塗中乎 二大夫曰 寧生而曳尾塗中 莊子曰 往矣 吾將曳尾於塗中] 無令在汶上 [論語云 季氏使閔子騫爲費宰 閔子騫曰善爲我辭焉 如有復我者 則吾必在汶上矣 言遠去也] 上聞之 益珍重自是譽四飛於無翼 [戰國策云 衆口所移 無翼而飛] 衆一變於不言 咸通 [唐懿宗年號] 五年冬 端儀 [女之官名也] 長翁主 [景文王之姊] 未亡人 [禮 夫死 妻隨死 乃夫人之行 未能隨死 故稱未亡人也 左傳云 楚令尹子元者 楚文王弟之子 欲蠱惑文王 夫人息嬀以 事爲館於其宮側 振萬 振動萬舞] 焉 夫人聞之泣曰 先君以是舞也 習戎備也 今令尹不尋諸仇讎 而於未亡人之側 不亦異乎 爲稱 當來佛是歸敬謂下生 [翁主自云下生也]

厚資上供 以邑司[翁主所封之地] 所領賢溪山安樂寺 富有泉石之美 請為猿鶴主人[山林隱居之士與猿鶴為友之意] 大師乃告其徒曰 山號賢溪 地殊愚谷[劉子云 齊桓公 逐鹿入谷中

問一老 此何谷 對曰愚公之谷 以臣名得之] 寺名安樂 僧蓋住持 從之徙焉 居則化矣 使樂山者[論語曰 仁者樂山 智者樂水]益靜 擇地者慎思 行藏之是一焉 他日告門人曰故韓祭[官名]金公嶷勳[嶷音億]度我為僧 報公以佛 乃鑄丈六玄金像 傳[塗也]之以銑[爾雅云 金之絕澤 謂之銑也] 爰用鎮仁字[寺也]導冥路 使行恩者日篤 重義者風從 知報[知恩而報也]之是二焉 至八年丁亥 檀越翁主 使茹金[人名]等 持伽藍南畝[伽藍 此云衆園 即賢溪伽藍也 南畝者 田地 通云南畝也] 暨臧獲[奴婢也 男曰臧 女曰獲也] 本籍[文簿]授之 為壞袍[袈裟]傳舍[奴隸車馬之所 或云 補縫破衣之舍]俾永永不易 大師因念言 王女資法喜 尚如是矣 佛孫味禪悅[華嚴經云 若飯食時 當願衆生禪悅為食 法喜充滿] 豈徒然乎 我家匪貧 親黨皆歿 與落路行人之手 寧充門弟子之腸 遂於乾符[僖宗年號]六年 捨莊[莊田廬也]十二區 田五百結[百十為一結 ○ 方俗 以周五弓為一結 四肘為弓 一尺八寸為肘 王荊公詩曰 臥占寬閒五百弓]隸寺焉 飯孰譏囊[孰譏食蟲之飯囊

著實工夫 則可免此譏 漢書 彌衡曰時輩唯苟或則可與同言 餘人皆酒俗飯囊 粥能銘鼎[正考父鼎銘云 饘於是 粥於是 以糊予口] 民天[史記酈生傳云 王者以民為天而民以食為天]是賴 佛土[即西方淨土也]可期 雖曰我田 且居王土 始資疑於王孫韓祭繼宗執事侍郎金八元金成熙 及正法大統釋玄亮 聲九臯 應千里[聲九臯者 詩云 鶴鳴九臯 聲聞于天 應千里者 周易云 鳴鶴在陰

其子和之 我有好爵 吾與爾糜之 君子居其室出其言 善則千里之外應之] 贈太傅獻康大王[即景文王之子] [佳之也] 而允[肯也]之 其年九月 教南川郡統僧訓弼[亦金姓也] 標別墅[墅與莊同]劃正場[以禁標明示寺領] 斯蓋外佐君臣益地 內資父母生天 使續命者[即百姓也 南史 劉善明傳 青川飢荒 善明開倉以救 鄉里多獲全濟 百姓呼其家為續命田]興仁 賞歌者[仇池筆硯云 唐裴晉公 召一妓 作半日遊 賞絹五疋 書生有詩云 一曲清歌一疋絹 佳人猶自意嫌輕 不知貧女寒窓下 幾度拋梭織得成]悛過 檀捨之是三焉 有居乾慧地[即初乾慧地 是乾有其慧]者曰沈忠 聞大師刀餘[莊子云 其於游刃 恢恢然猶有餘地]定慧 鑑透乾坤[師之神鑑 通透於天文地理也]志確曇蘭[東晉時僧 蓮社高賢傳 慧持傳云 慧持法師 以東問經籍付道泓 西問法典付曇蘭 以泓行業清敏 蘭神悟天發 並能係軌師蹤故也]術精安廩[南朝陳時僧 續高僧傳 安廩傳云 安廩 性好老莊 早達經史 又善太一之能 并解孫吳之術]禮足已[見禮畢] 白言 弟子有剩地 在曦陽山腹 鳳巖龍谷 境駭橫目[何尚之曰 橫目之俗 不可與言 莊子有云 橫目之民] 幸構禪宮 徐答曰 吾未能分身 惡用是 忠請膠固 加以山靈 有甲騎為前騶之異[騶音鄒 說文 廐御也 月令季春 天子教于田獵 命僕及七騶咸駕 註 天子馬有六種名 騶一并總主 為七騶] 乃錫[錫杖]挺樵蹊而歷相[說文 歷 推察也 相省視也]焉 且見山屏四迥 則鶯[鶯鶯 禽經曰 紫鳳也]翅掀[掀音軒 以手高飛也 又高聳貌]雲 水帶百圍 則 [音糾 無角龍]腰偃石 既愕且喑[愕音岳 驚遽貌 喑音借 鳴也 又歎也]曰 獲是地也 庸[豈也]非天乎 不為青衲[僧也]之居 其作黃巾[賊也]之窟 遂率先於衆 防後為基 [先於人而作基 以防後慮] 起瓦簷四柱以壓之 鑄鐵像二軀以衛之 至中和 [唐僖宗年號]辛丑年 教遣前安輪寺僧統俊恭 肅正史裴聿文 標定疆域 芴賜[芴與苻同 陳根未芴 新草又生 芴 言不改鳳巖山 仍為鳳巖寺也]榜為鳳巖焉 及大師往化數年 有山眈[眈與氓同]為野寇者 始敢拒輪[莊子曰 螳螂 怒其臂以當車轍 比初不從師化也] 終能食甚[詩云 翩彼飛鴉 集于泮林 食我桑甚 懷我好音 憬彼淮夷 來獻其琛 註云 淮夷被魯侯之化 變惡來獻 如飛鴉之食甚 變音比 初不從化者 從化為善也]得非深剝[剝音拘 酌也]定水 預沃魔山之巨力歟 使折臂者[晉書

羊祜 相墓者 言祜祖墓有帝王氣 祜果墮馬折臂而至三公無子 今言折臂 指上捨地也]標義 掘尾者 [伯宅編云 祿山 逆謀日熾 每反入長安 恐有如渠者之 ○ 唐含元殿前途 詰曲宛轉 如龍尾 此則指野寇 又掘發也 尾終也 吳語 狐狸之 狐掘之 是以無成功 言小賊以埋掘無成功自終也]制狂 開發之是四焉 太傅大王 以華風掃弊[掃夷狄之弊]慧海濡枯 素欽靈育[北魏高僧玄高之俗名 出

梁高僧傳]之名 渴聽法深之論[通載云 東晉時 竺潛 字法深 興寧二年甲子 詔 講般若經於禁中 乃辭還剡山 支遁寓書 求買沃州小嶺歸隱 潛答曰 欲來當綵 未聞巢由買山而隱也 寧康二年卒 哀帝賜錢十萬建塔 言今王聽法於禪師 如哀帝聽法於法深也] 乃注心雞足[指賢溪山] 內修大惠 幸許一來 大師感動琅函[御書之稱]言及 勝因通世 同塵率土[老子云 和其光同其塵 言與塵俗 同一混處之謂也 詩云 溥天之下 莫非王土 率土之濱 莫非王臣 此詩 言率土莫非王臣 則奚必我 獨賢勞也 此文 言同塵率土 則師亦隨俗不辭賢勞也] 懷玉出山 [老子云 聖人被褐懷玉 ○ 案 懷玉出山 如卞和之懷玉 出自荆山 欲獻王門也] 轡織迎途[詩云 六轡如織 言處處車馬 當途爭 迎也] 至 足于禪院寺 錫安信宿 引問心于月池宮 時屬織蘿不風 溫樹[綱目云 漢長樂宮中有溫 室殿 三公入朝 時議政之所也 其宮庭中有樹] 方夜 適觀金波[杜詩云 金波耿玉繩 金波 月也 玉繩 星也]之影 端臨玉沼之心[心 中也] 大師俯而覬 仰而告曰 是即是[上是水月 下是心也]

餘無所言 上洗[洗與洒同]然忻契曰 金仙[唐武宗 改佛號為大覺金仙]花目[佛以青蓮花目 顧視 迦葉 迦葉破顏微笑 故見拈頰拈花] 所傳風流 固協於此 遂拜為忘言師 及出 俾蓋臣[詩 大雅 王之蓋臣 註 忠愛之篤 進進無已]警旨 幸宜小停 答曰 謂牛戴牛 所直無幾[梁武帝 遣使召陶 弘景 弘景畫畫二牛以進 一則戴金籠厭粟豆 一 則無羈獨臥於芳草中 帝曰 此人如此 其可致耶 言若留京 則如戴牛價少]以鳥養鳥[莊子云 以己養鳥 鳥不飲食 三日而死 詳見無染註]為惠不賞 [不賞 猶言不少] 請從此辭 枉之則折 上聞之喟然 以韻語歎曰 挽既不留 空門鄧侯[晉書 鄧收 字伯道 為吳郡太守 除水以外束薪斗米 不食於民 稱疾去職 民至有臥輪 人歌曰 鄧侯挽不留 謝公推不去] 師是支鶴[西晉哀帝時 支遁 字道林 人有遺鶴者 乃放之曰 沖天凌雲之物 豈耳目 之所玩哉 君子多稱其達] 吾非趙鷗[通載云 後趙石勒弟 名虎 字季龍 襲兄之位 徙都鄴城 尤 傾心事佛圖澄 朝會引見 侍御史舉口升殿 太子諸公扶翼而前 主者唱曰大和尚 坐者皆起

勅司空李農 朝夕問候 支遁聞之曰 澄公 其以季龍為鷗鳥乎○

鷗鳥者 列子傳云 昔有人無心日坐江邊 鷗鳥聚遊膝下矣 其父見之 語之曰 汝之膝下鷗鳥取來 從 其父教 有心而待鳥 鳥則不來 言澄公以季龍為鷗而同遊 大師則不與王同遊而入山故也] 乃命十 戒弟子 宣教省副使馮恕行 援送歸山 使待口者離株[此大師出山 如離株見無染註] 羨魚者學網 [臨淵羨魚 不如退而結網 比辭京入山 居靜修心也] 出處之是五焉 在世行 無遠近夷險 未嘗代 勞以蹄角[馬牛]及還山 冰雪梗跋涉[梗 塞也 草行曰跋 水行曰涉 又行不由蹊隧曰跋涉 今則後 也] 乃以枘欄[音呂 說文云 梗木也 出安南 性堅 紫紅色 可作床几輪輿等也]步口[今之步轎也] 寵行 謝使者曰 是豈非井大春所云車耶[後漢 井丹 字大春 常曰 黃帝作車 少昊加牛 大禹加馬 已不可 況代人乎] 顧英君[顧 顧視也 英君 俗人中英俊者]所不須 矧形毀者乎 然命既至矣 受之 為濟苦具 及移疾于安樂練若[練若阿練若之略稱 又云蘭若 乃比丘之修行處 即寺院也] 扶錫不 能起 始乘之 使病[憂也]病者了空 賢賢者離執[病病至離執 病不至處 師因乘輿能至 病豈實乎 是乃勝病濟苦 故云了空 賢賢者 亦得捨却不乘為是之偏執也] 用捨之是六焉 至冬抄[末也 十 二月也] 既望之二日[十八日] 跌坐晤言[晤音吳 鄭箋 對也 蘭亭記 晤言 一室謂相對言也]之際 泊然[恬靜無為也]無常 嗚呼 星廻上天 月落大海 終風[詩註云 終日之風也]吼谷 則聲咽虎溪[慧 遠入滅 虎溪若咽]積雪摧松 則色侔鵠樹[佛入滅 娑羅樹色變 白如鵠 故謂鵠樹也] 物感斯極 人悲 可量 信[再宿]而假殯[猶言草殯]于賢溪 期而遷窆于曦野 太傅王馳鑿問疾 降駟營齊 不暇無偏無 頗[洪範註云 偏 不中也 頗 不平也 偏頗好惡 己私之生於心也 是不遵王之義也 言不外假無偏頗 實出於內心之至也] 能諧有始有卒[卒 終也 言待師死生一如] 特教菩薩戒弟子建功鄉[地名]令 [官名]金立言 慰勉諸孤[弟子] 賜諡智證禪師 塔號寂照 仍許勒石 俾錄狀聞 門人性蠲敏休楊孚 繼徽等 咸得鳳毛者[晉謝鳳 有文章 而其子超宗 又有文章 謂之得鳳毛] 斂陳迹以獻 至乙巳歲 [師 僖宗中和二年壬寅十二月十八日卒 公 僖宗光啓元年乙巳來 師殞後四年來也] 有國民媒儒道 嫁帝鄉[孤雲 年十二入唐 十八登科]而名掛輪中[月輪桂中 比登科也] 職攀柱下者[侍御史

着鐵冠立柱下]曰崔致遠 捧漢后[天子]龍緘[詔書] 齋淮王鵠幣[桂苑筆耕云 行次山陽 太尉<高駢>寄賜衣緞 令充歸覲 續壽信物 謹以詩謝] 雖慙鳳舉 頗類鶴歸[先生自謙言 己之榮貴 雖不足為鳳舉之比 其去家久而今始歸 則頗與丁氏鶴相似] 上命信臣清信者陶竹陽 授門人狀 賜手教曰 縷[音樓 絲麻之縷 可經緯者 或云 藍縷弊衣也]褐[音曷 織毛為之 可御寒者 陸佃曰黃黑色]東師 始悲西化[大師] 繡衣[御使 衣繡衣故也]西使 深喜東還[孤雲] 不朽[指碑文]之為 有緣而至 無恠外孫之作[漢列女傳云 孝女曹娥 會稽上虞人也其父盱 能絃聲 為巫祝 桓帝鴻嘉二年五月五日 泝松江濤 迎婆婆神溺死不得屍骸 娥年十四 沿流呼泣 晝夜不絕聲 旬有七日 遂投江而死 三日後 與父屍俱出之 吏為之立碑云 孝順第一曹家女者 邯鄲淳作其碑文 蔡邕題其陰曰 黃絹幼婦外孫 白楊修見即悟 曹操行三十里知之 歎曰 有知無知 較三十里] 將酬大士[指智證禪師 法華文句記 大論稱菩薩為大士 亦曰開士 又釋門正統 宋神宗宣和元年 詔 改釋氏為金仙 菩薩為大士 僧為德士]之慈 臣也雖東箭非材 而南冠多幸[晉 顧象 吳郡人 虞澤 會稽人 並起討蘇峻 時後人贊曰 顧實南冠 虞唯東箭也 註 南冠者文人 東箭者武士] 方思運斧 [昔 莊子 因送葬 過惠子之墓 顧謂從者曰 郢人堊漫其鼻端 若蠅翼 使匠石斲之 匠石運斤成風 聽而斲之 盡其堊而鼻不傷 郢人立不失容 宋元君聞之 召匠石曰 試為寡人為之 匠石曰 臣嘗能為之 然臣之質死矣 吾無以為對也 比作文之妙] 遽值號弓[言王昇遐也 黃帝鑄鼎於荆山之下 鼎成龍至 帝及羣臣宮女七十二人 乘龍而上天 百姓攀龍鬚 鬚絕 帝墮弓 羣臣百姓 抱弓而號 因名弓為烏號] 況復國重佛書 家藏僧史 法碣相望 禪碑最多[說文云 方者為碑 圓者為碣]遍覽色絲[謂妙辭也] 試搜殘錦 則見無去無來之說 競把斗量 不生不滅之譚 動論車載 曾無魯史新意[春秋 乃孔子筆削魯史 則是史外典心之要典 而今於法碣中 不見其意] 或用周公舊章[孔子修禮記 盡用周公之所撰周禮 言攝取前代章句也] 是知石不能言[陳腐之文 刻於石面 為石所慚]益驗道之云遠 唯懊[音奧 惱也 又悔恨也]師化去早[師壬寅化] 臣歸來遲[公乙巳來] 靈龕字誰告前因[法華靈驗傳 秦郡東寺 有沙彌誦法華經 甚通利 到藥草喻品靈龕二字 隨教隨忘 師苦責之 師夢一僧曰 此沙彌前生 在寺側東村受身 誦法華藥草喻品 白魚食靈龕二字 其經現在其家 往驗之 明旦師就彼家問之 果有法華經一部 取看果缺二字 兒亡已十七年 果與此沙彌年時胎月相應也] 逍遙義不聞真訣[通載云 東晉安帝隆安四年 後秦姚興弘始三年庚子三月庭樹生連理 逍遙園有葱變莖 以表智人應入中國 十二月二十日迎羅什法師 居逍遙園 興以國師禮待之 甚見優寵 資學三千 拔萃有八曰道生 僧肇 道融 僧叡 道恒 僧影 惠觀 惠嚴等 可謂一時之盛 千載光華 興卑萬乘之心 尊三寶之教 莫不精究 洞其深旨 比什公逍遙園證師月池宮也] 每憂傷手[相傳云 大匠若無則 小匠恐傷手 不能執斧 言以我腐儒 不敢下手於大師之碑] 莫悟伸拳[傳燈錄云 二十五祖奢耶多 自生至長 恆拳左手 見獅子尊者而申之 有一粒珠 衆皆驚異]

獅子叙其宿因 而勸出家 今言無緣於佛 莫悟其理] 歎時則露往霜來  
遽澗愁鬢 談道則天高地厚[莊子云 至人德 若天高地厚也] 厘腐頑毫[左思作三都賦  
十稔始成 擲地金聲 今之述作不佳 僅塞腐毫  
之責 故云僅腐] 將諧汗漫之遊[淮南子云 盧敖遊北海 見一道士 問曰  
夫子何與我爲友 士曰 吾將遊於汗漫之上 乃聳身直入雲中 敖仰視曰  
吾比夫子 若壤蟲之於黃鵠也 此比大師於道士 而自比於敖也]  
始述崆峒之美[崆峒山 有廣成子宮 景美不可盡述也 此言述大師之景行]  
有門人英爽 來趣受辛[ 曰 受辛 二字用意有味] 金口是資[資  
依也 后稷廟前有金人三緘其口 蓋慎言之意 言自家資無言而不答也]  
石心彌固[皮日休云 宋廣平爲相 疑其鐵石心腸 不解此軟媚詞  
註云 宋璟封廣平公 諡文貞 比不許之尤固] 忍踰刮骨[五代裴從簡  
中流矢 命醫刮骨而言笑忍痛 三國志 關雲長事亦同 言忍不作序之甚]  
求甚刻身[求之益甚] 影伴八冬[案 孤雲獨坐燈下 伴自家之影於八冬而作文也  
八冬 八年之冬也] 言資三復 [言謂行狀也  
論語曰 白圭之玷 尚可磨也 斯言之玷 不可爲也 南容一日三復讀之孔子以兄之子妻之]  
抑六異六是之屬辭無媿 賈[賈 賈也 見初月註]勇有餘者  
實乃大師內蕩六魔[與六塵同 色 聲 香 味 觸 法] 外除六蔽[慳貪  
破戒 瞋恚 懈怠 散亂 愚癡] 行苞六度[布施 持戒 忍辱精進  
禪定 智慧] 坐證六通[神足通 天眼通 天耳通 他心通 宿命通漏盡通]故也[其苦心勞身  
既至若是 則竟不可不爲屬辭爾] 事譬採花[然記事也  
如蜂之採花 但取其香不擇其味] 文難削藁 [後魏李季白上書切諫  
卽消其藁 而今則登石 難於消也] 遂同榛楛勿翦 [陸機賦云  
彼榛楛之勿剪兮 亦蒙榮於集翠 註云 庸文雜於麗句 如榛楛之同翠於松柏之下  
善惡雖殊 同歸于美 喻自家之庸文 蒙榮於大師之美行]  
有慙糠粃在前[習鑿齒 與道安法師周遊 安先去 齒曰 簸之揚之糠粃在前  
安曰 淘之汰之沙石在後] 跡追蘭殿之遊[梁武帝 與達摩共遊蘭殿  
卽王之正殿也] 誰不仰月池佳對[月池宮說心 爲忘言師也]  
偈效柏梁之作[漢武帝作柏梁臺 命盧多遜作七字詩 七言始於此五言始於蘇武河陽詩]  
庶幾騰日域[東方]高譚  
其詞曰 麟聖依仁乃據德[孔子未生時 有麒麟吐玉書於闕里人家曰  
水精之子 繼衰周而素王天下 孔母徵在 以繡紱而泣 絕春秋之筆]  
鹿仙知白能守黑[敦煌實錄云 老子父 姓韓 名虔 夜夢日精敷野而仙人駕鹿入室  
與上洋朱氏特猪婢子 合孕而生故曰鹿仙] 二教徒稱天下式  
螺髻真人難确力[佛頭髮如螺形 故謂佛螺髻真人也 确力 競勝負也]  
十萬里外鏡西域[成光子曰 自長安至中印度境五萬八千里 西至那拘遮國五萬八千里]

一千年後燭東國[見上文洛宅註] 雞林地 在鼇山側[鼇山者  
 列子 湯問云 渤海之東 有大壑焉 其中有五山 而五山之根  
 無所連著 常隨波上下往還 帝恐流于西極 使巨鯨十五舉首戴之  
 五山始峙] 仙儒自古多奇特 可憐羲仲不曠職[羲和 堯時主四時之官  
 賓日餞日也] 更迎佛日辨空色 教門從此分階 [三輔黃圖云  
 未央殿前左 右平 註 天子殿高九尺 階爲九級 中分左右 有齒  
 人行之 右則平之 平者 以文磚相亞次 令輦車得上也 音戚 階璣也]  
 言路因之理溝洫[洫音革 田間水道 卽深廣 八尺曰洫 深廣四尺曰溝]  
 身依□窟心難息[□窟 喻隱者之居處] 足躡羊歧眼還惑[羊腸山  
 有九曲險路 上四句言教路多端] 法海安流眞叵測 心傳眼訣苞眞極  
 得之得類罔象得[春池失珠 覓之不後 罔象無心而得之 出莊子]  
 默之默異寒蟬默[蟬之不鳴者雄也 不鳴是默 大師則具說 故異於常默]  
 北山義與南岳陟 垂鵠翅與展鵬翼[鵠則一舉飛千里 鵬則一舉九萬里  
 比遊中原] 海外時來道難抑 遠派禪河無雍塞 蓬托麻中能自直[寶鑑云  
 蓬生麻中不扶而自直] 珠探衣內休傍貸[衣內 卽法華 親友係珠衣內  
 其人醉不知 後更逢親友 始知其珠不從外得 貸音惕 借也]  
 湛若賢溪善知識 十二因緣非虛飾[六是六異也] 何用攀緝兼拊杙[攀緝  
 渡流沙之事 拊杙 越葱嶺之事 言在此而得道] 何用砥筆及含墨[言不假文字而得道]  
 彼或遠學來匍匐[指上義與陟也] 我能靜坐降魔賊[指大師]  
 莫把意樹誤栽植 莫把情田枉稼穡 莫把恒沙論萬億  
 莫把孤雲定南北[此四句 戒門人之辭 初二句 戒空守默之痴禪  
 虛栽意樹枉稼情田 次二句 戒參愚僧空論功德虛行南北者] 德馨四遠聞蒼荀[書云  
 黍稷非馨 唯德是馨 蒼荀 桅子花也] 惠化一方安社稷[土穀之神  
 有德者 配食焉 共工氏之子句龍氏 食於社 厲山氏之子柱  
 食於稷 乃王者崇奉神明 以報天地之功用 是國家安危所在之所]  
 面奉天花飄縷 [天花 御札也 縷 者 師之行狀也 卽出入宮之清儀也]  
 心憑水月呈禪拭[拭音式 以巾拔垢也 卽呈禪門拭心之言也上句  
 入王城時事 此句 答王問心之事也] 寫嗣佳綿誰入棘 腐儒玄杖慙摘埴[盲者以杖探路之狀也  
 玄杖 筆也 言以儒記佛 如盲人之不知去路]  
 跡耀寶幢名可勒[寶幢 指塔也] 才輸錦頌文難織[輸 負也]  
 嚙腹欲飫禪悅食[嚙腹 鳴腹也 禪悅食 六度經云 以禪悅爲食 以智慧爲劍  
 此以碑文爲食也] 來向山中看篆刻

## 고희양산 봉암사 교시 지증대사 적조의 탐비명 및 서 <해설>

입조하정겸연봉황화등사조청대부 전수병부시랑원서서원학사사자금어대신최치원이 교지를 받들어 찬술함. 최병헌번역

서문에 말하기를 오상으로 방위를 나눔에 동방에 배치되는 것을 인이라하고 삼교에 명칭을 세움에 정역에 나타난 것을 불이라 한다. 인심이 곧 불이니 불목이 인이될 수 있는 것이 법칙이다.

옥이의 유순한 성원을 인도하여 가위의 자비스러운 교화에 통하게 하니 이는 진실로 돌을 물에 던지고 비가 모래를 모으는 것과 같이 쉬운 것이다. 하물며 동방제후의 나라로 우리와 같이 큰 것이 없으며 지령은 이미 호생을 근본으로 삼고 풍속은 또한 서로 사양하는 것을 먼저 하니 화려한 태평의 봄이 오은은한 상고의 교화이다.

더욱이 성품은 석중에 침례하니 편두는 금탑의 높은 지위에 앉아 있고 언어는 법음을 따르니 혀를 움직이면 곧 다라의 글자가 되었다. 이는 진실로 하늘이 불법을 들어 서쪽 나라를 돌아보고 해인이 동쪽 나라에 유포하니 마땅히 군자의 나라에 법왕의 도가 감영됨이 나날이 깊어지고 또 나날이 깊어졌다. 또한 노나라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유성을 기록하였고 한나라에서 금인의 목에 인륜이 채여 있음을 증거함으로 부터 상적은 곧 백천이 달을 머금은 듯하고 법음은 곧 만리가 바람을 부르는 듯 하여 혹은 그 아름다운 덕은 검상에 엮어지기도 하였고 혹은 그 아름다운 말은 완엄에 새겨지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낙택에 남상이 되고 진궁에 거울을 걸어놓은 사적은 밝기가 합벽을 걸어 놓은 것과 같으니 진실로 삼척의 혀와 오색의 빛이 아니면 어찌 능히 그 사이에 문자를 배치하여 후세에 언설을 전하게 할 수 있겠는가.

나아가서 나라로써 나라를 보고 고을로부터 고을에 이르게 된 것을 상고하면 불법의 유포가 유사와 총령을 지나서 중국에 들어오고 그 여파가 해동에 비로소 미쳐왔다.

옛날 동국이 정립한 때에 당하여 백제에는 소도의 의식이 있었으니 이는 한무제가 감천궁에서 금인에게 예배하는 것과 같았으며 그 후 서진의 감시가 맥국에 온 것은 가섭마등이 후한에 들어온 것과 같으며 고구려의 아도가 신라에 건너온 것은 강희가 남방의 오나라에 간 것과 같았으니 이때는 곧 양나라 보살제가 동태사에서 공으로 돌아온지 일년만이었나 우리 법흥황이 율령을 제정한지 팔년만이었다. 또한 이미 동해의 언덕에 여락의 뿌리를 심었고 해가 뜨는 나라에 증장의 보물을 빛내었으니 하늘은 선원에 합하였고 땅은 승인을 나타내었던 것이다. 이에 중귀가 몸을 버리고 상선이 머리를 깎았으며 비추는 서쪽으로 중국에 가서 배우고 나한은 동국에 나왔다. 이로 인하여 혼돈한 상태가 능히 개화되고 사바세계가 두루 교화하게 되었으니 산천의 좋은 경계를 가려서 토목의 기이한 공역을 다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연좌의 궁을 화려하게 꾸미고 수행하는 길을 밝혀 신심이 샘물처럼 솟아나고 혜력이 바람처럼 드날리니 과연 절구공이가 떠서 재앙을 제거하고 무기를 자루에 넣고 경사를 칭송하게 되었다.

옛날의 조그마한 세 나라가 이제 장하게도 한 집안이 되었다. 안찰은 그림처럼 별려져서 빈 땅이 없으며 경부는 천둥처럼 진동하여 제천에 멀지 않으니 점염의 여유가 있으며 유구의 싫증이 나지 않았다.

그 교가 일어남에 비바사가 먼저 이르르니 사군에 사체의 별륜을 달리고 마하연의 뒤에 오니 한 나라에 일승의 거울을 빛나게 하였다. 그리하여 중히 오룡이 구름같이 뛰게 되고 율호가 바람같이 오르게 되어 학해의 파도가 용솟음치고 계림의 가엽이 무성하게 되었다.

도는 밝이 없는 곳까지 모두 융합 하였고 정은 가운데가 있는 데까지 거의 지나쳤으니 생각  
컨데 고요한 물이 비단처럼 잔잔하고 높은 산이 햇빛을 쬐인 듯한 사람이 대개 있었지만 세  
상에서는 이를 알지 못하였다.

장경 초년에 이르러 중 도의가 서방으로 건너가서 서당의 오지을 보고 지광을 지장으로부터  
취하여 돌아와 처음으로 현계를 말하니 원숭이의 조급한 마음에 사로잡혀 북쪽으로 달아나  
는 단점을 비호하고 메추리가 제 날개를 자랑하여 봉이 남쪽 바다로 떠나려는 대망을 비난  
하였다. 이미 송언에 취하여 다투어 마어라고 비웃음으로 빛을 무하에 감추었고 자취를 호  
중에 감추어 전법할 생각을 그만 두고 마침내 북산의 북쪽에 은둔하였으니 어찌 주역에서  
말한 “세상을 피해 살아도 근심이 없다”는 것과 중용에서 말한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더라  
도 뉘우침이 없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겨울 산봉우리에 빼어나고 정림에서 꽃다우  
매 덕을 사모하여 모여드는 사람이 산에 가득하고 악인이 변화하여 선인이 된 사람이 골짜  
기에 짝 차게 되었으니 도라는 것은 폐하여질 수 없는 것이요 때가 되면 저절로 행해지는  
것이다.

홍덕대왕이 왕위를 계승하고 선강태자가 감무를 하게 되매 사도를 제거하여 나라를 바로잡  
으며 선을 좋아하여 집안을 살찌게 하였다.

이때에 홍척대사가 또한 서당지장에게 심인을 받고 남악에 와서 머무르니 왕이 귀의하며 초  
청을 하였고 궁궐에서는 홍척의 출산을 경하 하였다. 밝게 보이고 비밀히 전하여 주어 아침  
의 범부가 저녁에 성인이 되니 변함이 점차로 된 것이 아니라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다.

시험적으로 그 중취를 고찰한다면 수에 수했으나 수하는 것이 아니고 증에 증했으나 증하는  
것이 아니며 그가 고요히 있을 때는 산처럼 서 있으나 그가 움직일때는 산골짜기가 응하니  
무위의 이익이 다투지 않고도 이기게 되었다.

이에 동국 사람은 마음 속이 신령해졌는지라 능히 정리로써 해외사람을 이롭게 하였는데도  
그 이로운 바를 말하지 않으니 위대하도다. 이후 술잔이 물결을 따르듯이 구도승의 선박이  
왕래하고 소시의 방편이 진도에 융합하였으니 너의 조상을 생각하지 않겠는가.

진실로 무리가 많이 있도다. 혹은 칼이 연평진에 용으로 변화하여 들어가듯이 중국에 가서  
돌아오지 않고 혹은 구슬이 합포로 다시 돌아오듯이 중국에 가서 득법하고 돌아왔으니 뛰어난  
인물이 된 사람이 가히 손가락을 꼽아 셀만하다.

중국에 귀화하여 돌아오지 않은 사람은 정중사의 무상, 상산혜각, 익주김, 진주김 등이고 귀  
국한 사람은 앞에서 말한 설악산의 도의와 지리산의 홍척과 그리고 세대가 내려 와서는 태  
안사의 혜철국사, 혜목산의 현육, 지력문,쌍계사의 혜소, 신흥언, 용암체, 진구휴, 쌍봉산의  
도윤, 굴산사의 범일, 양조국사, 성주사의 무염은 보리의 중으로서 덕의 후함은 중생에게 아버  
지가 되고 도의 높음은 임금에게 스승이 된 사람들이었으니 옛말에 이른바 이름을 피해 달  
아나도 이름이 나를 따르고 명성을 피해 달아나도 명성이 나를 따른다는 것이다. 그런 까닭  
으로 교화는 중생세계에 덮이었고 자취는 부도와 비석에 전하였으며 좋은 형제가 있고 자손  
이 많이 있어 정림을 계림에 빼어나게 하고 혜수를 접수에 흐르게 하였다.

별도로 지계문을 나가지 않고 들창을 내다보지 않고도 대도를 보았으며 산에 오르지 않고  
바다에 들어가지 않고도 상보를 얻음이 있었으니 조용히 뜻을 쉬고 담담히 맛을 잇게 되었  
다. 저 언덕에 가지 않아도 이르렀고 이 나라를 엄하게 하지 않아도 다스려졌으니 칠현에게  
누가 비유되겠으며 십주에 지위를 정하기 어려운 사람은 현계산의 지증대사 그 사람이다.

처음으로 대성할 적엔 범체대덕에게서 몽매를 깨우치고 경의율사에게서 구족계를 받았으며 마지막으로 상달할 적엔 혜은엄군에게서 현리를 탐구하여 양부영자에게 목계를 전수하여 주었다.

그 법연은 당나라의 사조 도신을 오세부로 하여 동쪽으로 점차 바다에 전하여져 왔다.

흐름을 거슬러 이를 헤아리며는 쌍봉사조의 제자는 법랑이요, 손제자는 신행이요, 증손제자는 준범이요, 현손제자는 혜은이요, 말손제자가 대사이다.

법랑대사는 대의 사조의 대증에 따랐었는데 두중서 정륜이 지은 비명을 상고해 보면 서에 말하기를 “먼지방의 기사와 이역의 고인이 험난한 길을 꺼리지 아니하고 진소에 이르러 곧 보물을 움켜쥐고 돌아가니 사가 아니고 누구겠는가” 라고 하였다. 다만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다시 은밀한데 감추었으니 능히 비장한 것을 찾아낸 사람은 오직 신행대사 뿐이었다. 그러나 때가 이롭지 못하여 도가 통하지 못하였다. 이에 바다에 떠서 하늘에 알리니 숙종황제가 몸소 시구를 내리시기를 “용이 바다를 건느려면 폐배를 힘입지 아니하고 봉이 하늘을 나르려면 달을 돌보지 아니한다” 고 하였다.

사는 산조와 해룡의 두 글귀로써 대답하였으니 깊은 뜻이 있었다. 신행이 신라로 돌아와서 삼대를 전하여 대사에게 이르게 되었으니 필만의 후손이 창업한다는 말이 이에 증험된 것이다.

그 세속의 인연은 즉 왕도 사람이요. 김씨 성의 아들이니 호는 도현이요, 자는 지선이다. 아버지는 찬괴요, 어머니는 이씨이다. 장경 갑진년에 세상에 태어나서 중화 임인년에 세상을 떠났으니 승려생활이 사십삼년이고 전생애가 오십구년이다. 그 갖추어진 신체는 키가 팔척이 넘고 얼굴이 일척 정도 였으니 의상은 뛰어나고 존엄하며 언어는 웅장하고 통달하였으니 참으로 이른바 위엄이 있으나 사납지 아니한 사람이었던 것이다.

처음에 잉태할 때부터 세상을 떠날때까지 기이한 자취와 신비한 설화는 신출귀몰하여 붓으로는 기록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제 그 감응이 사람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것으로 여섯가지의 이상한 사실과 지조와 행실이 사람의 마음을 놀라게 한것으로 여섯가지 옳은 일을 간추려서 나누어 표시한다.

처음에 어머니 꿈에 한 거인이 고하기를 “나는 옛날에 승견불의 말세에 승려가 되었었는데 성낸 까닭으로 오랫동안 용보에 떨어졌으나, 업보가 이미 끝났으니 마땅히 법손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묘연에 의탁하여 자비스러운 교화를 흥포하기를 원한다” 고 했다.

이내 임신하여 거의 사백일이 지나서 관불회의 아침에 탄생하였다 일은 망정에 증험하였고 꿈은 상실에 부합하여 가족을 차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욱 경계하게 하고 가사를 입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밀하게 수도하게 하였으니 탄생의 기이한 것이 첫째이다.

태어난지 여러 날에 젓을 먹지 않고 젓을 짜서 먹이면 곧 울면서 목이 쉬려고 하였는데 문득 도인이 문을 지나가다가 깨우쳐 주기를 “아이에게 소리를 없이 하고자 하면 훈채와 날고기를 참고 끓으시오” 하므로 어머니가 그 말에 따랐더니 마침내 아무런 탈이 없게 되어 젓으로 양육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욱 삼가게 하고 고기를 먹는 사람으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품게 하였으니 숙습의 기이한 것이 둘째이다.

아홉살에 아버지를 여의고 거의 회멸되게 되었는데 추복승이 이를 불쌍히 여겨 깨우쳐 말하기를 “덧없는 몸은 사라지기가 쉬우나 장한 뜻은 이루기가 어려운 것인데 옛날 부처님이 그

부모의 은혜를 갚은 큰 방편이 있으니 그대는 이를 힘쓸 것이다” 고 하였다. 인하여 느끼어 깨달아서 곡을 건우고 어머니에게 아뢰어 입도를 청하니 어머니는 그의 어린 것을 사랑하고 다시 집안을 보존할 주인이 없음을 생각하여 확고하게 허락하지 아니하였는데 부처님이 출가할 때 성을 넘어간 고사를 듣고 곧 도망해 가서 부석산에 나아가 배웠다. 홀연히 어느날 마음이 놀래어 자리를 여러 번 옮겼는데 조금 후에 어머니가 그를 기다려 병이 났다는 말을 듣고 곧 돌아가 어머니를 뵈오니 병이 즉시 나았으므로 그때 사람들이 그를 완효서에게 비교하였다. 얼마 안되어 고질이 전염되어 의원에 보여도 효험이 없어 여러 점치는 사람에게 물었더니, 여러 사람이 말하기를 “마땅히 이름을 대신에게 예속 시켜야 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어머니는 그 전의 꿈을 생각하여 시험삼아 방포로써 덮고 울면서 맹세하여 말하기를 “이 병이 만약 나아서 일어난다면 부처님에게 원하여 아들이 되게 하겠습니다” 고 하였더니 이틀을 자고 난 후에 과연 아주 나았었다. 우러러 자친을 깨우쳐서 마침내 소지를 이루어서 자식 사랑하기를 늙은 소가 새끼 송아지를 핥듯이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랑하는 마음을 끊어 버리게 하고 술잔 속에 뱀의 그림자를 마신 사람으로 하여금 의심을 풀게 하였으니 효도의 감동 시킨 것이 기이한 셋째다.

십칠세 때에 이르러 구족계를 받고 비로소 강단에 나아갔는데 소매 속에 신평이 선명함을 깨닫고 이를 더듬어 한 구슬을 얻었으니 어찌 마음을 두고 구한 것이겠는가. 이에 종아리가 없어도 이르게 된 것이니 참으로 육도집행에서 깨우친 것이다. 굶주려 부르짖는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배부르게 하고 취해서 넘어진 사람으로 하여금 능히 깨어나게 하였으니 마음을 힘쓰게 한 것이 기이함이 넷째이다.

좌우를 마치고 장차 다른 곳으로 가려 하는데 밤의 꿈에 보현보살이 이마를 어루만지고 귀를 쥐면서 말하기를 “고행은 실행하기는 어렵지만은 이를 행하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꿈을 깨니 가려움증이 생겨 잠잠한 가운데 기골에 도장이 새겨졌다. 이로부터 다시는 명주옷과 솜옷을 입지 않았으며, 노끈과 가는 실의 사용에도 반드시 삼과 닥나무실을 사용하고 양가죽으로 만든 신을 신지 않았으니 하물며 새깃의 부채와 털로 만든 자리를 사용했겠는가? 솜옷과 난마를 입는 자로 하여금 눈을 뜨게하고 명주옷을 입는 자로 하여금 낮가죽을 두껍게 하였으니 율신의 기이함이 다섯째이다.

유년으로부터 노성의 덕을 갖추었고 더욱 계주를 밝히었으니 후진들이 다투어 서로 추종하여 배움을 청하게 되었다. 대사가 이를 거절하여 말하기를 “사람의 큰 근심은 남의 스승 되기를 좋아하는 것이니 억지로 은혜를 베풀고자 하여도 은혜를 베풀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스승이 되려고 하여도 스승이 될 수없는데 어찌하겠는가? 하물며 큰 바다에 떠 있는 지푸라기같이 제 자신도 구제할 여가가 없으니 그림자를 쫓고자 하나 쫓을 수가 없는 것과 같이 반드시 웃음거리의 모양이 될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 후에 산을 가는데 나무꾼이 이르러 앞길을 막으면서 말하기를 “선각이 후각을 깨닫게 하는데 어찌 환신을 아낄 필요가 있겠는가” 라고 하였다. 그에 나간 즉 보이지 않았다. 이에 부끄럽고 또한 깨달아서 와서 배움을 청하는 사람을 막지 아니하니 계람산 수석사에는 대와 갈대같이 뻑뻑하게 물려 들었다. 조금 후에 다른 곳에 집을 짓고 말하기를 “매어있지 않는 것이 본래의 생각이니 능히 옮겨 가는 것이 귀중한 일이다” 고 하였다. 글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날마다 세번 반성하게 하고 선실을 짓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홉가지를 생각하게 하였으니 훈계를 내린것의 기이함이 여섯째이다.

증태사 경문대왕이 마음으로 삼교에 통하고 대사를 만나 뵈고자 하여 “멀리서 그대의 생각

을 깊이 하여 나의 법칙을 도와 주기를 바란다” 하면서 이에 서신을 보내기를 “이운은 대세를 통달하였고 송심은 명성만을 들렸었는데 유도로써 불교에 비유한다면 가까운 곳으로부터 먼 곳으로 가는 것과 같은 것이다. 왕경지바의 암거에도 자못 아름다운 곳이 있으니 새가 나무를 가려 앓듯이 봉황이 오는 거동을 아끼지 마시옵소서” 라 하고 근시 가운데 가한 사람으로 원성왕의 종손인 입언을 선발하여 사신을 삼아 이에 교지를 전하여 섭제하게 하였다. 대사가 대답하기를 “자신을 닦고 남을 교화 시키는데 고요한 곳을 버리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새가 능히 나무를 가려야 한다는 말은 나를 위하여 잘 말하여 준것이니 진흙속에 편안히 있게 허락하여 주어 문수 위에 있게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였다. 임금이 이 말을 듣고 더욱 진중하게 여겼다. 이로부터 명예는 날개가 없이 사방에 전해지고 대중은 말하지 않는 가운데 일체 변해졌다.

함통 오년 겨울에 단의장옹주가 미망인으로 일컬어 졌었는데 당래불에 귀의 하여 삼가 하생을 위하여 시사를 후하게 하였다.

읍사의 관할인 현계산 안락사가 천석의 아름다움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까닭으로 원학의 주인이 되어주기를 청하니 대사는 이에 그 문도에 알리기를 “산의 이름을 현계라 하니 땅은 우곡과 다를 것이며 절 이름을 안락이라 하니 승려가 주지하기에 합당할 것이다” 하고는 이에 따라 옮기었다. 거주한즉 교화하여 산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욱 고요하게 하고 땅을 가리는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을 삼가게 하였으니 나가서 도를 행하고 물러가서 숨는 것의 옳음이 첫째이다.

어느날 문인에게 고하기를 “고 한찬 김공의훈이 나를 승적에 넣어 중이 되게 하였으니 김공에게 불로써 보답하겠다” 하고는 이에 장육현금상을 주조하여 황금으로 발라서 절을 지키고 명로를 인도하는데 쓰게 하여 은혜를 베푸는 자로 하여금 날로 독실하게 하고 의를 갚는 사람으로 하여금 바람을 쫓아 따라오게 하였으니 은혜에 대한 보답을 알게 하는 것의 옳음이 둘째이다.

함통 팔년 정해에 이르러 단월옹주가 여금등으로 하여금 가람의 남묘와 장희의 문서를 가지고 그것을 주게 하여 괴포의 전사로 삼아 영구히 바꿀 수 없게 하니 대사가 인하여 생각하여 말하기를 “왕녀께서 불법을 믿어 숭상하기를 좋아함이 이와 같으니 불제자로 선열을 맞보는 일이 어찌 헛되이 그렇겠는가. 우리 집이 가난하지 않은데 친당이 모두 죽었으니 길가는 사람의 손에 떨어지기 보다는 차라리 문하제자의 배를 채우게 하는 것이 낫겠다” 하고 드디어 건부 육년에 장 십이구의 전 오백결을 절에 예속 시켰다. 밥은 누가 주머니라고 나무라겠으며 죽은 능히 좋은 솟이어야겠는가? 백성이란 먹는 것을 하늘로 삼으니 불토를 가히 기약할 수 있게 되었다. 비록 말하기를 내 토지라고 하지마는 왕토에 있으니 처음 왕손 한찬 계종과 잡사시랑 김팔원 김함회 및 정법대통 석현량에게 질의 하니 임금에게 전해져서 허락을 받게 되어 중태부헌강대왕이 자기의 마음으로 남을 살피서 이를 윤택하여 주었다. 그해 구월에 남찬군 승통 훈필에게 교지를 내려 별서를 표하여 생장을 구획하여 주게 하였다. 이것은 대개 밖으로는 군신의 익지를 돕고 안으로는 부모가 하늘에 태어나게 하는데 이 바지하며 목숨을 잇는 사람으로 하여금 인을 일으키게 하고 노래 부르는 이를 상주는 사람으로 하여금 허물을 고치게 하였으니 단월의 회사한 것의 옳음이 셋째이다.

건혜지에 거하는 사람으로 심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대사가 수단은 정해에 여유가 있고 신감은 천문지리를 통달하며 뜻은 소구담과 축법란 처럼 확고하고 학술은 도안과 늑보다 정밀하는 말을 듣고 예를 갖추어 사되어 말하기를 “제자가 남은 땅이 회양산복의 봉암용곡에

있는데 지경이 괴이하여 사람의 눈을 끄니 선찰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고 하였다. 이에 대사는 서서히 대답하며 “내가 몸을 나눌 수 없는데 어찌 이를 사용 하겠습니까?”했다. 심층의 청이 확고부동하고 더욱이 산이 신령스럽게 생겨 감기가 말을 타고 앞으로 나오는 기이한 형상이었으므로 이에 나무꾼이 다니는 길로 지팡이를 짚고 가서 지세를 살피었다. 또한 살펴보니 산이 사방에 병풍처럼 둘러었으니 붉은 봉황의 날개가 구름을 치며 올라가는듯하고 물이 백겁으로 띠처럼 둘러었으니 이무기의 허리가 돌에 엮드려 있는듯 하였다. 이에 놀라고 또한 탄식하며 말하기를 “이 땅을 얻게 된 것은 어찌 하늘의 도움이 아니겠는가. 승려의 거처가 되지 않는다면 도적의 소굴이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마침내 대중에 술선하여 후환을 방지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아서 와침 사주를 세워서 이를 누르게 하고 철불상 두구를 주조하여 이를 호위하게 하였다.

중화 신축년에 이르러 교를 내려 전 안륜사의 승통 준공과 사정상 배울문을 보내어 강역을 표정케하고 이어 방을 내리어 봉암이라 하였다. 후에 대사가 가서 교화한지 수년만에 산백성으로서 야구가 된자가 있어 처음은 감히 화륜에 항거 했으나 마침내 능히 대사의 교화에 쫓아 감화되었으니 정수를 깊이 딸아 미리 마산에 물을 댄 큰 힘이 아니겠는가. 팔을 자른 사람으로 하여금 의리를 표시하게 하고 용미를 과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심을 제어하게 하였으니 선심을 개발시킨 것의 옳음이 넷째이다.

태부대왕이 중화의 풍속으로서 폐풍을 일소하고 불교의 진로로써 마른 땅을 적시어서 평소부터 영육의 이쁨을 흠양하고 불교의 강론 듣기를 간절하게 바랐었는데 이에 계족산에 마음을 기울이어 서한을 보내어 대사를 부르기를 “밖에서 소연을 도호한지가 잠깐 삼제가 지났으니 안으로 대해를 닦으시어 한번 와 주심을 바랍니다” 고 하였다.

대사는 왕의 서신에 좋은 인연은 온 세상에 같이 하고 진속은 온 나라에 같이 하자는 말에 미처 감동되어 옥을 품고 산을 나오니 거마가 베날듯이 길에서 맞이 하였다. 선원사에 이르러 말을 쉬게 하여 편안히 이틀 동안을 쉬게 하고 월지궁에 인도하여 심법을 질문하게 되었다. 때는 섬라에 바람이 불지 않고 운수에 바야흐로 밤이되었는데 마침 금과외 그림자가 옥소의 복판에 단정히 임한 것을 보고 대사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있다가 우러러 보고 말하기를 “이것은 이것이니 그 나머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고 하였다. 임금은 상쾌한 모양으로 혼연히 계합하여 말하기를 “금선 화목의 전해 온 풍류가 진실로 이에 합치됩니다”라고 하고 마침내 배하여 망언사로 삼았다. 대사가 나감에 미처 신신으로 하여금 교지를 알려져 잠시 머물러 주기를 청하니 대답하기를 “우대우라고 이르지만은 값이 얼마되지 않으며, 새로써 새를 기르면 그 은혜가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이로써 작별하기를 청하오니 이를 굽히면 부러질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이말을 듣고 탄식하여 운어로써 찬탄하기를 “만류하여도 이미 머물지 않으니 공문의 등후로다. 스님은 바로 지둔의 학이온데 나는 조나라의 갈매기가 아니로다”라고 하였다. 이에 십계제자 선교성부사 풍서행에게 명하여 대사를 전송하여 산에 돌아가게 하였다. 토끼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하여금 나무 줄기를 떠나게 하고 물고기를 탐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물 만드는 것을 배우게 하였으니 나아가서 교화하고 물러가서 도를 닦는 일의 옳음이 다섯째이다.

대사는 세상에 나가 있을 때에는 멀고 가까움과 험준하고 평탄함을 말할 것 없이 일찍이 말이 나 소로써 그 노고를 대신하게 하지 않았으며 산에 돌아감에 미쳐선 빙설이 길을 막으므로 병려나무로 만든 보여를 내려 총행하니 사자에게 사절하여 말하기를 “이것이 어찌 정대춘의 이른바 인거가 아닌가. 속인 가운데 영준한 사람을 돌아보아도 사용하지 않는 것인데

하물며 삭발한 사람으로야 사용하겠는가. 그러나 명령이 이미 이르렀으니 그것을 받아서 괴로움을 구제하여 주는 도구로 삼겠다”고 하였다. 후에 병으로 여락난야에 옮겨가서 석장을 짚고도 일어날 수 없게 됨에 미쳐 비로소 이것을 타게 되었다. 병을 근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괴로움을 구제하게 하고 어진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편집을 버리게 하였으니 사용하고 버리는 것의 옳음이 여섯째이다.

겨울 끝달의 기망 후 이일에 이르러 가부좌를 하고 앉아서 서로 대하여 말할 즈음에 조용히 입적하였다. 아아! 별은 하늘로 돌아가고 달은 큰 바다에 떨어졌다. 온종일 바람은 산골짜기에 진동하니 그 소리는 호계가 울부짖는 것 같았고 적설이 소나무를 꺾으니 빛깔은 학수와 같았다. 만물의 느낌도 이같이 극도에 달했는데 사람의 슬픔이야 헤아릴 수 있겠는가! 이를 후에 현계산에 임시로 빈소를 짓고 기년에 드디어 회양산 아래로 옮겨 장사를 지내었다.

태부대왕이 의원을 보내어 병을 위문하고 말을 내리어 제를 지내게 하니 정치를 고루 보살피는데 여지가 없으면서도 능히 시종이 하나 같았던 것이다. 임금은 특별히 보살계제자 건공향령 금입언에 명하여 여러 어린 제자들을 위로케하고 시호를 지증선사 탐호를 적조라 내리었다. 이어 탐비의 건립을 허락하고 행장을 기록하여 아뢰게 하니 문인 성견, 민휴, 양부, 계휘등은 모두 봉미를 얻은 자들로 목은 사적을 거두어 모아 바쳤다.

을사년에 이르러 국민중에서 유도를 매개로하여 황제의 나라에 들어가서 이름을 계적중에 기록하고 관직이 주하사에 등용된 사람이 있어 이름을 최치원이라 하는데 한후의 조서를 받들고 희왕의 의단을 가져 왔으니 비록 봉의 거동에는 부끄럽지만은 자못 학의 돌아감에 비길만 하였다.

임금이 총신으로 불교신자인 도죽양에 명하여 문인이 쓴 대사의 행장을 주고 수교를 내리기를 “누갈의 동국 스승이 서방으로 돌아간 것은 비로소 슬프고 수위의 서방 사자가 동국으로 돌아온 것은 매우 기쁘다. 영구히 전할 일이 인연이 있어 이르게 된 것이니 좋은 글짓는 것을 아끼지 말아 대사의 자비에 보답하게 하라” 고 하였다.

신이 비록 동방의 비재이지만은 남관의 다행을 얻게 되었다. 바야흐로 재주를 부릴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갑자기 현장왕의 승하하심을 만나게 되었다.

하물며 다시 나라에서는 불서를 소중히 여기고 집에서는 승사를 간수하며 법같이 서로 바라보고 선비가 가장 많던 시대가 아니었던가. 두루 절묘한 글을 보고 시험삼아 금송을 찾았다. 살펴보건데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다는 말이 다투어 말로 헤아리게 되고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 다는 말이 움직이면 수레로 실을만 하였다.

일찍이 노사의 신의가 없고 혹은 주공의 구장을 인용하였다. 이로써 들은 능히 말을 못하니 더욱 도의 현묘하고 심원한 것을 증험함을 알겠도다. 오직 한스러운 것은 대사의 입적한 것이 빨랐고 신의 귀국한 것이 늦은 것이다. 애체의 글자는 누가 전의 인과인 것을 고하며 소요유의 뜻은 참다운 비결을 듣지 못하였다.

매양 손이 상할 것을 근심하고 주먹을 펴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때를 탄식한즉 이슬이 지나가고 서리가 오니 문득 근심스러운 귀밑이 뼈죽 말라졌으며 도를 말한 즉 하늘처럼 높고 땅처럼 두터우니 겨우 뻗뻗하여진 붓털을 적실뿐이었다. 장차 한만한 놀음에 화합하려 하여 비로소 공동의 아름다운 자취를 서술한다. 문인 영상이 와서 글을 재촉하였다 금인의 말을 삼가는 교훈을 빌려쓰니 들의 마음은 더욱 단단하다. 참는 것은 뼈를 굽는 것보다 고통스럽고 구하는 것은 몸에 새기는 것보다 더 괴로웠다. 그림자는 팔동에 짝하였고 말은 삼

복에 힘입었다. 생각컨대 여섯 가지의 기이한 일과 여섯가지의 옳은 일의 속사가 고용에 부끄러움 없이 여유가 있는 것은 실로 대사가 안으로는 욕망을 소탕하고 밖으로는 욕폐를 제거하여 행하면 욕도를 포괄하고 앎으면 욕통을 증험하였기 때문이다. 일은 비유하면 꽃을 따는 것 같고 글은 초고를 소각하는 것 보다 어렵다. 드디어 진호를 자르지 않는 것과 강비가 앞에 있는 것이 부끄럽다. 자취는 난전의 노는 것을 쫓았으니 누가 월지궁의 아름다운 대면을 사모하지 않을 것이며 계는 백량대의 시를 본받았으니 바라건대 일역의 고담으로 전하리라. 그 사에 이르기를

인성은 인에 의지하고 덕에 의거하였고 녹선은 백을 알고 흑을 지키었다.

이교는 부질없이 천하의 격식이라고만 일컫고 나계진인과는 힘을 겨루기 어려웠다.

십만리 밖에서는 서역의 거울이 되었고 일천년 뒤에는 동국의 촛불이 되었다.

계림지경은 오산견에 있으며 선과 유에 예로부터 기특함이 많았다.

거룩할손 회중의 직책을 비우지 않았는데 다시금 불일을 맞아 공과 색을 분별하였네.

교문은 이로부터 각 과로 갈렸으나 법론은 고루 퍼져 인심을 다스렸다.

몸은 퇴굴에 의지했으나 마음은 편안키 어렵고 발자취는 양기에 다달으니 눈이 도로 현혹되었다.

법해는 어디로 흐르는가 진실로 측량하기 어려운데 마음으로 전하고 눈으로 변론함이 진리의 극치를 포괄하였도다.

연였으며 연음이 망상의 연음 같고 말이 없으며 말없음이 한선의 울지 않음과는 다르다.

복산의 도의는 홍곡의 쪽지를 쳐뜨렸고 남악의 홍척은 대봉의 나래를 펼쳤구나.

해외에서 돌아오매 도는 꺾기 어려워져 멀리 뻗은 선의 흐름이 막힘이 없었구나. 다복쪽은 삼대에 의지하매 능히 스스로 곧았으며 구슬을 옷안에서 찾으니 옆으로 구할 것이 없었다.

담담하기 현계의 선지식은 십이인연이 허식이 아니었다.

무엇하러 드림줄 더위잡고 말뚝에 매어달릴 것이며 어찌하여 붓끝을 물에 빨고 먹물을 먹일 것인가.

저는 간혹 멀리 배워 고생으로 돌아왔으나 나는 능히 고요히 앉아 마적을 물리쳤네.

의수를 함부로 심지 말 것이며 정전을 부질없이 가꾸지 말 것이다.

항사같이 많은 수행의 지경공덕을 논하지 말 것이며 고운 같은 떠돌이 자취의 남북정치를 말할 것 없다.

덕은 사해에 퍼지매 담복처럼 향기롭고 지혜는 일방의 교화하매 사직이 평안했다.

몸소 천화를 받들으며 가사를 필적였고 마음은 수월에 부쳤으며 선식을 바쳤구나.

연면한 행복은 형극처럼 복잡하니 부유의 무식한 붓은 갈길은 못잡겠네 자취가 보당에 광채가 나니 이름을 가히 새길만 한데 내 재주 금송에 뒤졌으며 글을 짜내기 어렵구나.

주린 창자로 선열의 공양에 배부르고자 산중에 와서 전자의 새김질을 보살피도다.

분황사 석 혜강이 글씨를 쓰고 아울러 글자를 새김 세 팔십삼

원주대덕 능선 통준 오유나 등 현일 장해 명선

단월선갈 서0대장군착자금어대 소과양질미가은현장군 희필

당현0인신치000우덕명

용덕사년 세차갑신 유월 일 경건

### 3. 初月山大崇福寺碑

臣聞 王者之基[基本也 書武成篇 太王肇基王迹也] 祖德而峻 [峻崇也]孫謀也[詩云 貽厥孫謀] 政以仁爲本 禮以孝爲先[仁孝爲一編大旨]仁以推濟衆之誠[左傳鍾儀云 仁以接事 事雖大必濟 論語云 一日克己復德 天下歸仁焉] 孝以舉尊親之典 莫不體無偏於夏範[洪範曰

無偏無黨 王道蕩蕩 無黨無偏 王道平平 注 偏不平也 黨不公也 言無偏黨反側己私之見於事也 蕩蕩 廣遠也 平平 平易也 言正直不偏邪也] 遵不置於周詩[詩云 威儀孔特 君子有孝子 孝子不匱 永錫爾類 註云 孝子 王人之嗣子也 儀禮 祭祀之終 有嗣舉奠 匱竭也

類善也 言汝之威儀 既得其宜 又有孝子之舉奠 孝子之孝誠不竭則永錫爾善矣]

聿修芟稗之譏[芟刈也 稗不成粟也 稗似稻而實細也 比政事不明] 克祀潔蘋蘩之薦[詩云 于以采蘋 南澗之濱 又云 于以采蘋 于沼于沚 于以用之 公侯之事 蘋 各蒿也 沚 渚也 註言南國被文王之化 諸侯夫人 能盡誠敬 采以奉祭祀也] 俾惠渥[渥音屋 洽也 渾也 賈誼云 德至渥也 言王德] 均濡於庶彙[庶衆也 彙音暉 類也 聚也] 德馨高達於穹旻[孝誠達穹旻] 然勞心而扇暘[暘音葛 說文 傷暑 帝王世紀 武王自孟津還 及于周 見暘人 王自左擁而右扇之] 泣辜[夏禹 出見罪人 下車 問而泣之] 豈若拯羣品[衆生]於大迷之域[三界] 竭力而配天[配音沛 匹也 合也 周頌 克配彼天也]饗帝[書曰以饗上帝鬼神] 豈若奉尊靈於常樂之鄉 [常樂我淨爲涅槃之四德 常樂之鄉即涅槃之世界也] 是知敦睦九親[敦 厚也睦和也 堯典云 九族既睦 註云 高祖曾祖祖父子孫曾孫高孫玄孫爲九族] 實在紹隆三寶[佛法僧] 矧乃玉毫光[法華經云 佛放眉間白毫 相光 照東方萬八千世界 靡不周遍 下至阿鼻地獄 上至阿迦尼吒天 註云 阿鼻 此云無間 卽地獄最下 阿迦尼吒 此云質礙究境 卽色界極頂也]所燭照 金口偈[佛說經文]所流傳 靡私於西土生靈 爰及於東方世界[佛說法華時 放眉間瑞光 照東方萬八千里云] 則我太平勝地也 性茲柔順[東方配五常則仁 故柔順] 氣合發生[東方始生萬物]山林多靜默之徒[僧侶] 以仁會友 江海協朝宗之勢 [尚書 江漢朝宗于海 註 春見曰朝 夏見曰宗 江漢趨於海 如諸侯朝宗于王也] 從善如流

是故激揚君子之風 薰漬[漬音恣 漚也 浸也]梵王之道 猶若泥從璽[天子之璽以紫泥封之]金在鎔 [董仲舒曰 上之和下 下之從上 猶金之在鎔 此二句 明從善如流]而得君子鏡[照也] 志於三歸[佛法僧也] 土庶翹[翹 懸也 文選 曹植雜詩 思慕遠人 註 翹猶懸也] 誠於六度[布施持戒 忍辱 精進 禪定 智慧之總稱] 至乃國城無惜 能令塔廟相望 雖在瞻部洲[此云勝金洲也]海邊 寧慚都史多 [梵語 兜率 亦都史多 此云知足天]天上 衆妙之妙 何名可名 [案 衆妙二句 總結妙中之尤妙也 衆妙指莊嚴塔廟等事也 下妙字 謂妙法也 言衆妙中之眞妙法 名狀不可得也] 金城[新羅都城也]之隴[南方卦名 言南方] 日觀[日觀者 泰山東南峯名 雞初鳴 則見日出 故云日觀峯 今新羅東亦有之]之麓 有伽藍號崇福者 乃先朝[景文王]嗣位之初載[西紀八六一年] 奉爲烈祖元聖大王[冊號 敬信 卽景文王之九世祖]園陵追福之所修建也 粵若[發語辭也]稽古寺之濫觴 [水初出口濫觴 比作事之始也] 審新刹之覆簣[孟子云 爲山九仞 功虧一簣 若盡一 簣 則是覆也 故言凡事之終 云覆簣] 則昔波珍煊 [新羅十七級爵中第三級也] 金元良者 昭文王后[元聖大王之母]之元舅 [帝王之長舅 卽帝王母之兄弟之長] 肅貞王后[元聖大王之后]之外祖也 身雖貴公子 心實眞古人 始則

謝安[比金元良]縱賞於東山 儼作歌黨舞館 終乃慧遠同期於西境 捨爲像殿經臺[晉謝安携妓遊東山三十年 後與慧遠法師與劉遺民雷次宗周續之宗炳等百二十人 結白蓮社 發願往生西方]當年之鳳管鷓絃[崑山之竹 作管吹之 有龍鳳之音 以鷓之筋 作琴瑟之絃 用鐵撥彈 則其響如雷]此日之金鍾玉磬 隨時變改 出世因緣 寺之所枕倚也[主山]巖有鵠狀 仍爲戶榜[因爲寺榜云鵠寺也] 能使鳶廬長價[鳶鳶必具雌雄 故東西翼廊 謂鳶廬] 永令鵠殿增輝[禽經曰鵠鳴 沈 養之園林 則蛇遠去 諸佛所住 百害斯無 故佛殿謂之鵠殿] 則彼波羅越之標形[西域達親國 有過去迦葉佛伽藍 窮大石山作之 凡有五層 最下層作象形 五百間石室 第二層獅子形 四百間 第三層馬形 三百間 第四層牛形 二百間 第五層鵠形 一百間 窓牖通明 室中朗然 是名波羅越寺也] 岬悒遮[此云鷹 巖如鷹狀故因爲寺名]之紀號 詎若飛千里以取譬[古詩 黃鵠飛千里 取鵠字意也] 變雙林以册題者哉[梁武帝時 傳大士於松上頂古寺 因雙搗樹 改名雙林 而居之 但取其變本名之義也 此寺名但鵠寺 而無白字 解云 佛入涅槃時 雙林皆白 取白意 非] 但茲地也 威卑鷲頭[西域記云 梵語枯標陀羅 唐言鷲頭 亦云鷲臺 枯標特松 既棲鷲鳥 儀類高臺 故佛於此說法也] 德峻龍耳[郭璞錦囊經云 勢止形仰 前澗後崗 龍首軾之 藏曼頹 吉昌耳 致王侯 以坎爲首 卽甲角震耳也 註 燕國公張說與玄宗 俱微行 見葬龍耳者 誤謂龍角 尋往其家 勸移他地 其人答曰 葬龍耳 則三年內 白衣天子到門前云云] 與畫金界[金界者寺也] 宜開玉田[玉田者 陵也] 泊貞元[唐德宗年號] 戊寅年[元聖大王十四年]冬 遺教窀穸之事[窀音肫 穸音夕 墓穴幽堂也 杜預曰 窀 厚也 穸 夜也 言穴中厚暗如長夜] 因山是命[綱目註 帝王之葬 因其山川 而不復起墳] 擇地尤難 乃指淨居[寺也] 將安秘殿[王陵] 時獻疑者有言 昔游氏之廟[說文云 鄭聲公 欲毀游氏之廟 以廣苑囿 子產曰 游氏之賢 不能保五畝之宅耶 公遂止] 孔子之宅[漢書景帝中子 爲魯恭王 欲毀孔子舊宅 以廣其居 聞金石絲竹之音 乃止不壞] 皆不忍終毀 人到于今稱之 則欲請奪金地 無乃負須達多[指給孤獨作祇桓精舍者 比金元良也] 大捨之心乎 冥葬者[陵也] 地所祐 天所咎[白虎通云 天以高爲尊 地以厚爲德 ○ 案 冥葬則地增其厚 故爲所祐 天減其高 故爲所咎] 不相補矣 而莅[莅音利 臨也] 政者譏[譏 議也 左傳云 郟以下 無譏焉]曰 梵廟[寺也]也者 所居必化 無往不諧 故能轉禍基爲福場 百億劫[劫 具云劫波 此云時分也]濟其危俗 靈隧[陵也]也者 類坤脈[類音府 低頭也 同銓 坤脈 五行之氣 運於地中 猶人之血脈 運於皮膚之中] 仰揆乾心[揆度也 乾心 二十八宿與列星 羅于乾心 各有主張分地也] 必在葛四象[謂金木水火]于九原[九原葬處也 禮檀弓云 趙文子視于九原曰 九原可作 吾誰與從 註云 卿大夫死 則多葬于此 故云九原] 千萬代保其餘慶則也法[佛法]無住相禮[喪葬之禮]有成期 順天之理 但得青烏善視[郭璞之師 青烏先生 善陰陽地理 著錦囊經]豈令白馬悲嘶[梁高僧傳云 昔外國王 盡毀諸寺 唯招提寺 未及毀 夜一白馬 繞塔悲嘶 卽以啓聞 王乃停止 因改招提 爲白馬寺 名出義集] 且驗是仁祠[寺也] 本隸[付屬]戚里[金元良也] 誠宜去卑就峻[去卑 應上威卑句 就峻 應上德峻句] 捨舊[指舊寺也] 謀新[陵也] 使幽庭[陵也] 據海域之雄 淨刹[寺也]擅雲泉之嫩[美也] 則我王室之福山高峙 彼侯門[侯門者 指金元良是貴公子 故下數節明不負須達陶之意 此是文結處故]之德海安流 斯可謂知無不爲 各得其所 豈與夫鄭子產之小惠 魯恭王之中輟[指上不毀宅毀廟也] 同日而是非哉 宜聞龜筮協從[筮音誓 著曰筮 蒿屬也 龜曰卜也 著二施 史記云 著千歲 一本百莖 下有神龜 守之 此言葬於佛地 未知吉凶 故先以占兆也] 可見龍神歡喜[案宜聞云云 至歡喜 言龍神歡喜 故龜筮協從 龜龍一族著神無二故也] 遂遷精舍 爰創玄宮 兩役[寺與陵也] 它徒[它音披具也 治也] 百工葺事[葺音闡 備也] 其改創紺字[紺音甘 染青赤色釋名云 紺含也 青而含赤色] 則有緣之衆 相率而來 張袂不風 植錐無地 霧市奔趨於五里[後漢 張楷 能爲五里霧 學其術者填門 人謂之霧市] 雪山和會於一時[西域記云 伊爛那城長者之子 性情仁善投雪山學佛 凡有所須 自其居家 至于雪山 鄰里奴僕 交路替傳 曾不踰時 其和會可知] 至於撤瓦抽椽[撤 除去也 抽 發也] 奉經戴像迭相授

受 競以誠成 役夫之跬步未移 釋子之宴居已就[寺役畢] 其成九原則雖云王土[普下之下 莫非王土] 且非公田 於是 括以邇封[括結束也 量也 說文 築土爲墳曰封 檀弓 孔子合葬于防 封之崇言邇封者 作墓之近地也] 求之善價 益丘隴[指墓域周邊之地 俗所謂山坂]餘弑百結[從來寫本及刊本皆書以 百結 今據碑石斷片 改以弑百結] [酬同]稻穀合二千石[斛除一斗爲石也 司馬法 六尺爲步 步百爲畝 秦孝公制二百四十步爲一畝 程頤曰 古者 百畝止當今田十畝也 斛音與 量名 十六斗] 旋命[旋 轉也 回也]所司[司 治葬者] 與王官之邑[官猶主也 樂記云 天地官矣 註 主也 卽畿內之邑也] 共芟榛徑[芟音杉 刈也 唐史 墟榛 註 榛 木盛也]分蒔松塹[蒔音時植也 塹和土也 又字彙云 墓道也]故得蕭蕭多悲風 激舞鳳歌鸞之思[魏志武帝臨終 謂宮人曰 汝等日後思朕 登銅雀臺 望西陵而歌舞 此以舞鳳歌鸞 比思先王之宮女也] 鬱鬱見白日 [博物志云漢滕公卒 公卿送葬 駟馬踟地悲鳴 掘地得石槨 銘曰 鬱鬱佳城 三十年見白日 嗟呼 滕公居此室] 助盤龍踞虎之威 [漢書 諸葛亮至石頭城歎曰 鍾山虎踞 石頭龍盤 眞帝王宅也] 且觀其地 壤異瑕丘 [禮記云 公叔文子升於瑕丘 嘆曰 樂哉 斯丘 死則我欲葬焉] 境連陽谷[時出處] 祇樹[曾是寺堊 故曰祇樹]之餘香未泯 穀林[堯葬處]之佳氣增濃 繡峯[峯之隱現端好 如錦之繡]則四遠相朝[如繡之峯 四方歸朝] 練浦[浦之澄麗互長 如練也] 則一條在望[如練之浦 一面供望] 實謂喬山[黃帝 壽百一十歲 乘龍上天 葬弓劍於喬山] 孕秀 畢陌[文王葬地]標奇 而使金枝[本孫]益茂於雞林[新羅] 玉派[外孫] 增深於鱒水[海東也 東方有比目魚 其名曰鱒也]者矣 初寺宇之徙也雖同聳出[法華多寶佛塔 從地涌出也] 未若化城[法華 中長者 欲領諸子 達於寶所 諸子憚路險遠 故中路權化一城 略置寶貨 引諸子入化城 後更引入寶所 譬佛以二乘法引之 終入大乘也] 哉[乃也 又纔也]得剗荆棘而認岡巒 雜茅茨而避風雨 僅踰六紀 [十二年爲一紀 取歲星一周天] 驟歷九朝[元聖 昭聖 哀莊 憲德 德興 僖康 神武 文聖 憲安] 而屢值顛覆 未遑嵩飾 三利[憲安王無子 欲擇膺廉爲婿 膺廉聞長女醜 而少女有姿色 範喬<教>曰 娶長女 有三利 一 王無子 以婿爲太子 二 少女自然相從 三 終得大位 是爲景文王之勝緣有待 千齡之寶運[指國運也]無虧 伏惟先大王[景文王也 僖康王之曾孫]虹渚騰輝[虹水名 顛頊母 曰女節 見有星流 感而生顛頊] 鰲岑[慶州有鰲山]降跡 始馳名於玉鹿[似指花郎團 而未可詳之] 別振風流[鸞郎碑云 國有玄妙之道 曰風流] 俄縮職於金貂[貂音彫 鼠屬出胡丁零國 亦出東北 夷徐曰 侍中冠 以貂爲飾 北方寒 以貂皮暖 故附施于冠 漢冠儀 貂蟬 註曰 金取堅強 蟬取居高飲潔 貂取內勁悍外溫潤也] 肅清海俗 據龍田而種德[易乾卦云 九二 見龍在田 利見大人 註曰 田地上也 出現於地上 其德已著 以聖人言之 舜之田漁時也 利見大德之君 以行其道也 卽東宮] 棲鳳沼 [周靈王太子晉 吹鳳簫求鳳 與秦穆公之女季湄 俱爲神仙而去 後人稱太子所居室曰鳳閣 所遊池曰鳳沼]而沃心[說命云 啓乃心 沃朕心 註云 沃 灌溉也 沃朕心者 溉我心 而厭飫也] 發言則仁者安人 謀政乃導之以道 八柄之重權咸舉[周禮 太宰以八柄詔王 御羣臣 註 一 有德則爵 二 有功則祿 三 言語合道則賜予 四 有善行則置于位 五 有大勳則使子孫享養 六 有大罪則殺而奪符 七 有罪則廢而放之 八 有過失則譴責] 四維之墜緒斯張 [天之四維 東西南北 人之四維 禮義廉恥] 歷試諸難 [玉鹿至四維皆是諸難 如唐堯之歷試虞舜也] 利有攸往 旋屬憂侵杞國[李白詩杞國無事憂天傾 此言王之昇遐 取天傾意] 位曠搖山[古文邦國曠位 山岳搖動 亦言王之昇遐] 雖非逐鹿之原[秦失其鹿天下共逐] 亦有集鳥之苑[詩云 瞻烏爰止 于誰之屋之意 言未知寶位將爲誰人之所傳 如鳥之飛 將止于誰屋之比也] ○ 有引左傳云 宋景文公 無子 取公孫周之子得與啓 畜諸公宮 公有病 死 大尹立啓 三日 得夢啓北首而寢於廬門之外 已爲鳥而集於其上 味加於南門尾加於北門 覺而言曰 北首 死像也 寢門外 失國也 余夢美吾必立也 然不及前義 然以賢以順 且長且仁[賢順 就氣質而言 仁長就德行而言也] 爲民所推 捨我奚適 乃安身代邸[漢文帝 以代王至長安 受皇帝位於代邸] 注意慈門[佛門也 以佛慈悲爲本也] 慮致祖羞[移寺而安陵 若不崇飾其寺 則是爲祖先奉佛之羞] 願興佛事 因請芬皇寺僧崇唱[寺在國城

西 今猶完在也] 以修奉梵居之旨 白于佛復遣金純行 以隆宣祖業之誠 告于廟 詩所謂愷悌君子 求福不回[愷悌樂易也 回 邪也 言文王之求福 修德以俟之也 不爲回邪之行以要之也] 書所謂上帝時歆 下民祇協[書 微子命 註云 歆 饗也 協合也]故能至誠冥應 善欲克從 卿士大夫與守龜協 [龜協 中庸云 國家將亡 必妖孽見著龜 註 著所以卜也] 赫赫[高明顯盛貌]東國 而君臨之 爰遣陪臣[諸侯之臣 於天子 爲陪臣] 告終稱嗣 [憲安王薨景文王嗣位也] 遂於咸通六年[唐懿宗年號] 天子使攝御史中丞胡歸厚 以我鄉人前進士裴匡 腰魚[金魚袋]頂豸[豸音池 一名神羊 似鹿而一角 生于北荒 楚文王好服豸冠 漢爲法冠 御史冠也] ○ 堯時 有一雙獬豸立於階下 善者入之 則引之 不肖者入之 則觸之 死 葬於殿之左矣 生朱草 長一丈 小人入則指之 故後世取 豸爲臣冠也] 爲輔行[副使]與王人[官名]田獻鈺 來錫命 曰自光膺 [光 先王之光 膺 服膺也]嗣續 克奉聲猷[天子聲教] 俾彰善繼之名[善繼其志 善述其事] 允協至公之舉[非王子弟 而以仁善承位 故曰至公] 是用命爾爲新羅國王 仍授檢校太尉兼持節充寧海軍使 向非變齊標秀 至魯騰芬[孔子云 齊一變 而至於魯 魯一變 而至於道也] 何以致鳳筆[指上詔書] 而寵外諸侯[指上新羅王也] 降龍旋 [指上持節] 而假大司馬[指上寧海軍使]之如是矣[鳳筆 筆柄雕鳳 龍旋 旋上畫龍故也] 亦既榮沾聖澤 必將親拜靈丘[先王陵] 肆以備千乘之行 [天子萬乘諸侯千乘] 奚翅[翅 音也]耗十家之產 [漢文帝欲作露臺 召匠計之 直百金 上曰 百金 中人十家之產 乃止] 遂命大弟相國[追奉尊諡惠成大王] 致齊清廟[祀堂] 代謁玄扃[陵也]懿[大也 美也]乎雞樹[雞林] 揚蕤[蕤音唯 草木華垂貌] 又孫氏瑞應圖曰 王者禮備至則蕤蕤生于殿前 鶴原挺茂[詩常棣 註 鶴鶴行 則首尾相接 喻兄弟急難相救] 歲久而永懷耕象[陵龜蒙曰 世謂舜田于歷山 象爲耕 鳥爲耘 吾觀象行 必端而必深 法其端深 曰象耕 鳥之啄食 務疾而畏奪 法其疾畏 故曰鳥耘 非眞象鳥耕耘] 時和而罷問喘牛[漢丙吉爲相 出逢羣鬪者 死傷橫道 吉過之不問 前逢人逐牛 牛喘 使史問曰 牛行幾里矣 謂前後失問 吉曰 民鬪傷殺 京兆尹 職當禁捕 宰相不親細事 非當於道路問也 方春牛喘 恐陰陽失和 宰相職司變理 是以問 人以爲吉知大體也]藻野擣川[文選云 靚粧藻野 衺服擣川 或曰 當作擣野藻川 言耘擣於野 采藻于川] 東者如雲 乃有鮐背之叟[鮐音台 鮐背 老人氣衰 皮膚消瘠 背若鮐魚 故曰鮐背 釋名 九十曰背鮐 見字彙] 鵠眉之僧[眉之皓白 如鵠眉之白也] 扞[扞音便 拊手也] 列子老幼喜躍扞舞] 手相慶 大相賀曰 貴介弟[左傳 伯州曰 王子圍寡君之貴介弟 介 大也]之是行也 聖帝[懿宗皇帝]之恩光著矣[著者八域皆聞故也] 吾君之孝理成焉[理 道也 孝理成者 榮鬱光先故]禮義鄉風 綽[綽音作 寬貌]有餘裕[裕 寬意也] 遂使海波晏[晏 安也 柔和貌也] 塞塵清[干戈息靜 王克寧海軍使重任故] 天吏均 [受命于天 謂之官吏 淮南子曰 四時者 天之吏也 吏卽四時也 言四時順行 天無烈風淫雨] 地財羨[羨音衍 餘也] 則乃踵[繼也]修蓮宇[寺也] 威護柏城[陵也] 今也其時 捨之何俟 於是孝誠旁達 思夢相符[晝思夜夢相符] 乃見[現也]聖祖大王[元聖王] 撫而告曰 余而[而 汝也]祖也 而[而 汝也]欲建佛像 飾護予陵域 小心翼翼[詩云 維此文王 小心翼翼 翼翼 恭慎貌] 經始勿亟[詩云 經始勿亟 庶民子來 註 經度也 亟 急也 言臺之經度始役 王言勿急 而庶民子來而作也] 佛之德予之力 庇爾躬 允執厥中 天祿永終[論語云 堯曰 咨爾舜 天之曆數在爾躬 允執厥中 四海困窮 天祿永終 舜亦以命禹 書云 舜命禹曰 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云云 至永終 參看銘中德符命禹以上註] 旣而韻耿銅壺[漏壺也] 形開玉枕[莊子 其寢也魂交 其覺也形開] 不占十輝[春官掌十輝之法 以觀妖祥 輝謂日傍之光 一曰侵 陰陽相侵 赤雲爲陽 黑雲爲陰 二曰象 如赤鳥 三曰鑄 日旁雲氣刺日 四曰監 赤雲在日傍 如冠珥 五曰闇 日月食也 六曰營 日月無光 雲氣貫日而過 八曰叙 雲氣次序如山 九曰躋 升虹也 十曰想 雜氣形象] 若佩九齡[禮記云 文王謂武王曰 汝何夢矣 夢帝與我九齡 西方有九國 君王其終撫 文王曰 我百 爾九十 吾與爾三焉 文王九十七終 武王九十三終] 遽命有司 虔修法會 華嚴大德釋決言 承旨 於當寺 講經五日 所以申孝思而薦冥福也 仍下教曰 不愛其親經所戒也[卽孝經]無念爾祖 詩

寧忘乎[詩云 無念爾祖 寔繁有徒]睠言在藩[小雅云 睠言顧之 註 睠 反顧也]有欲修寺 魂交[在夢時]致感 瘁慄[瘁音甚 感寒體戰也 慄 悚縮也]衿靈[心神也 既愧三年不蜚[楚莊王三年不政 伍舉曰 有鳥在阜 三年不飛不鳴 是何鳥也 曰 飛將衡天 鳴將驚人也]深思一日必葺[葺音緝 茨也 又修補也]百尹[尹 治也 猶言百官]御史 謂利害何 雖保無賣兒貼婦之譏[宋明帝以湘東舊宅爲寺 謂何尙之曰 此是朕之大功德 散騎常侍虞愿對曰 此是賣兒貼婦之錢 佛若有知 必當悲愍 何功德之有 註 貼 以物爲質 言徭役繁重 民不能供 故或賣兒質婦 以當役錢]或慮有鬼怨人勞之說[秦築長城 鞭撻民丁 役使鬼神 民作魚游河曲 鬼有怨恨之聲也]獻可替否 爾無忽諸[替 廢也 否 非也 忽 輕也 諸 語辭]宗臣繼宗勛榮以下 協議上言曰 妙願感神 慈靈現夢 誠因君志先定 果見衆議僉同 是寺也成 九族多慶 幸值農隙 請興籽工[籽音子 治木器 又木工也]爰用擇人龍[馬爰謂宋織曰 人中之龍]於建禮仙門[摩詰詩 建禮高秋夜 註 建禮 門名 蓋禮曹門也]舉僧象於昭玄精署[僧之持律院也]乃命宗室三良 曰端元 毓榮 裕榮 與釋門二傑 曰賢諒 神解 及贊導 僧崇唱等 督其事 且國君爲檀越 [梵云檀 此云施 越是唐語 言行施越苦海]邦彥[爾雅云 美士爲彥]爲司存 [存 在也 司而在者 卽有司也]力既有餘 心能匪懈 將俾小加大 豈宜新聞舊 然恐沮 檀溪宿願[梁武帝 伐竹木 沈檀溪 積茅如岡阜 立願云 事若成 則當以此材 建立伽藍 竟得如意]不暇[與無乃同]傷 苑前功[西域 有中虛 樹 女子從中而出 王取而爲后 建寺於其地 號 苑] 選掇故材 就遷高 [掇音徹 入聲 拾也 採也 音陟 基址]於是占星揆日[詩云 定之方中 作之楚宮 揆之以日 作之楚室 註云 是占星之意也]廣拓[拓音尺 開也]宏規 合土範金[造作器用 見禮運]爭呈妙技[呈 視也 露也 技 材也]雪梯[雪 當作雲 公輸般爲楚 造雲梯攻宋 墨子拒之 出墨子]而僱材架險[僱 黃帝時巧匠名]霜塗[霜 白也塗土也]而 堊[古之土工 堊 白土也]黏香 [黏 着也 言以香和土而塗之]廡巖麓[廡音燭 斬也 麓 山足]而培垣[培 加土也]壓溪流而敞戶 [敞高曠也]易荒階以鈿砌[鈿音口 金飾也 言砌石之隙 以鉛錫而鑄飾]變卑廡以瑠廊[瑠 雕飾也]複殿[上下皆殿]龍盤 中以盧舍那[毗盧舍那佛之略稱 實無異於釋迦牟尼]爲主 層樓鳳峙[峙與峙同 屹立貌 樓若鳳之屹立]上以修多羅[修多羅 梵語經典之意]爲名 高設鯨桴[張衡東京賦 撥鯨魚鑿牢鍾 註 海岸有獸 名蒲牢 其聲如鍾 性畏鯨 見鯨輒吼 故鑄鍾 以蒲牢爲首 桴則像鯨而擊之]對標鸞檻[畫鸞於檻]綺井[綺井者 卽藻井也 畫芰荷水草以覆之 所以避火 乃井上板子]華攢[攢 族聚也]而 鞞[鞞音狎 鞞音變 花相次比貌 何平叔景福宮賦云 紅葩 鞞]繡栴[栴 樑上柱 又說文 屋桷上樑也 卽樑上短柱 承屋脊者]枝擁[擁 衛也 羣從也]而杈枒[杈枒音叉耶 杈木交枝 枒木無枝 言栴栴相接 齒牙相入]聳翼如飛 回眸必眩 其以增崇而改作者 有若眸容[佛也]別室[景堂 別於正殿與僧寮也]圓頂[僧也]蓮房[蓮之爲物 一房百子 故喻僧之一舍羣居]揣食 臚堂[揣 度也 量也 臚 朱子曰 音奕 熟也 卽食堂也]晨炊 屋[廣也 卽今香積殿]加以雕礪磬 虹[礪音弄 磨也 磬音敬 盡也]彩曩[曩音廓 丹中之善者 多出衡山]窮精 巖洞共清 烟霞相煥 玉刹[法堂上左右白竿]掛蓬溟之月 兩朶霜蓮 金鈴激松澗之風 四時天樂 就觀勝槩 傑出遐陬 左峯巒則雞足挈雲[三峯特秀 如雞足之倒立 挈牽引也]右原隰則龍鱗[隰音濕 阪下隰也 公羊傳云 上平曰原 下平曰隰 遠視隰 則如龍鱗之閃日]閃日[文選云 龍鱗閃日 又云 疆域綺錯 原隰龍鱗云云]前臨則黛[字書云 山色青黑者 謂之黛]列鯢嶠[鯢音地 又言弟 魚名 頭大尾小也 言山形上大下小 如鯢魚形也 有云 鯢魚腸大着地 而背青黑色 山形如之也 嶠 山也]師睇 [睇音弟目小視也]則鉤連鳳岡[傍有飛鳳山故]故得遠而望也 峭而奇 迫而察也 爽而麗 則可謂樂浪[本是四郡之一 慶州亦嘗稱樂浪]仙境 眞是樂邦 初月名山 便爲初地[十地中初地也 地有生成 住持四義]善建而事能周匝[匝 周也 遍也]○寺與陵俱修也 勤修而福不虛捐 必謂大庇仁方 上資寶壽 罩[罩音朝 壓也]三千界[言統合三千世界]爲四境 籌五百歲爲一春[人間五百歲 四天王一晝夜 卽上資寶壽者 卽彼天壽也]豈期獵豹樊岑[山名 似是樊山 而未可詳之]方歡豎尾[叢譜符命篇云 孫權獵

豹樊岑 有老嫗問曰 今日獵何獸 曰得一豹也 嫗曰 何不豎尾 因忽不見 因立神嫗廟 註云 豎尾者 何不立太子乎 跨龍荊岫 荊山 遽泣墮鬚 黃帝鑄鼎於荊山下湖水上 鼎成 龍至 帝及羣臣宮女七十二人 乘龍上天 百姓攀龍鬚 鬚絕 帝墮弓 百姓抱弓號泣 喻景文王昇遐 ○ 輦佛既勤 豈期至此乎 獻康大王 景文王太子 德峻妙齡 神清遠體 仰痛於寢門問豎 文王為世子時 王季有疾 則雞初鳴 就寢門 問候於宦豎 俯遵於翼室宅宗 宅 居 宗 主 蓋帝王居喪 則不居正殿 徙居翼室 為居憂之宗主也 滕文公盡禮居憂 滕文公為世子 使然友問居憂之禮於孟子 極盡死葬之禮 終能克己 克除私欲 楚莊王侯時修政 其實驚人 楚阜之鳥 三年不飛不鳴 飛將衝天 鳴將驚人之語 矧復性襲華風 躬滋慧露 佛法也 抗 舉也 尊祖之義 激歸佛之誠 中和 唐僖宗年號 乙巳年秋 教曰 善繼其志 善述其事 永錫爾類 在我而已 先朝所建鵠寺 宜易榜 為大崇福寺 其持經開士 蒙疏 大心始開 提綱淨吏 即維那執綱紀者也 南畝以資供施 一依奉恩故事 武烈王為眞智王追福所建 其故波珍煊金元良所捨地利 輸轉非輕 納三寶為寺 宜委正法司 糾正僧法之司 別選二宿德 編籍為常住 薦祉于冥路 則有以見居上位 王位者 無幽不察 結大緣者 金元良 有感必通 自是梟鍾 考工記 黃帝命梟氏造鍾 吼沈寥 沈音穴 宋玉九辨 沈寥兮天高 註 沈 曠蕩也 寥 空也 龍鉢 檀經云 曹溪寶林寺前潭中 有一龍常出沒 現形甚巨 師叱之曰 爾不能現小身耶 龍乃小身躍出 師展鉢曰 爾入老僧鉢 龍乃入鉢 師至堂 為龍說法 龍乃蛻去 故云龍鉢耶 又龍所獻鉢 飲香積 維摩經云 淨名居士過上方四十二恒河沙世界 至香積世界 借一鉢飯 供養一萬文殊 唱導則六時玉振 孟子註云 八音 金木土絲竹匏革石 擊金而始之 始條理也 後擊磬收之 終條理也 磬是玉也 修持則萬劫 具云劫波 此云時分 珠聯 持戒之法 如聯珠而不絕 偉矣哉 得非尼父所謂無憂者 其惟文王 父作之 子述之者耶 父王季 子武王 慶曆 唐代無慶曆年號 或唐曆 亦似未瑩 景午 僖宗光啓二年丙午 丙字 高宗諱 故改丙為景 年春 顧謂下臣曰 禮不云乎 銘者自名也 以稱其先祖之德 而明著之後世 此孝子孝孫之心也 先朝締構 劫寺之初發大誓願 金純行與若 汝也 父肩逸 嘗從事於斯矣 銘一稱而上下皆得 吾與汝俱得孝子之心也 爾宜課銘 課 造也 又屬辭記事曰 撰 銘名也 名記其功也 臣也浪跡星槎 杜詩註云 漢張蹇乘槎 泝河源 至一處而見一丈夫牽牛一美女織錦 問曰 此何處也 女授一石曰 問于城都嚴君平 蹇還如言問之 君平曰 此是織女支機石 某年月日 客星犯牽牛 其時爾應到彼也 此喻入中國也 偷香月桂 東坡詩註云 月中有桂 高五百丈 衆仙於中傲戲 下有一人 常斫之 則吳剛也 言偷香者 孤雲即入唐登甲科 虞丘永慟 家語云 孔子至虞丘 聞子阜哭甚哀 問其故 對曰 樹欲靜而風不止 子欲養而親不待 遊宦列國 既歸而親沒 故哭之云 季路徒榮 家語云 子路少時 為親負米 及親沒仕楚 歎曰 雖列鼎而食 累茵而坐 雖欲為親負米 其可得乎 言孤雲親沒 徒榮也 承命震驚 撫躬悲咽 昔於乘桴之時 父有嚴訓 今於還錦之日 父不待養 季路子阜 實與我千古同情 況有君命 及於父事心驚淚咽 無地措躬 竊思西宦日 嘗覽柳氏子珪 江南人 錄東國事之筆 所述政條 莫非王道 今讀鄉史 完是聖祖大王 即元聖王 朝事蹟 抑又流聞 流聞 傳聞也 禮王制 千里之外曰流 遠聞也 漢使胡公歸厚之復命也 飽採風謠 指吾邦漢詩 白時相曰 自愚已往 出山西者 漢書云 山東出相 山西出將 故烈士武夫 多出涼州 不宜使海東矣 何則 雞林多佳山水 東王詩以印之而為贈 賴愚嘗學為綴韻語 強忍愧 之不爾為海外笑必矣 君子以為知言 東國之行王道 右文學 中國人習知之 是惟烈祖以四術開基 武烈大王春秋統合三韓 以忠愛無私 用賢簡能 四術開基 先王以六經 詩 書 易 禮記 春秋周禮 化俗 豈非貽厥之力 書 貽厥孫謀 貽 遺也 能得煥乎其文 則銘無愧辭 世說云 貽邕曰 吾為人作銘 常有慙容 惟為郭有道碑銘 無愧耳 筆有餘勇 言若使我贊揚四術六經之化 則無愧於心 有勇於文 遂敢窺天 以管窺天 酌海 傾蠡酌海 始緝 繼續 凡詞 誰知墜月摧峯 獻康王薨 如月墜山崩 俄興永恨 旋遇定康大王 景文之子 獻康之弟 功成遺礪 遺 餘也 礪 石砥也 言前人礪砥 後人亦磨 以成其功 喻定康大王亦成獻康之餘業也 韻叶吹簾 伯氏吹塤 仲氏吹簾 比兄弟皆得王位

也] 既嗣守丕圖[王業也 丕 大也] 將繼成遺績 無安厥位[書 伊訓文 其云 無輕民事 惟難 無安厥位 惟危也] 未喪其文[喪終也] 而遠逐日弟兄 遽值西山之影 高憑月妹妹 永流東海之光[說文 東王以日爲兄弟 以月爲姊妹 又春秋感精符曰 人主 父天母地 兄日妹月也 今定康遠逐獻康兄之日 而共作西山之影 言其死也 死而無子 傳於眞聖妹 則是憑月流光也] 伏惟大王殿下 [眞聖女主] 瓊萼聯芳[萼音謬 詩註云 華下有萼 萼下有跗 華萼相承覆 猶兄弟相順而榮顯意也 唐玄宗兄弟五人 作華萼聯芳樓] 璇源激爽[王者本系之譜尊稱爲璇源也] 體英坤德[相合無間曰體 草之秀者曰英 質英合坤之德] 纘懿天倫[纘音鑽 繼也 懿 美也 言繼美之天倫] 諒所謂懷神珠[諒音亮 信也 卽八歲龍女懷方 成佛也] 鍊彩石[事文類抄云 昔 女媧鍊五色石 補蒼天缺 斷鰲足 以立四極 其後 工共氏 與顓頊爭爲帝 怒而觸不周山 天柱絕 地維斷 故天傾西北 日月星辰就焉 地不滿東南方 故百川歸焉] 有虧皆補 無善不修 故得寶雨金言[寶雨經云爾時 東方有一天子 名曰月光 乘五色雲來 詣佛所退坐一面 佛告天子言 我涅槃後 最後時分 第五百年中 法欲滅時 汝於此瞻部洲 東北方摩訶支那國位居阿鞞跋致 實是菩薩 故現女身爲自在主 經於多歲正法治化 養育衆生 建立塔寺 常修梵行 名曰日月爭光天子 爾時月光天子 從佛世尊聞受記已退坐一面 註云 摩訶 此云大 支那 此云東震阿 鞞跋致 此云不退轉] 焯然授記 大雲玉偈[通載云 唐中宗文明元年甲申七月 沙門十輩詣闕 上大雲經 盛稱則天當卽宸極 則天大悅 頒經于天下郡國 各建大雲寺 九月 則天革唐稱周則天皇帝 比眞聖女主也] 完若合符 且以文考成佛宮 康王施僧供 已峻琉璃之界[寺也] 未刊琬琰之詞[曲禮 典瑞現圭 以治德結好 註 琬圭九寸 纘以象德 琬猶園也 琰音鹽 說文云 壁上起美色 又圭之銳上者] 申命瑣才[瑣 玉屑 言才少也 申 重也 先王既命今王重命之] 俾搖柔翰[翰 筆也 柔 無力也 言不如長杠巨筆也] 臣雖池慚變墨[羲之洗硯 池色變黑] 而筆忝夢椽[忝辱也 王珣 字坦之 夢 人與大筆如椽 人曰 當有大手筆 如言] 竊比張融不恨無二王之法[齊張融善草書 高帝曰 恨卿無二王書法 答曰 臣非恨無二王法 亦恨二王無臣法 二王 羲之獻之] 庶幾曹操或解有八字之褒[邯鄲淳撰曹娥碑云 孝順第一 曹娥碑 蔡邕陰題云 黃絹幼婦外孫蕤曰 曹操解 設使灰撲填池[漢武帝鑿昆明池 得灰 問東方朔 不知 藏之府庫後有西來胡僧曰 此乃天地撲滅時 劫灰也] 塵飛漲海[列仙傳云 麻姑自言 見東海三爲桑田 向到蓬萊 水又淺於往者 豈將復還爲陵陸乎 王方平曰 聖人皆言 海中行復揚塵也] 本枝蔚矣 齊若木而長榮 [淮南子曰 灰野之山 有樹 名曰若木 日入處也] 豐石[豐厚也 石碑也] 巋然[巋音奎 獨貌 莊子云 巋然有餘] 對沃焦而卓立[十住毘婆娑云南海有石 其名沃焦 萬流至此皆焦 故海水不增 取久遠之義] 齋誠拜手[首至手而不至地也 出書註中] 投涕[思先王之命 自然流涕] 援毫 追蹤華[蹤迹之華麗也] 而獻銘曰 迦衛慈王[具云迦維衛 此云赤澤也] 嶠夷太陽[嶠夷 曰出處] 現于西土[西土佛生處] 出自東方[東方 日出處] 無遠不照[日也] 有緣者昌[佛不度無緣衆生也] 功崇淨刹 福蔭冥藏[陵也] 烈烈英祖[元聖王] 德符命禹[指大舜] 納于大麓[舜典云 納于大麓 烈風雷雨弗迷 註云史記曰 堯使舜入山林川澤 暴風雷雨 舜行不迷] 奄有下土[天下也] 保我子孫 爲民父母 根深桃野[東方] 派遠桑浦[東海] 蜃紉龍輻[蜃似蛇而大 蜃紉 謂其長如蜃也 輻 喪輿也 龍輻 謂喪輿之上刻畫爲龍也] 山園保眞[莊子云 已返其眞 而我猶爲人猗 案古人指死而無分別 謂之眞無分別 謂之眞無分別者 體魄是也] 幽堂[墓也] 關隧[墓道也 上有負土成墳 傍掘地通道 以納棺也] 聳塔遷鄰[移寺] 萬歲哀禮[陵也] 千生淨因[寺也] 金田厚利[寺也] 玉葉長春[聖子神孫謂之玉葉] 孝孫淵懿[淵 深 懿 美] 昭感天地 鳳翥龍躍[說文云 飛舉也 言子孫如鳳飛龍躍也] 金圭合瑞[此二句 言子孫英傑 世世顯榮 金圭 諸侯所執之信 圭 上圓下方 瑞 信也 五等諸侯 各有所執 公執桓圭 侯執信圭 伯執躬圭 子執穀璧 男執蒲璧也 言以王之金圭 符合于天子之冒 周禮 天子執冒 以朝諸侯 冒 鎮圭也 以德覆冒天下] 乞靈不昧 徼[徼音要 求也] 福斯至 欲報之德[先祖之德] 克隆法事[造寺] 妙選邦傑[俗三良 僧二傑] 巖敦國工[工 匠也] 伺農之隙 成佛之宮 彩檻攢鳳 雕樑架虹 繚[繚音了 纏也] 墉[墉 垣

也] 雲羸績[績音會 五彩以畫]壁霞融 盤基爽塏[爽 高明也 塏 高燥也]觸境蕭灑 藍岫交聳 蘭泉 [味甘香也]迸瀉 花妮[美也]春巖 月高秋野雖居海外 獨秀天下 陳稱報德[陳後主 爲高祖創報德寺] 隋號興國[隋文帝創興國寺] 孰與家福 興之國力 堂聒妙音 廚豐淨食 嗣君[定康王]遺化 萬劫無極 於鑠媧后[詩云 於鑠王師 註云 於 歎歎 鑠 盛也 媧后 眞聖女君] 情敦孝友[孝於父母 友愛於兄弟也] 致嫩雁行[嫩與美同 雁飛有次第 故比兄弟也] 愼徽龍首[愼脩也 徽美也 龍首 指陵上也] 詞惡腐毫[惡音六 慚也 毫 筆 腐 謙辭] 書慚掣肘[掣引也 肘 臂節也 說苑云 魯使宓子賤爲單父宰 子賤恐魯君聽讒而不得便其政請於魯君之近史善寫者 俱與之官 使之寫書 傍坐 掣其肘 書醜則怒 更欲善書 則又掣 書者歸告魯公 魯公不會其意 問于孔子 孔子曰 不齊 君子也 意者以此爲諱乎 公悟以從之單父大治也 ○ 不齊 子賤之名也] 鱸壑雖渴[鱸壑 鱸魚所在之壑卽東海也 鱸音秋 長千餘丈 入穴則潮水退 出穴則潮水進] 龜珉不朽[珉美石 卽龜上所堅之碑也 世傳言 龍生九子 不成龍而各有所好 一曰鼉 形似龍而好負重 故碑下趺是也 二曰螭 形似獸 性好望 故今之屋上獸頭是也 三曰蒲牢 形似龍而好吼 今之鍾上紐是也 四曰狻猊 形似虎 有威力 故立于獄門是也 五曰饕餮 性好飲食 故立于鼎蓋是也 六曰 性好水 故立于橋

### 신라국 초월산 대승복사 비명 및 서 (해설)

신은 듣자오니 “왕자께서 선조의 덕을 기본 삼아 후손의 법을 높임에 정치는 인으로써 근본을 삼고 예법은 효도로써 으뜸을 삼는다” 하옵니다. 그 인으로는 대중 건져주는 정성을 다 하고 효도로는 아버지 높이는 법도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치우침이 없는 것을 하범에서 본받고 끊어지지 않음을 주시에서 따라야 하나니 조상의 덕을 이어받아 닦음에는 피따위의 비방 받음을 없애며 제사함에는 마름따위의 제수 올림을 깨끗이 하여 은혜로운 덕택은 못 사람에게 고루 미치고 덕의 향기는 높은 하늘에까지 멀리 사무치게 하나이다. 그러나 마음을 수고롭게 하면서 더위 먹은 사람에게 부채질하며 죄인을 보고 우는 것이 어찌 못 중생을 크게 미혹한 데에서 건져주는 것만 하겠으며 힘을 다하여 하늘에 짝하고 상제께 제사함이 어찌 높으신 혼령을 항상 즐거운 곳에 받드는 것만 하겠습니까.

구친에게 잘 화목함이 진실로 삼보를 받들고 높이는데 있는가 하옵니다. 하물며 이 옥 털의 빛이 비추는 것과 금 입에서 계송의 흘러 퍼지는 것이 서역의 생령에 만 한하지 않고서 먼저 동방 세계에 미친 것이겠습니까?

곧 우리의 태평 승지는 성질이 유순함에 있고 기운은 발생함에 한합니다. 산과 숲에는 고요히 닦는 무리가 많아서 인으로써 벗을 모으며 강과 바다에는 조종하고 싶어함과 같아서 착함에 순종하는 것이 물의 흐름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군자의 풍도를 드높이고 범왕의 도덕에 져는 것이 마치 진흙이 옥새를 따르고 금이 불리는 틀에 있어 만들어짐과 같나이다.

임금님과 신하는 뜻을 삼귀에 밝히고 관료와 서민은 정성을 육도에 기우리며 나아가서는 국성까지도 아낌이 없어서 능히 탐묘를 많이 세우셨나니. 비록 남섬부주의 바닷가에 있으나 어찌 도술타 천상에 부끄러우리오. 못 미묘하고도 미묘한 것을 무엇으로 다 말하겠습니까?

금성의 남쪽 일관의 산 기슭에 승복이라는 절이 있사운데 이는 옛 임금께서 왕위를 계승하시던 첫해에 열조 원성대왕의 원능을 받들고 명복을 빌기 위하여 세웠던 것입니다.

이에 옛 절의 유래를 상고하며 새 절의 만들어짐을 살펴 봄건대 곧 옛적 파진손인 김원량은 소문왕후의 원구며 숙정왕후의 외조부였습니다. 몸은 비록 귀공자였으나 마음은 진실로 참 옛사람인지라 처음엔 사안이 동산에서 마음껏 즐기듯이 노래하는 집과 춤추는 관을 의젓하게 세우더니 종말엔 혜원이 서경에 뜻을 두듯이 그를 버리고 불전과 경대를 만드니 그 당시의 봉관 곤현 이었던 것이 이 날에 금종과 옥경이었습니다. 때를 따라 변하여 고쳐진 것은 출세의 인연이며 절이 생기게 된 것이 었습니다.

바위에 따오기 모양이 있거늘 그로 인하여 현판을 만들어 앙려로 하여금 길이 값지게 하고 안전으로 하여금 더욱 빛나게 하였으니 곧 저 바라월의 표형과 굴린차의 기호라도 어찌 천리에 나는 것으로 견주어 말하며 쌍림의 변한 것으로 표제함과 같으리까!

다만 이 땅은 위력이 측두보다 낮으나 덕은 용이 보다 높으며 금계를 마련할 만하고 옥전이 세워질만 합니다.

정월 무인년 겨울을 당하여 능 모시는 일을 칙명하시니 산으로 인하여 이에 명령하셨으나 땅을 선택하기가 더욱 어렵기에 이에 절에다 비전을 봉안하려 하였습니다. 그 때에 의아하는 이가 있어서 말하되 “옛적에 유씨의 사당과 공자의 집도 오히려 차마 무너버리지 아니했기에 지금까지 사람들이 그를 칭송하거늘 지금 금지를 뺏으려고 하니 수달다의 크게 회사하는 마음을 버림이 아니겠느냐.

명장이란 땅은 돕는다고 하나 하늘은 허물하는 바이니 타당치 않다고” 고 하거늘 집정자는 의논하여 말했습니다.

“법묘란 있는 곳마다 반드시 교화되며 가는 곳마다 꼭 적응하나니 그러므로 능히 재앙의 티를 변화시켜 복된 장소로 만들어서 백억 겁 동안 그 험난한 세속을 제도하는 것이요. 영수란 아래로는 땅의 맥을 재고 위로는 하늘의 마음에 맞추어 반드시 사상을 구원에 포괄하여 천백 대 동안 그 끼친 복을 보전하는 것이다. 법은 머무르는 모양이 없고 예는 이루는 시기가 있나니 땅을 바꾸어 모심이 하늘의 이치에 순응함이라. 다만 청오와 같이 잘 본다면 어찌 백마로 하여금 슬피 울게 하리요.

또 살펴 보건대 이 인사는 본래 철기에 예속 되었나니 진실로 낮음을 버리고 높은데에 나아가며 옛절을 버리고 새로운 왕능을 꾀하여 깊숙한 묘로 하여금 바다 나라의 웅장한 데에 웅거하게 하고 청정한 사찰로 산수의 아름다움을 차지하게 한즉 우리 왕실의 복이 산이 높아 질 것이며 후문의 덕의 바다가 잘 흐를 것이라” 하였으니 이야말로 “알면 못하는 것이 없고 각기 제 자리를 얻게 함이라” 하겠습니까.

어찌 정나라 자산의 작은 은혜와 노나라 공왕의 중지하므로 비교하여 같다고 말하겠습니까! 으레 거북과 시초에 물어서 맞아 따르게 되면 용과 귀신의 기쁨함도 보게 되리라 하여 이에 정사를 옹고 현궁을 창립하는 두 일이 진행되고 온갖 기술진이 일을 마쳤습니다.

그 절을 옮겨 세울 적엔 인연 있는 대중이 서로 모여와서 옷소매를 펼쳐 놓아도 바람이 일지 않고 송곳 꽃을 땅이 없을 정도로서 무시가 오리에까지 연하여 나오는 것이었으며 설산이 한 때에 모여 이루어졌습니다.

그 기와를 걷고 서까래를 빼내며 경전을 받들고 불상을 모심에 번갈아 소로 주고 받들며 다투어 정성을 다하여 이루었나니 역부들의 분주하던 발걸음도 쉬게 되고 석자들의 편히 있을 곳이 이미 마련되었습니다.

그 구원을 성취함엔 비록 왕의 국토라고 하나 공전이 아니기에 그 봉분에 가까운 땅을 검토해 보고 값이 높은 땅을 구하여 구농 이백여 결을 더하고 곡식 이천점을 주며 또 유사와 왕도의 군읍에 명령하여 함께 가시덤불의 길을 딱고 아울러 소나무를 심으니 “쭙쭙한 슬픈 바람 소리 많으매” 춤추는 봉황과 노래하는 난조의 생각을 자아내고 울울하게 백일을 보매 서린용과 걸터 앉은 범의 위세를 돕습니다.

또 그 땅을 보건대 땅은 하구와 다르나 경계는 양곡에 언했습니다.

기수의 남은 행기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곡림의 아름다운 기운이 더욱 무르녹으며 비단 같은 봉우리는 먼 사방에서 서로 조회하고 마전한 배와 같은 개는 한 가닥이 눈 앞에 있었나니 실로 교산이 빼어났고 필맥이 기이하다 하겠으며 금의 가지로 하여금 계림에서 더 무성하게 하고 옥의 줄기로 하여금 접수에 더욱 깊게 하였습니다.

처음 절이 옮겨짐에 있어 비록 솟아나오는 것 같았으나 화성과 같지 않음인지.

가시덤불을 제거하여 산 지형을 찾아냈으며 띠집과 섞인 채로 바람과 비를 피하면서 겨우 칠십팔년을 넘고 어언 아홉 조정을 지나 문득 전복 당했으되 미처 수리하지 못했더니 셋 이익의 수승한 인연이 기다리고 있었으며 천년의 보배로운 국운이 이그러짐이 없었나이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선대왕 께서는 흥저에서 광채가 나리시고 별잠에서 몸이 강탄하시어 이름을 처음 옥녹에 빛내시고 각별히 현풍을 떨치시더니 이윽고 금초에 올라 나라를 밝게 다스리며 용전에 께서 덕을 심고 봉소에 깃드시면서 마음을 깨끗이 하셨나니 말을 내면 어진 이의 사람을 편안케 함이오 정사를 피함엔 이에 도로써 인도함이었습니다.

팔병의 무거운 권세를 모두 쥐고 사유의 떨어진 실머리를 이에 떨치시며 모든 난관을 겪고 시험 삼아 덕의 돌아오는 바가 있었더니 마침 기국들이 근심이 침범하여 왕의 자리가 비어 산악이 흔들리는 것 같은지라 비록 사슴을 쫓아 잡는 언덕은 아니나 역시 까마귀가 모이는 동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질며 유순함으로 하였고 덕과 인으로 하셨기에 백성의 추대하는 바가 되었나니 우리를 버리고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이에 몸을 대저에 두시고 뜻을 자문에 기우르시며 선조에게 부끄러움이 될까 하여 불사를 일으키기를 발원하시고 분황사의 중 승창을 청하여 절을 중수하여 받들 뜻으로써 부처님께 고하고 다시 김순행을 보내어 선조의 업적을 높이고 필정성으로써 사당에 고하셨으니 시전에서 이른바 개제한 군자여 복을 구함이 샅되지 아니하다. 한것이오 서전에서 말한바 상제께서 이에 흠향하시매 아랫 백성이 공경하며 화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능히 지극한 정성이 가만히 감응되며 좋은 희망이 잘 순응되리라 공경과 사대부가 수귀와 함께 합하게 되었고 동국을 빛내어 군림하셨습니다..

이에 대신을 보내어 현안왕의 떠나심과 그 왕위 계승함을 아뢰었더니 드디어 함통 육년에 천자께서 어사 증승 호귀후와 우리 고을 사람 전 진사이었던 배광으로 하여금 허리에 금어를 차고 머리에 해치를 쓰게하고 보행을 삼아 왕인 전현섬와 함께 와서 칙명을 전하여 말하되 빛나게 계승함을 받으므로부터 성유를 잘 받들어서 잘 계승하는 이름을 빛내고 진실로 지공한 추천에 응했나니 이에 당신을 임명하여 신라의 왕을 삼는다 하면서 인하여 검교태위 지절통영 해군사를 주셨으니 전일에 제나라인 것을 변하여 빼어남과 나타내고 노나라됨에 이르러 꽃다운 것을 드날리지 아니했다면 어찌 봉의 붓을 날려 먼 제후를 총애하며 용의 기장목을 내려 대사마에게 주심이 이와 같겠습니까!

이미 성스러운 덕택을 영화롭게 받았으며 장차 영구에 나아가 뵈울것이니 그러므로 천승의 행차를 갖추시었다. 어찌 열집의 재산을 소모함이 있으리오.

드디어 태제 상국을 명하여 청묘에 제사 드리고 현경에 대신 뵈게 하셨나니 아름답고 위대함이어! 계수의 무성함이 나타나고 영원의 번영이 뛰어났도다.

해가오랏수록 가는 코끼리를 길이 생각하게 되고 시절이 평화로우니 험뜰이는 소를 물을 필요 없었다.

들을 수 놓고 시내를 비추우매 보는 자가 구름같도다.

이에 북의 등인 늙은이와 따오기 눈썹인 중이 있어 손벽을 치며 서로 경사로 여기고 크게 기뻐하며 치하하면서 말하였습니다.

“귀하신 개제의 행차여 성스러운 임금님의 은덕이 현저하시며 우리 임금님의 효심이 이룩되었도다” 라고 하였나이다.

예의와 향풍이 풍요하게 여유가 있었으며 드디어 물결이 고요하고 변방의 풍진이 맑아지며 천리가 고르고 지재가 불어나게 되어 이에 연우을 잇달아 중수하고 백성을 잘 보호하시게 되었도다. 지금이 바로 그 시기이니 이 때를 버리고 어느 때를 기다리리오. 이에 효성이 크게 사무치고 생각과 꿈이 서로 부합하여 성조의 대왕을 뵈게 되었나니 대왕께서 어루만지시며 이르시되 “나는 너의 할아버지다. 네가 불상을 세우며 나의 능력을 꾸며 보호하려고 하니 조심하여 일 함에 빨리 하려 말라. 부처님의 덕과 나의 힘이 너를 도와 주리라. 진실로 그 중용을 잡아서 천록을 길이 마치라” 하셨습니다.

이미 정신이 동호에 반짝이고 몸이 옥침에서 열리어서는 심훈에 점쳐보지 않아도 구령을 얻음과 같았습니다.

문득 유사에게 명령하여 정성스레 법회를 베풀게 하시니 화엄대덕인 중 결언이 당사에서 교지를 받들어 경을 오일 동안 강설하였으니 그 효도의 생각을 펴고 명복을 비는 바이었습니다.

인하여 교지를 나리시되 그 어버이를 사랑하고 공경하지 않는 것을 경에서 경계하는 바며 너의 할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으랴 하는 시를 어이 잊으랴.

근년함이 울타리에 있었고 절을 수리하고자 하였는지라 혼이 사귀어 감응이 이루어짐에 송구함이 가슴과 마음에 가득 찬지라. 이미 삼년 날지 않음엔 부끄러우나 하루에 반드시 수리하기를 벌써 깊이 생각했도다.

백윤과 어사들은 이해가 어떻다고 하느냐. 비록 아이를 팔고 부인을 잡힌 비방이 없음은 보장하나 혹 귀신의 원망과 사람의 수고롭다는 말이 있을까 두렵나니 타당하면 실행하고 부당하면 폐지하여 부디 소홀이 하지말라.

종신 계종과 훈영이 이를 발표하여 협의하고 말을 올리되 미묘하신 소원이 신명에게 감응되고 인자하신 신령이 꿈에 나타나심은 진실로 임금님의 뜻이 이미 정해지심이어늘 과연 못공론이 모두 일치되었아오니 이절이 이룩되면 구족이 경사가 많을 것이옵니다.

다행이 농사철이 아닌 때를 당하여 목공들을 불러 드릴새 이에 인룡을 건례선문에서 뽑고 승상을 소현정서에서 천거하되 종실의 셋 어진 이에게 명령하였으니 말하자면 단원.민영.유영이명 석문의 두 호걸에게 맡겼으니 말하자면 현량과 신해였다. 그리고 그 일을 돕는 중송창들이 그 일을 맡았습니다.

또 나라임금님께서 단월이 되시고 나라 선비가 유사가 되었으니 힘도 남음이 있고 마음도 부지런했습니다. 장차 작은 것을 크게 만들려 함에 어찌 새것에다 옛것을 섞이는 것이 좋으리요마는 단계의 옛 소원을 저바릴까 두렵고 내원의 옛 공적을 손상하지 않으려 하여 옛 재목을 골라 추리고 높은 터에 나아가 옹기진 것입니다.

이에 점치고 택일하며 큰 규범을 널리 들어 흙을 조화하고 금을 지어붓으며 미묘한 솜씨를 다투어 보인지라 구름 사다리엔 수인 재목으로 험한데에 얹어 놓았고 서리 바람엔 노의 백토에 향을 이겨 넣으며 바위 산발을 깎아 담을 돋우고 시내 흐름을 메워 창호를 높게 하며 황무한 섬돌을 금테로 장식한 섬돌로 바꾸고 낮은 행랑을 옥으로 조각한 행랑으로 만들었습니다.

겹겹인 전당엔 용이 서렸는데 복판에 비로자나를 주인으로 모시고 층층인 누각엔 봉황이 우뚝 섰는데 위에 수다라로써 이름하였다. 고래등 같은 집 마룻대를 높여 베풀고 난조 같은 난간을 마주 올렸다. 기정엔 꽃을 모아 포개어 수놓았고 주두는 서로 끼어 두가지로 가새목 지은지라 날개를 솟구쳐 날아갈 듯 하니 보는 이마다 눈이 아찔하겠도다.

그밖에 더 높이고 고쳐 지은 것은 부처님 모신 법당과 스님들이 거처할 연방이며 공양하는 식당과 음식 만드는 공수간이었습니다.

더욱 공교로운 솜씨를 다하여 아로새기고 다듬었으며 정력을 기우려 채색하고 단청하였으니 암굴과 골짜기도 따라 맑으며 연기와 놀이 서로 찬란하도다. 옥의 찰간에 봉명의 달이 걸렸으니 두 송이 서리 같은 연꽃이며 금방울에 소나무 간수의 바람에 울리니 사시장철 하늘의 풍류로다.

또 절승한 경치를 보건대 이 먼 모퉁이에서 걸출하였나니 왼쪽의 산봉우리는 닭발이 구름을 찌를 듯 하고 오른쪽의 언덕은 용 비늘이 햇빛에 번쩍이도다. 앞에 임하면 메기 산이 검게 별려 있고 뒤로 돌아보면 봉 뿔부리가 갈구리처럼 연해 있도다. 그러므로 멀리서 바라보면 높고 기이하며 가까이서 보면 상쾌하고 수려하니 가히 낙량의 선경이라 할만하며 참으로 낙방의 초월이었습니다.

명산이 문득 복된 땅으로 되었습이며 잘 건립하여 일이 두루 이룬 것이오 부지런히 닦았음에 복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 반드시 인방을 크게 덮으며 위로 보수를 돕는다 하겠도다.

삼천 세계를 망라하여 넷 경계를 삼으며 오백 세로 한 봄을 삼을 것이운데 번산에서 표범을 사냥하며 바야흐로 꼬리 세운 것을 기뻐함과 형산에서 용을 타매 문득 수염 떨어진 것에 울줄이야. 어이 기약하겠습니까!

현강 대왕은 덕이 젊으신 나이에 높으셨고 정신은 멀리 체달함에 맑으셨으며 침문에서 환관에게 묻는 것을 우러러 슬퍼하시고 익실에 종주로 있는 것을 엿드려 준수하신지라. 동문공의 예를 다하여 복 입음은 마침내 능히 몸을 극복 하십시오, 초장왕이 때를 기다려 정사를 다스림은 그 실로 사람을 놀라게 하십이었습니다.

하물며 또 천성이 중화의 풍도를 따르고 몸이 지혜의 감로에 젖으시어 선조 높이는 도를 받들며 부처님께 귀의하는 정성을 기우르십이라!

중화 을사년 가을에 교지를 나리시되 그 뜻을 잘 계승하고 그 일을 잘 따르면 길이 너와 같은 무리를 주는 것이 제에게 있을 뿐이다. 먼저 왕의 세웠던바 곡사를 마땅히 명칭을 바꾸어 대승복으로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경을 전문하는 개사와 기강을 세우는 정리들이 남쪽에 있는 밭으로써 공양과 보시에 충당하게 하여 한결같이 봉은사의 옛일을 따랐습니다.

그 옛날 파진손 김원량이 회사한바 지리는 운수하여 굴러 온 것이 적지 않으니 마땅히 정법사에 위임할 것이라 하시며 따로 두 숙덕을 선출하여 상주의 물건으로 편입시키고 그의 명복을 빌게 하시니 윗 자리에 있는 이로써 유명까지 살피지 아니함이 없고 큰 인영을 맺은 이로 감응이 있을 때 반드시 통합이 있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로부터 부종은 비고 고요한 데서 울리고 용발엔 향적의 밥을 담으며 창도함에 욱시로 욱이 울리듯 하고 수지함엔 만겁동안 구슬이 연한 것 같나니 위대하여이다! 공자의 이르신바 근심이 없는 이는 그 오직 문왕이신저! 아버지는 창안 하시고 아들은 계승한다는 것을 얻으심이 아니겠습니까.

경력 병오년 봄에 하신을 보시며 이르시되 예에서 이르지 아니했더냐. 명이란 스스로 이름함이니 그 선조의 덕을 칭송하고 후세에까지 밝게 나타내는 것이 효자 효손의 마음이라 하였도다.

선조께서 절을 이룩할 처음에 큰 서원을 발하셨는데 김순행이 그대의 아버지 견일과 함께 일찍이 이 일에 종사하였다.

명이 한번 거행되면 위 아래가 모두 상득하리니 그대는 마땅히 명을 지으라 하셨습니다.

신은 종적이 성차에 유량하여 월계의 향기로움을 도둑 하였으나 우주 에서의 영원한 비룡이오며 계로의 한갓 영화로움 이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받자웁고 두려워 놀래오며 몸을 어루만져 슬피하여 목이 메이나이다.

그윽히 생각하옵건데 서쪽에 가서 벼슬할 적에 일찍이 유자규의 동국일을 기록한 글을 보았아오니 그 서술한 바가 바르고 조리가 있어 왕도 아님이 없었나이다.

지금에 향사를 읽어 보니 완전히 성조대왕 조정의 사적이었습니다. 또 전해진 말을 듣자오니 한의 사신 호귀후가 복명함에 있어 우리의 풍속과 가요를 충분히 채취하고서 당시의 그 승상에게 아뢰었답니다.

우가 다녀온 지금부터 서는 산서에서 출생한 자는 동방에 사신가지 아니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림에는 산수의 아름다움이 많습니다. 동왕이 시로써 격려하며 증여하시거늘 우가 일찍이 운 맞춤과 말하는 것을 배웠기에 억지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화합하였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못했다면 틀림없이 해외에 웃음거리가 되었을것입니다 하니 군자들은 이를 옳은 말이라 한다고 하더이다.

또 공손히 생각하옵건데 열조께서 사술로써 터전을 마련하시고 먼저 임금님께서도 육경으로써 풍속을 교화하시니 어찌 그를 주시는 힘이 아니겠습니까.

능히 그 글에 밝음을 얻으면 명에 부끄러운 말이 없을 것이오 붓이 남아 있는 용기가 있을 것입니다.

드디어 감히 하늘을 엿보며 바닷물을 잔질하여 비로소 속된 말을 엮어봅니다.

달이 떨어지고 산이 무너지매 이윽고 영원한 한이 있더니 문득 정강대왕께서 남긴 솥돌에 공을 이루시며 저를 불음에 운륜이 맞으실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미 큰 왕업을 이어 수호하시며 장차 유적을 계승하여 이루시려고 그 지위에서 안일함이 없으시고 그 글을 마치

지 못하시고 멀리 일제형임을 따르셨다가 문득 서산에 지는 그림자를 만나셨고 높이 월자매에 의하여 길이 동해에 비추는 광채를 발하셨습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데 대왕 전하 께서는 경악이 연달아 꽃다우시며 선원이 심히 밝으신지라 정수한 곤덕을 체득하셨고 아름다운 천륜을 계승하셨나니. 진실로 이른바 신비로운 구슬을 품은 것이오 채색들을 간 것이어서 휴손함이 있으면 모두 보결하고 선을 닦지 않음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보우에서 금 말씀으로 분명히 수기하심인 것과 대운의 옥계송이 완전히 부합됨과 같음을 얻으셨나이다.

또 문고께서 부처님 궁전을 이룩하시고 강왕께서 스님들의 공양을 보살피시어 이미 유리의 세계를 높이셨으나 완연의 말씀을 새기지 못하셨기에 용렬한 재주에게 명령을 나리시어 힘없는 붓을 흔들게 하셨습니다.

신은 비록 못이 먹물로 변함엔 부끄럽고 붓이 서까래 같음엔 욱 되오나 장용이 두 왕씨의 필법 없음을 한탄하지 아니함에 그윽히 비할 것이오며 조조가 어느 때 여덟글자 잘 풀이함을 칭찬함에 가까울 것입니다.

설령 재가 서로 부딪혀서 못을 메우려 먼지가 날아서 바다에 창일할지라도 본 가지는 울창할 것이라 약목과 같이 길이 번영할 것이오 큰 돌 정성을 가다듬고 손으로 절하며 눈물을 씻고 붓을 들어 빛나신 발자취를 추모하면서 명을 올려 말합니다.

가위라의 자비하신 왕은

우이의 거룩한 태양처럼

서토에 나타나시어

동방에서 돋았구나.

먼데를 비추지 않음 없고

인연 있는데는 모두 빛나시니

공이 청정한 절에 높았으며

복이 명장에까지 덮였도다.

열열하신 영조께서는

덕이 명우에 부함 하신지라

큰 산에 들어가심 무난하시고

하토를 문득 두시어

우리의 자손을 보호하시며

백성의 부모 되옵시니

그 뿌리 도야에 깊었고

줄기는 멀리 상포에 뻗으셨습니다.

신불과 용순으로 산원에서 진체를 보호하시며

유당에 묘 길을 만드시고

용담을 가까운 곳에 옮기시니  
만세동안 애모하는 예도와  
천생의 청정한 터전은  
금발의 두터운 이익이며  
옥 잎사귀의 영원한 봄이옵니다.  
효손이 많고 아름다우시여  
빛나게 천지를 감동하셨네  
봄이 날고 용이 뿔이여  
금규가 옥신부에 합했도다.  
신령께 빌으심 흐리지 않아  
복을 맞아들이매 이 이르렀나니  
그 덕 갚으시려고 하여  
법사를 높이 받드셨네.  
나라의 인걸을 잘 선출하시며  
전국의 장인들을 불러 들이고  
농사칠 아닌 때를 틈타시어  
부처님 궁전 이룩하시니  
채색 난간엔 봉황이 모이고  
아로새긴 들보엔 무지개 섰으며  
둘른 담엔 구름이 솟아 오르고  
그림 벽에는 노을이 어리었도다.  
둘레의 터전은 양명하며 조강하고  
보이는 풍경마다 소쇄하며  
푸른 뿔부리는 다투어 솟았고  
향기로운 샘물은 솔솔 흐르도다.  
꽃이 아름답게 핀 봄산이며  
달이 높이 뜬 가을 밤이니  
비록 바다 밖에 있음이나  
홀로 천하에서 아름답도다.  
진에서는 보덕이라 칭하였고  
수에서는 홍국이라 이름했으니  
어찌 집안의 복이라만 하랴  
이 나라의 힘을 높이심이로다

법당엔 미묘한 소리 요란하고  
 정주엔 청정한 음식 풍족하니  
 임금님의 끼치신 덕화 이어받아  
 만겁동안 무궁하오리  
 아! 빛나신 여와 임금님이시여  
 효도와 우애의 정 두터우시어  
 안향의 아름다움 이루시고  
 용수의 정성을 기우르셨네  
 문장 꾸밈은 썩은 붓임이 죄스러우며  
 글씨 솜씨는 팔목 당김이 부끄럽습니다.  
 고래 구렁은 비록 다할지라도  
 거북 옥돌은 썩지 않으리다.

#### 4. 大朗慧和尚白月葆光塔碑

帝唐 [呂氏春秋云 帝者 天下之所適 王者 天下之所往 卽僖宗皇帝也]  
 揃亂以武功 [揃 音前 滅也 左傳云 揃賊而後朝食 言乾符戊戌濮賊王仙芝作亂  
 黃巢應之 高駢李克用等滅之] 易元以文德之年 [景文王女子眞聖王  
 諱曼之二年 戊申] 暢月 [暢月 卽十一月 禮月令曰仲冬  
 命之曰 暢月言萬物皆充於內 註 暢 充也] 月缺之七日 日薰咸池時  
 [薰 古潛字 咸 日入處也] 海東兩朝 [景文王 獻康王]  
 國師禪和尚 [此 云親教] 盥浴已 趺坐示滅 [年譜云 大師滅度 卽唐僖宗  
 文德元年 當新羅景文王女子眞聖王 諱曼之二年 戊申十一  
 月十七日也 自十六日爲月缺之日 卽月缺之七日當爲二十一日 而此云十七日不可詳也]  
 國中如喪左右目 矧門下諸弟子乎 嗚呼 應東身者八十九春  
 [師生於貞元十七年辛巳十二月二十八日午時 卽新羅哀莊王二年  
 自德宗辛巳 至僖宗戊申 年八十九年也 出家於憲宗元和八年  
 卽新羅宣德王五年 年十二也 文宗太和元年丁未三月十五日於京都慧善寺惠照大師處  
 受具足戒 年二十四也 二十四 當改以二十七  
 以此計之 則報年八十八也 又大師沒年 卽唐僖宗文德元年 故服戒者當六二年也]  
 去世三日 倚繩座儼然面如生 門人詢父等 號奉遺體  
 假殮 [殮 音異 殮坎也 釋名假葬于道側曰殮 禮喪大記曰 士殯見衽塗上

註 掘殓以容棺 殓猶坎也 棺在殓中 不沒其蓋云云也]

禪室中 上 [真聖主 文考女康王妹] 聞之震悼 使駛 [馬行疾也 卽驛使也]

弔以書 賻以穀 所以資淨供 而贍玄福 越二年 攻 [治也] 石封層冢

[塔也] 聲聞王京 [慶州也] 菩薩戒弟子 武州 [今之光州]

都督蘇判 [新羅官儀云 級爵 波珍煢三級爵 遏榮四級爵 蘇判五級爵也]

鎰 執事侍郎 [卽今參議] 寬柔 湏江 [平壤大同江也] 都護

咸雄 全州別駕 [漢制 別駕從事吏一人 刺史行部 別乘一乘傳車 故衛曰別駕亦判官也] 英雄 皆王孫也 [此四人皆金姓] 維城輔君德

[左傳曰 懷德維寧 宗子維城 君修德而固宗子 何城如之此 師曠對晉侯之言 詩云 介人維藩 大師維垣 大邦維屏 大宗維翰 懷德維寧 宗子維城 無俾懷城 無獨斯畏也 宗子同姓也] 險道 [卽惡道也 以受戒力免三途也] 賴師恩 [智度論云 諸險道中戒爲橋梁 案 四人依師受戒故云 賴師恩而度險道也] 何必出家然後入室 [升堂入室之義也]

雖未僧而可以爲朗慧弟子] 遂與門人昭玄 [卽昭玄精署 住持律法之司也]

大德釋通賢 四天王寺 [在慶州狼山南麓] 上座 [五分律云 上更無人名上座 毗尼毘論云 從無夏至九夏是下座 自十夏至十九夏是中座 自二十夏至四十夏是上座 五十夏已上 一切沙門之所尊敬故名著宿也]

釋慎符 議曰 師云亡 君爲慟 奈何吾儕忍灰心木舌

[韻府羣玉云 鐸大鈴也 軍法司馬執 鐸金口木舌 文事振木鐸 武事振金鐸 案 灰心 莊子云 心如死灰 言不起心也 木舌 羣玉云 金口木舌 雖未見制度 以木爲舌則其無屈申作用可知 抑取此義而引用耶 蓋木字猶木強木訥之類 應取剛不柔之義 言不開口也] 缺緣飾在三之義乎 [君師父三也 禮記曰 生三事一 國語 欒子曰 人生於三 事之如一 父生之 師教之 君食之 ○ 崔鴻後秦錄姚泓曰 在三之義 不可不重] 酒白黑相應 請贈謚暨 銘垓 教曰可 旋命王孫夏官 [說文天官今吏部 地官今戶部 春官今禮部 夏官今兵部 秋官今刑部 冬官今工部 若以次言 則吏部立於東班之首 兵部立於西班之首 先東後西 爲第二也] 二卿 [第二卿 卽兵部之二卿 如今參判爲判書之亞卿故也]

禹珪 [姓 金也] 召桂苑 [翰林苑也] 行人 [行人 周禮 大行人小行人 卽今通事舍人] 侍御史崔致遠 至蓬萊宮 [真聖王所居宮]

因得並 [並與傍通] 琪樹 [宮廷列植之華樹] 上瑤墀 謁侯命珠箔外上曰 故聖住大師 眞一佛出世 [事文云 唐太宗撥亂 行仁德 一佛出世也]

昔文考 [景文王也] 康王 [獻康王也] 咸師事 福國家爲日久余始克纘承 願繼餘 [當改以余字] 先志 而天不憊遺 [憊 音銀 強也 詩小雅 天不憊遺一老 俾守我王 註 憊者 心不欲 自能強之 辭倦而勉強也]

言皇天不自強留一人 而輔天子也] 益用悼厥心 余以有大行者  
授大名 故追諡曰大朗慧 塔曰白月葆光 [莊子齊物論曰  
注焉而不滿 酌焉而不竭而不知其所由來 此之謂葆光] 嘗西宦 絲染錦歸  
[孤雲傳云 巫峽重峯之年 銀河列宿之歲 錦還東國 言巫峽有十二峯  
比十二入 銀河有二十八宿 比二十八還 中孚子謂予曰 茶山翁云  
年歲二字相換 則腰簾未簾 始合 如此覺非 當代無雙 贊之不已]  
顧文考選國子 命學之 [選入國學以受學] 康王視國士 禮待之  
若 [汝也] 宜銘國師以報之 [報先王待汝不德也] 謝曰 主臣 [主擊臣伏  
惶恐之貌 見史記註] 殿下恕粟饒浮稅 念桂飽餘馨 [粟桂二句皆孤雲自謙辭也]  
俾報德以文 固多天幸 第大師於有為澆世 演無為秘宗  
小臣以有限麼才 [麼 卽么麼 細小也] 紀無限景行 [景 大也]  
弱輶載重 短綆汲深 [莊子云 褚小者 不可以懷大 綆短者 不可以汲深  
褚者布袋 言小不任大] 其或石有異言 [左傳 昭公八年 石言于晉魏榆  
晉侯問於師曠曰 石何故言 石不能言 或憑焉 不然 民聽濫也  
抑臣又聞之 曰 作事不時 怨讟動于民 則非言之物言 而今宮室崇侈  
民力彫盡 怨讟並作 莫保其性 石言不亦宜乎] 龜無善顧 [世  
說云 孔愉嘗至吳興縣餘干亭 見人籠龜於道 愉求買 放之於溪中 龜行至水  
反顧愉 及封此亭侯 而鑄印 龜首回顧 三鑄不正 有似昔龜之顧  
靈德之感如此 愉悟 乃取而佩焉] 決叵使山輝川媚 [陸機文賦云  
石蘊玉而山輝 水懷珠而川媚也] 反贏得林慙澗愧 [北山移文云  
林慙無盡 澗愧不歇 註云 非林澗之愧 是乃周彥倫之愧也] 請筆路斯避  
上曰 好讓也 蓋吾國風 善則善已 然苟不能是 [碑也] 惡用黃金榜爲  
[古制 龍榜 飾以金 虎榜銀 先生以文登第 故曰金榜] 爾勉之  
[縱欲辭避 不可得也] 遽出書一編 大如椽者 俾中涓 [官名宦官]  
授受 乃門弟子所獻狀也 復惟之 西學也 彼此俱爲之 [入中國受學謂西學  
不必指佛法也 心口 亦不必配禪教] 而爲師者何人 爲役者  
[爲師執筆者 卽孤雲自身也] 何人 豈心學者高 口學者勞耶 故古之君子慎所學  
抑心學者立德 口學者立言 [任安書 太上立德 其次立功  
其次立言] 則彼德也 或憑言而可稱 是言也 或倚德而不朽 可稱則心能遠示乎來者  
不朽 則口亦無慙乎昔人 [立德者 太史公與任安書云  
太上立德 其次立功 其次立言 案 昔人者 非謂國師也 通指聖賢以下著書之人  
廣載任安書中 古人著書 不過傳其不朽也 今吾著  
亦得傳其不朽也 推此 則無愧昔人也] 爲可爲於可爲之時 復焉敢膠讓乎篆刻  
始繹 [繹 音亦 繹閱尋究 又尋度也] 如椽狀 則見大師西遊東返之歲年  
稟戒悟禪之因緣 公卿守宰之歸仰 像殿 [法堂] 影堂 [祖堂]

之開創 故翰林郎金立之所撰聖住寺碑 叙之詳矣 爲佛爲孫之德化  
爲君爲師之聲價 鎮俗降魔 [有賊亂 師能降之也] 之威力  
鵬顯 [莊子云 北溟有魚 其名曰鯤 化而爲鵬 齊諧志曰 鵬之徙南溟水擊三千里  
搏扶搖 而上九萬里云云 比大師求法中國] 鶴歸 [杜詩註云  
遼東人丁令威仙去後千載 化爲鶴 止華表柱上 人欲射之 以喙畫地云  
有鳥有鳥丁令威 去家千載今始歸 白骨如山陵谷變 何不學仙塚累累  
比大師歸東土] 之動息 贈太傅獻康大王親製深妙寺 [在今尙州]  
碑錄之備矣 顧腐儒 [自謙之辭] 之今作也 止宜標我師就般涅槃之期  
[音義具云 般利涅槃那 謂般利 善也 究竟也 涅 出離也  
槃那 煩惱結 言諸煩惱絕 普究竟出離] 與吾君崇窣堵婆 [窣堵婆西域記云  
浮圖 又云偷婆 又曰私偷簸 皆訛也 此翻方墳 亦翻圓墳  
亦翻高顯 義翻靈廟 劉熙釋名云 廟者貌也 先祖形貌奉安故也] 之號而已  
口將手議 役將自適其適 [莊子云 是適人之適 而不自適其適也]  
這有上足苾芻 [五義見法數 苾芻曰香草 有五種味 故諡比丘  
亦具此德也 一體性柔輒 二傳法度人 三德行遠聞 四能斷煩惱 五不背佛日也]  
來趣齏白 [蔡邕 題曹娥碑曰 黃絹幼婦外孫齏白 乃絕妙好辭  
而楊修見知 曹操行三十里方知 語及斯意 [指就般涅槃 與崇窣觀婆二意]  
則曰 立之 [指故翰林郎金立之] 碑立之久矣 尙闕數十年遺美  
太傅王神筆所紀 蓋顯示殊遇云爾 吾子口嚼古賢書 面飲今君命  
耳飲國師行 目醉門生狀 宜廣記 [上二碑未盡之 言廣記] 而備言之  
殆貽厥可畏 [論語 子曰 後生可畏] 俾原始要終 [原 察也  
要 求也 易云 原始要終 故知生死之說] 脫 [脫 音太 若也] 西笑者 [說文云  
關東人聞長安樂 則西向而笑 古詩云 還如瞽老望長安 長安在西向東笑  
西笑 往中原也] 或袖之 脫西人 [西人 中原人也]  
笑則幸甚 吾敢求益 子無憚煩 狂奴餘態 [侯霸傳云 嚴光與侯霸書曰  
懷仁輔德天子悅 阿諛順旨腰領絕 霸奏之 光武譏曰 狂奴舊態  
竟不回 註云 狂奴 子陵少時字也] 率爾應曰 僕編苦者 師買菜乎  
[傳又云 侯霸遣侯子道 奉書徵光 光曰 君房素癡 今小差否 天子三徵  
我不見 況大臣乎 光口授使臣書 霸嫌其太小 光曰 買菜乎求益也  
註云 編苦者 常比前欲其短也 買菜者 常求益其小分 編苦 孤雲欲略述之比也  
買菜上足求廣述之比也 諸本或作彩 非是] 遂絆猿心強搖口翰  
[筆也] 憶得西漢書留侯傳 尻 [尾也] 云 良所與上從容言天下事  
甚衆 非天下所以存亡 故不著 則大師時順 [莊子云 適來夫子時也  
適去 夫子順也 安時而處順 哀樂不能入也 註云 夫子 有道者之尊稱也  
言天地之間有道之士 其來 適然而來 其去 適然而去言時順間卽生死間]

間事蹟 犖犖者 [犖 音洛 史天官書此 其犖犖者  
大者 註云 事之明也 又超絕] 星繁 非所以警後學 亦不書 自許窺一斑於班史然  
[黃帝始立史官 蒼頡沮誦居其職 爰及漢世 馬遷班彪班固  
皆得其職之正 故后之作者 皆祖二班之史 然皆窺一斑 未得全豹  
玉篇云 管中窺約 只見一斑云云 出字彙也] 於是乎 管述曰  
光盛且實 而有暉八紘 [四方四維也 淮南子曰 九州之外有八寅 八寅之外有八紘  
東方之紘曰桑野 南方之紘曰反戶 西方之紘曰沃野  
北方之紘曰委羽 東北方之紘曰黃土 東南方之紘曰衆安 西南方之紘曰火正  
西北方之紘曰沙所也 紘 音橫 卽網之有綱也] 之質者 莫均乎曉日  
氣和且融 而有孚萬物之功者 莫溥乎春風 惟俊風 [東風也]  
與旭日 [日初出貌] 俱東方自出也 則天鍾 [聚也 注也] 斯二餘慶  
[春風與曉日也] 嶽降于一靈性 [詩云 崧高維岳 駿極于天 維岳降神  
生甫及申 註 崧岳 山之尊者 駿 大也 甫 甫侯 申 申伯] 俾挺生君子國  
特立梵王家者 我大師其人也 法號無染 於圓覺祖師 [唐代宗追謚達摩曰圓覺  
塔曰空觀] 爲十世孫 [達摩 慧可 僧燦 道信  
弘忍 惠能 南岳 馬祖 麻谷 無染] 俗姓金氏 以武烈大王 [武烈者  
新羅第二九太宗武烈王 名春秋 卽第二十五眞智王龍春之子] 爲八代祖  
大父 [祖父也] 周川 品眞骨 位韓祭 高曾出入皆將相 [出將入相]  
戶知之 父範清 族降眞骨一等曰得難 [國有五品 曰聖而 曰眞骨  
曰得難 言貴姓之難得 文賦云 或求易而得難 從言六頭品數多爲貴猶一命至九  
其四五品不足者] 晚節追蹤趙文業 [莊子云 趙文王喜劍  
見憲章公謀反而被誅 卽落髮入道 勅加任 號骨品大德 任漢川僧統]  
母華氏魂交 [莊子曰 其寐也魂交 其寤也形魂交 言夜則神集於其心也  
形開 言晝則四體動用也] 視脩 [長也] 臂天垂授 [蓮也]  
花 因有娠 幾踰時 [三月] 申夢胡道人自稱法藏 [彌陀佛 因地時  
號也] 授十護 [十戒] 充胎教 過期 [懷十三月 生也] 而誕大師  
[唐德宗貞元十七年辛巳歲十二月二八日午時生 哀莊王二年也]  
阿孩 [方言謂兒 與華无異] 時 行坐必合掌趺對 至與羣兒戲 畫塼  
[孟子云 毀瓦畫塼 其志將以求食 註 塼 牆壁之飾也] 聚沙 必模樣像塔  
[畫塼 爲佛像 聚沙 作佛塔也] 而不忍一日違膝下 [父母膝下]  
九歲始鼓篋 [學記云 入學鼓篋 遜其志也 註 入學時 大胥之官擊鼓以召學士  
學士至則發篋 以出其書籍等物 警之以鼓舞聲 使之遜順其心  
進其業也] 目所覽 口必誦 人稱曰海東神童 跨一星終 [左傳  
魯侯曰 十二年是爲一終 一星終也 歲星十二年一周天 歲星 東方木星也  
○ 大師十二歲出家 卽唐憲宗元和八年 宣德王五年也] 有陰九流 [漢書云

九流有儒家流 道家流 陰陽流 法家流 名家流 墨家流縱橫家流  
雜家流 農家流]意 入道 先白母 母念已前夢 泣曰 [方言許諾]  
後謁父 父悔已晚悟 喜曰善 遂零 [髮也] 染 [衣也] 雪山五色石寺  
[卽雪岳南麓 襄陽五色洞 洞多五色石 而寺則昔有今無]  
口精嘗藥 [善解經義] 力銳補天 [女媧氏 鍊五色石 補天比大師架空說法之意]  
有法性禪師 [此亦國師] 嘗扣驤 [驤 音宗] 伽門 [驤伽門  
小乘法也 性於中夏黃屋山 學看心法] 于中夏者 大師師事數年  
擲 [擲 與探同 周禮 擲人掌誦王志 道國政事 以巡天下之邦國而道之]  
索無子 [小也] 遺 [餘也] 性 [性 乃獻康太子所重 卽閔哀大王父  
大阿儉金忠公之號也] 歎曰 迅足駸駸 [駸駸者 詩云 載驟駸駸  
駸 馬疾行也] 後發前至 吾於子驗之 吾 矣 [ 音怯 心悵也應昭曰志滿]  
無餘勇可賈 [賈 音枯 以利爲業者也] 於子矣 如子者宜西也  
大師曰唯 大師曰唯 [唯 應對之辭 尊對曰唯 野對曰阿] 夜繩而爲實蛇  
是偏計之情執 指小乘法 執有之言也] 空縷難分 [羅什法師傳云  
什之師 盤頭達多 與什共論大小乘優劣 達多謂什曰 汝所謂大乘者  
豈非空裏之縷耶 古有至愚者 詣織師家 求布之至細者 織師以上品細妙之縷  
示之 愚人猶以爲麤 織師不分指空曰 此縷如何  
愚人曰 何以無見 織師曰 極細 故無見 若見則是麤 非細云云 愚人大喜  
汝大乘 類是云也] 魚非緣木可求 [魚 比道也 孟子曰 以若所爲  
求若所欲 猶緣木而求魚也] □非守株可待 [言得道忘言也 韓子五 曰  
宋有田父 見□觸田中株而死 捨耕守株 冀其復得 □未得而身爲宋國笑]  
故師所教已所悟 互有所長 苟珠火 [比理] 斯來 則蚌燧  
[比言] 可棄 [珠在蚌中 火藏燧中 若得珠火 蚌燧可棄也] 凡志於道者  
何常師之有 尋移去 問驃訶健拏 [華嚴] 于浮石山釋燈大德日敵三十夫  
藍茜沮本色 [淮南子 青出於藍而青於藍 絳生於茜而絳於茜  
喻弟子過於師也] 顧坳盃之譬 [莊子云 覆盃水於坳堂之上 則芥爲之舟  
置盃焉則膠 水淺而舟大也 坳 音凹 地凹下不平 向中原之意故]  
曰 東面 [本國] 而望 不見西牆 [中原] 彼岸不遙 何必懷土  
遽出山並 [並 音方 倚也] 海 視 [視 窺也] 西泛之緣 會國使歸瑞節  
[卽王誕辰 使發行於冬初 ○ 案 瑞 信玉 節 符節也 言國使授王信節  
歸覲天子也] 象魏 [天子之闕 謂之象魏 象 治象也 魏者  
狀魏然高大 令民觀之 故亦謂之觀 周禮月令之吉 太宰懸治象之法于象魏  
使萬民觀治 魯人因謂教令之書 爲象魏] 下 [托同]足而西  
及大洋中 風濤歎顛怒 巨鯢壞人 不可復振 大師與心友道亮  
道亮雖未知爲何人 其爲大師同心之友 卽無疑 乃實者其人而非俗說所云]

跨隻板姿業風 [真諦三藏云 泛泊西歸 業風賦命 飄還廣州]  
通星 [晝夜通也] 半月餘 飄至劍山島 [卽黑山島 島形甚惡 故謂劍山  
巖 風作必破 故毀置磯上 發行時 更造] 行之碕 [碕 音奇  
曲岸頭也] 上 悵然甚久曰 魚腹中 [屈原漁父辭云 葬於魚腹之中  
韓詩曰 顛沉在須臾 魚腹甘所葬] 幸得脫身 [涉海 免死] 龍領 [入唐  
得道也] 下庶幾攙 [攙 音殘 說文 刺也 又音攙 扶也] 手 [庶幾得大寶意]  
我心匪石 其退轉乎 [詩云 我心非席不可卷 我心非石不可轉也]  
洎長慶 [穆宗年號] 初 朝正使 [春秋傳 甯武子曰 諸侯朝於王而受正朔]  
王子昕 [金昕 字泰 金陽之從父兄 武烈王之九世  
孫也 幼而聰悟 好學問 長慶二年 憲德王將遣使如唐 遂令昕充其任焉]  
艤舟唐恩浦 [南陽郡] 請寓載 許焉 既達之眾 [之眾 山名] 山麓  
顧先難後易 土揖 [周禮秋官司儀 王南面 見諸侯 土揖庶姓 時揖異姓  
天揖同姓 註 土揖 推手少下也 時揖 平揖手也 天揖 推手少舉也]  
海若 [海神] 曰 珍重鯨波 好戰風魔 行至大興城南山至相寺  
遇說雜花者 猶在浮石時 有一磬 [磬 音曳 美石黑色] 顏者年  
言提之 [詩云 非面命之 言提其耳 曰 遠欲取諸物 [易云 近取諸身遠取諸物]  
孰與認而 [汝也] 佛 [心佛也] 大師舌底大悟 自是 置翰墨  
遊歷佛光寺 問道如滿 [法師] 滿佩江西 [馬祖] 印 [馬祖門人]  
爲香山 [樂天軒號] 白尙書樂天空門友者 [如滿門人] 而應對 有慙色曰  
吾闕人多矣 罕有如是新羅子 他日中國失禪 將問之東夷耶 去謁麻谷寶徹和尚  
服勤 [服役勤行] 無所擇 人所難己必易 衆目曰 禪門庾異行 [南史云  
南齊庾黔婁 爲孱陵令 到縣 未幾 父易在家遘疾 黔婁忽心驚  
舉體流汗 卽日 棄官歸家 家人驚其忽忽至 時易疾才三日 醫云  
欲知差劇 但嘗糞甘苦 易泄痢 黔婁輒嘗之 味轉甘滑 心逾憂苦  
每夕 焚香稽顙北辰 願以身代 親疾卽愈也] 徹公賢苦節 嘗一日告之曰  
昔吾師馬和尚訣我曰 [訣 死時遺言也] 春蘂 [蘂 音委 花榮  
也] 繁 秋實寡 [蓋喻道高孫少也] 攀道樹者 所悲吒 [吒 音且 去聲  
說文云 噴也 歎也] 今授若 [汝也] 印 異日徒中有奇功可封者 封之  
無使剗 [剗也 卽削去廉隅也] 復云 東流之說 [東流之說者 傳燈錄曰 般若多羅告達摩曰  
待吾滅後六十七載 當往震旦 設大法藥 植接慎勿速行  
襄於日下也] 蓋出鈎識 [鈎 古駝切 音苟 古兵有鈎有鑲 皆劍屬  
引來曰鈎 推去曰鑲 蓋引當來說故謂之鈎識也] 則彼日出處  
善男子根殆熟矣 [檀經云 六祖識云 吾去七十年 有二菩薩 一在家梵日  
二出家無染 從東方來 同時建立吾宗 締構伽藍 昌隆法嗣云] 若若得東人可目語者 [以心傳心]  
吠導之 [吠 音圈 上聲 田中溝 周禮

匠人爲溝洫 廣尺深尺謂之畎 倍畎爲遂 倍遂曰溝 倍溝曰洫 倍洫曰澮  
書禹貢 濬洫澮距川 六畎爲一畝 又山谷通水處曰畎 蓋言引水也]  
俾惠水丕冒[丕 大也 冒 吐也 言普沾也]於海昇隅 爲德非淺 師言在耳  
吾喜若徠[徠 來同] 今授印[傳心]焉 俾冠[元也]禪侯于東土  
往欽哉 則我當年作江西大兒 後世爲海東大父[大兒大父 皆指徽公也  
大父 祖父也] 其無慙先師矣乎 居無何 師化去 墨巾離首[在喪中故]  
乃曰 筏[筏 師也]既捨矣 舟[舟 子也]何繫焉 自爾 浪遊飄飄然  
勢不而遏 志不可奪 於是 渡汾水登崞[崞 音郭 山名 在雁門]山  
跡之古必尋 僧之眞必詣 凡所止舍 遠人煙 大要 在安其危甘其苦  
役四體爲奴虜 奉一心爲君主[貨殖傳云 齊俗 賤奴虜 曹邴氏獨任使之  
○ 案 此文奴虜引用 與史意小異 其爲賤之之意 則一也  
其三十餘年行事也 如是 會昌[武宗年號]五年 來歸 帝命也[年譜云  
武宗乙丑 仍戒賢 毀寺沙汰 勅外國僧 各還本藩 潭州觀察使令鄉僧可觀  
道均 宗徹等十三人 與二 航及食牒 送至海州連水縣  
便值本國內回易使張春 繫纜於武州錦城郡 將弟子體順 神靜 元暢  
談洪 法焰 朗然等遊踐也 武州 一云武珍州 今光州也 錦城 今之羅州也]  
國人相慶曰 連城璧復還[趙惠王得卞和氏璧 秦昭王願以十五城易之  
王無償 相如完璧還趙 是謂連城寶也] 天實爲之[天子護送之也]  
地有幸也[新羅國地 有慶幸也] 自是 請益者 所至稻麻矣  
入王城[慶州] 省母社 大歡喜曰 顧吾疇昔夢 乃非優曇[音儀云  
具云 優曇鉢羅 此云瑞應 般泥涅經 閻浮提內 有尊樹王 名優曇鉢羅  
有實無花 優曇鉢羅樹 若生金華者 世乃有佛云云 然則佛出世  
乃此樹發花 故希有也]之一顯耶 願度來世 吾不復撓倚門之念也[史記  
王孫賈事閔王 王出走賈失之光 其母曰 汝朝出而晚來 則吾倚門而望  
汝暮出而不歸 則吾倚閭而望 今王出 汝不知處 尚何歸 賈卒誅淖齒  
立齊王也] 已矣 迺北行 擬目選終焉之所 會 王子昕 懸車[謂致仕也  
金昕 以大將軍 領軍十萬 禦清海兵於大丘 敗績 不復仕宦  
入小白山 葛衣蔬食 與浮屠遊] 爲山中宰相[山中宰相者 陶弘景入茅山  
自稱華陽隱君 梁武帝時 有大事 無不咨訪 時人號山中宰相也]  
邂逅適願[逅 音侯 不期而適相值 詩唐風 今夕何夕 見此邂逅]  
謂曰 師與吾俱祖龍樹[新羅太宗名 大師 八世孫 昕 九世孫也]乙粲[武烈王卽位之前  
司是職也] 則師內外爲龍樹令孫[內 太宗龍樹之孫  
菩薩龍樹之孫] 眞瞠若不可及[莊子云 顏淵問於仲尼曰 夫子步亦步  
夫子趨亦趨 夫子馳亦馳 夫子奔逸絕塵 而回瞠若於後矣 註瞠直視貌  
不及之意也]者 而滄海外 躡瀟湘故事[唐樹暉詩云 洞庭有歸客

瀟湘逢故人 謂唐恩浦相遇之事也] 則親舊緣固不淺 有一寺

在熊川州[今公州] 坤隅[西南間藍浦 聖住山聖住寺] 是吾祖臨海公受封之所[公始祖金紫光祿大夫仁問公

太宗第二子 字仁壽 以屠穢貊功

太宗元子文武王 封之於熊川]間 刼 [ 音盡 與燼同 爲餘]

流災[災 與灾同 天火也] 金田[須達長者 以金布地 而買祇陀太子園

以施佛故]半灰 匪慈哲 孰能興滅繼絕[論語云 武王興滅國 繼絕世

天下之民歸心焉] 可強爲朽夫住持乎 大師答曰 有緣則住 大中[唐宣宗年號]初

始就居 且盼飾[盼 音詰 郊祀歌 門不盼飾 師古曰

盼 振也 言皆振整而飾之也]之 俄而 道大行 寺大成 繇是 四遠問津輩

視千里猶跬步[司馬法 一舉足曰跬 跬 三尺 兩舉足曰步 步

六尺也] 其 不億[ 音里 數也 書傳云 其 不億 不啻億之意也]

寔繁有徒[詩云 無念爾祖 寔繁有徒] 大師猶鍾待扣 [有大扣則大鳴

小扣則小鳴 比問答之大小也] 鏡忘罷[罷 與疲同 ○ 世說云 車徹若問於謝

因曰 不問則德音有遺 多問則重勞二謝 表喬曰 必無此嫌何嘗見明鏡疲於屢照]至者

靡不以慧炤導其目 法喜[禪悅食也]娛其腹

誘憧憧[往來不絕之貌]之躅 變蚩蚩[詩云 氓之蚩蚩 註云 蚩蚩 無知貌]之俗 文聖大王[名慶膺 神武王太子]聆其運爲 莫非裨[裨補]王化 甚 [音哥 法也 楷也]之 飛手教 優勞 且多[重多] 大師答山相之四言[子昕爲山中宰相 故云山相也 有緣則住 是四言也] 易寺榜[舊名烏合寺]爲聖住 仍編錄大興輪寺[輿輪 國之願堂 編名記錄於輿輪寺

故一例崇奉之意 或大興輪寺奴婢田畝屬於聖住寺故也] 大師酬使者曰 寺以聖住爲名 招提[寺也] 固所爲榮 至寵庸僧 濫吹高籍[高籍 手教也 或云寺籍也] 寔避風斯嬾[嬾 音比 配也 莊子 海鳥避風止於魯郊 魯侯御以觴之于廟 具太牢以爲膳 鳥乃眩視 憂悲不敢食飲 三日而死 是不以鳥養鳥 今王之寵師 亦猶是也] 而隱霧可慙矣[列女傳云陶答子 名譽不興 家產三倍 其妻諫曰 南山有玄豹 霧雨七日 不下食 將欲澤其毛衣而成文章也 故隱而避害 汎豕貪啗無厭 故因以見俎 今子無隱霧之操 有凡豕之欲 妾懼之 未幾被誅] 時憲安大王[卽文聖之弟 神武王之次子 名誼靖] 與檀勢[唐梵雙舉 檀 此云惠施 卽惠施越苦海也]季 舒發韓[職號 文聖十九年侍中金陽卒

追贈舒發韓 陪葬太宗陵 姓金 又名魏昕]魏昕 爲南北相[各居其官猶左右相] 遙展攝齊[齊 音咨 裳下縫也 師弟子攝師之齊] 禮[弟子禮也] 贊[贊 音至 執也]以茗醇[醇 音孛 搏雅云 香也

茗茶也] 使無虛月[左傳 府无虛月 註 晉之府庫 无月不受 魯之貢賦 使 使介也] 至使名[師名聲也] [與霑同 小雨沾微也] 東國士流不識大師門 爲一世羞 得禮足者[頂禮師足] 退必喑[喑音借 嘆聲]曰 面謁百倍乎耳聞 口未出而心已入 抑有猴虎[猴虎 奸人]而冠者

亦熄其趨[趨 音 說文 疾也] [音革 更也]其虺[虺音暴虐也猛也 周禮大司徒 以刑教中則 民不虺] 而 [競同] 犇馳善道 暨憲安王嗣位 賜書乞言[乞言者 遣教昌法師 書 言弟子德薄 恭膺大統 禪師神惠特深 見聞高遠 請出一柵 教我不及 大師答曰 殿下已知爲君難也]

大師答曰 周禮對魯公之語 有旨哉 著在禮經 請銘座側[魯哀公問曰

何爲則民服 孔子曰 舉直錯諸枉 則民服 舉枉錯諸直

則民不服 又定公問 一言而可以興邦有諸 對曰 言不可以若是其幾也

人之言曰 爲君難 爲臣不易 如知爲君之難也 不幾乎一言而興邦乎  
曰 一言而喪邦有諸 對曰 言不以若是其幾也 人之言曰  
予無樂乎爲君 惟其言而莫予違也 如其善而莫之違也 不亦善乎 如其不善而莫之違也  
不期一言而喪邦乎云云也] 逮贈太師先大王[景文王  
姓金 名膺廉 僖康王孫 阿浪殷明子也 憲安無子 故冊命立婿云]即位  
欽重如先朝志 而日加厚焉 [凡同]所施爲 必馳問然後舉  
咸通[唐懿宗年號也]十二年秋 飛鵠頭書[韻府羣玉云 鵠頭蚊脚  
以招隱士 註 二者 皆漢詔板]以傳[傳 驛遞也] 召曰 山林何親  
城邑何疎 大師謂生徒曰 遽命伯宗[左傳 梁山崩 晉侯以傳召伯宗  
伯宗避重 註 言適有重載之車在途 故避之使退也 載重人曰 待我不如捷之速也  
問其所居 曰 絳人也 問其絳事焉 曰 梁山崩 將召伯宗謀之  
問將若之何 曰 山有朽壤而崩 可若何 國主山川 故山崩川竭  
君爲不舉絳緹微樂出次祝幣史辭以禮 急其如此而已 雖伯宗若之何  
伯宗請見之 其人不可 遂以告景公 從其言 緹 無紋車也 出次 出外寢也  
祝幣 以幣祝天也 史辭者 深責罪] 深慙遠公[潤載云 晉安帝還次潯陽  
詔遠見于行在 輔國何无忌勸遠一出 遠固辭以疾 帝三詔  
問勞 勅九江太守 歲時 送米資奉 卜居三十年 影不出山 迹不入俗]  
然道之將行也 時乎不可失 念付囑[佛臨涅槃 以佛法流通 付囑國王大臣也]  
故吾其往矣 欵爾 至轂下[輦轂之下 卽都城也] 及見 先大王[景文王]冕服  
拜爲師 君夫人世子暨太弟[追封尊諡惠成大王] 相國  
羣公子公孫 環仰如一 一如古伽藍[此云衆園]續[續 音會 會五彩以畫也]壁面  
寫出西方諸國長[諸國之君長]侍勃陁[勃陁亦云佛陁梵音小異]樣式  
上曰 弟子不佞[佞 才也 魯語 夷吾 不佞也] 小好屬文[屬文  
作文也] 嘗覽劉勰[勰 昔叶 並同 南史 劉勰梁武帝時人雅爲昭明太子所重  
著文心雕龍五十卷 家貧不婚娶 依沙門僧裕 遂博通經論  
區別部類 撰五十序 定林寺藏經 卽其詮次也 中書令沈約絕重其文  
常置几案間 京都下寺塔及名僧碑碣 皆出其手也 累官通事舍人  
表求出家 先燔鬚自誓 帝嘉之 賜法號惠雲云]文心 有語云  
滯有守無 徒銳偏解 欲詣眞源 其般若之絕境 則境之絕者 或可聞乎大師對曰  
境既絕矣 理亦無矣 斯印也默行爾 上曰 寡人固請少進 [ 莊子云 老聃呼子貢曰 小子少進] 爰命徒中錚錚者 [光武謂樊崇曰  
卽鐵中錚錚也] 更手撞擊[人師曰 撞擊 隨句而答 如鍾撞擊故也 見字彙]  
春容盡聲[禮記云 儒有夙夜講學以待問 善待問者 如撞鍾 叩之以小者  
則小鳴 叩之以大者 則大鳴 待其從容然後 盡其聲 疏曰  
從 讀爲春 春者謂擊也 以爲聲之形容 言鍾之爲體 必待其擊 每一

春而爲一容然後 盡其聲 善答者 亦待其一問然後 一答 乃盡說義理也]

剖滯祛煩 若商 之劃[劃 音畫 割也]陰靄然 於是 上大喜 懊[懊 音奧 悔恨] 見大師晚曰 恭己南面[論語云 無爲而治者 其舜也與 夫何爲哉 恭己正南而已] 司南[司 主守也 南 任也 見字彙] 南宗 舜何人哉 余何人也[孟子曰 舜何人也 余何人也 有意者亦若是云云] 既出 卿相延迓[迓 音牙 迎也] 與謀不暇 士庶趨承 欲去不能 自是 國人皆認衣珠[法華中 有人衣內 係珠 喻事不煩引] 鄰叟罷窺廡玉焉[尹文子云 魏叟得徑尺玉 鄰人曰 此至怪石也 抱置廡下 夜間視之 光照一室 益大駭 反棄野 鄰人獻之魏王 玉工曰 此無價 以當之五都之城 僅可一觀 王賜獻玉者千金 長食上大夫之祿也] 俄苦樊筴[樊筴 養鳥之具 比王宮]中 卽亡去 上知不可強 迺降芝檢 [瑞命記云 王者德仁則芝艸生 故王之手書 謂芝檢] 以尙州深妙寺不遠京 請禪那別館 辭不獲 往居之 一日必葺[葺 音緝 茨也 修補]儼若化城[法華經云 有導師 將導衆人 欲過險道 所將衆人 中路懈退 導師多設諸方便於險道中 過三百由旬 化作一城 告衆人言 汝等勿怖 莫得退還 今此大城 可於中止 隨意所作 若入是城 快得安穩 是時 疲極之衆 心大歡喜 嘆未曾有 爾時 導師知此人衆無復疲倦 卽滅化城 語衆人言 寶所在近 向者 大城 我所化作 爲止息耳] 乾符[僖宗年號]三年[僖宗丙申] 春 先大王[景文王]不預[預 安也] 命近侍曰 亟[急也]迎我大醫王來 使至 大師曰 山僧足及王門 一之謂甚 知我者 謂聖住爲無住 不知我者 謂無染爲有染乎 然顧與吾君 有香火因緣[郭氏子儀與吐蕃 結香火之約云 言焚香告天而結兄弟也] 切利之行[此云三十三天 帝王之死云 昇天寶天 故取其義也]有期矣 盍就一訣 復步至王居 設藥言 施箴戒[箴 與鍼同 又箴規箴戒 醫者以箴石刺病 故有所諷刺求其失 謂之箴 古醫以石 今以鍼也] 覺中愈 舉國異之 既踰月 獻康大王居翼室[捨正殿而居翼室 以居憂故 翼室 左右廊] 泣命王孫勛榮 諭旨曰 孤幼遭閔凶[父喪] 未能知政 致君奉佛 誦[誦 音普 大 相助也 又音怖 謀]濟海人[多人也 或云 海東人] 與獨善其身 不同言也 幸大師無遠適 所居唯所擇 對曰古之師則六籍[六籍者 六經也 詩書易周禮春秋禮記]存 今之輔則三卿[三卿者 儀禮疏云 司徒司馬司空也]在 老山僧何爲者 坐蝗 桂玉哉[蝗 音黃 蟲也 似蚱蜢而大 額下有子 翅傍有竅 可以縷貫 羣飛食苗] ○ 音妬 陸龜蒙 化篇橘之 大如小指 一日視之不食 明日往見 蝗化爲蝴蝶 ○ 戰國策云 蘇秦入楚 三日乃得見平王 談卒辭而行

王曰 寡人聞先生若聞古人 今先生乃不遠千里而臨寡人  
曾不肯留 願聞其說 對曰 楚國之食貴於玉 薪貴於桂 謁者難得見如見鬼  
王難見如天帝 今令臣食玉炊桂 因鬼見帝 臣可住此 王曰 先生就舍  
寡人聞命矣 卽其義 就有三言 庸[用也]可留 獻曰能官人 [左傳云 襄公十五年 楚能官人 楚康王能爲官擇人也] 翌日挈山裝鳥逝  
自爾 騎置[置 音智 驛傳曰置 漢烏孫傳 有便宜 因騎置以聞 師古曰  
卽今之顯馬也]傳訊 影綴巖溪 遽人[驛傳急卒]知往抵聖住 卽皆雀躍[莊子云  
鴻蒙方將撫騁 雀躍而遊 註 雀躍 勇躍自樂之貌]叢[聚也]手易轡  
慮滯王程[行限] 猶尺寸地 由是 騎常侍[如司馬門校尉  
卽今之宣傳官]倫伍[倫 輩也 伍 迎也 今之卒也] 得急宣[宣 教旨也]  
爲輕舉 乾符帝[僖宗]錫命之歲[天子以冊封太傅爲獻康王也]  
令國內舌杪 有可道者 貢興利除害策[使國內識者有所懷者建議] 別用蠻牋[中國人自高句麗以來  
吾邦產紙謂蠻牋]書 言荷天寵有所由  
因垂益國之問 大師引出何尚之 [劉宋南朝侍中] 獻替宋文帝心聲  
[孟子曰 言者 心之聲也] 爲對[尚之對文帝事 見于通載八卷] 太傅[獻康]王覽  
謂介弟[左傳云 伯州曰 王子圍寡君之貴介弟 註 介  
大也]曰 三畏[論語曰 君子有三畏 畏天命 畏大人 畏聖人言] 比三歸[歸佛  
歸法 歸僧] 五常均五戒 能踐王道 是符佛心 大師之言至矣哉  
吾與汝宜惓惓[惓 音權 謹也 又愁切也] 中和西狩之年 [僖宗辛丑壬寅  
黃巢及秦宋權稱讚號 避黃巢亂 入西蜀 故云西狩]秋 上謂侍人曰  
國有大寶珠 畢世 [櫝同]而藏之 其可耶 曰 不可 不若時一出  
俾醒萬戶眼 醉四鄰心 曰 我有末尼[此云如意珠也] 上珍  
匿曜在嵩巖山[聖住寺] 脫[脫 音太 若也]闕秘藏 宜照透三千界 何十二乘[魏文侯曰  
寡人有徑寸之珠 照車前後各十二杵]之足道哉 我文考[景文]懇迎  
嘗再顯矣 昔鄼侯譏漢王拜大將如召小兒 不能致商山四老人此以  
今聞天子蒙塵[左傳云 天子奔走 謂之蒙塵 詳如西狩註]  
趣令奔問官守[天子侍從羣臣 不能直斥天子 故云官守] 勤王加厚  
歸佛居先 將邀大師 必叶外議 吾豈敢倚其一 慢其二哉 [孟子曰  
朝廷莫如爵 鄉黨莫如齒 輔世長民莫如德 ○ 案 倚其一 指居君位也  
慢其二 指師齒德也] 乃重其使 卑其辭 徵之 大師云 孤雲出岫  
寧有心哉[雲無心而出岫之意也] 有緣乎大王之風 無固 [易曰 無固無必]乃上士之道  
遂來見 見如先朝禮 禮之加 焯[焯 與灼同也 說文  
明也] 然可屈指者 面供饌 一也 手傳香 二也 三禮者三 三也  
[致敬三拜凡三次] 秉鵲尾爐[說文云 香爐有長柄者也 東坡詩註曰  
費崇先 尤信佛 以鵲尾香爐 置膝前]締[結也] 生生世世緣 四也 加法稱[法號]

曰廣宗 五也 翌日命振鷺[詩云 振鷺于飛 註云 振 羣飛貌  
蓋少昊以鳥紀官之時 以鷩鷩爲三公 故今之朝士謂鷩鷩之班]  
趨鳳樹[鳳非梧桐不栖 非琅玕不食 鳳樹指大師留宿之所] 雁列賀  
六也 教國中磋磨[詩云 如切如磋如琢如磨 註云 切磋治骨角 琢磨治玉石也]  
六義者[風雅頌比賦興 詩序云 風者 民俗歌謠之詩 賦者敷陳其事而直言之也  
比者 以彼物比此物也 興者 先言他物以引起所詠之事也  
雅者 正樂之歌 頌者 容也 美盛德之形容也] 賦送歸之什[詩歌]  
在家弟子王孫蘇判嶷榮 首唱 斂成軸[卷軸] 侍讀[春坊官名]  
翰林才子朴邕爲引[文體源流云 序者 叙其事也 始於卜子夏詩序  
引者 引其事也 始於班固典引 引與序一也而但變名爾也]而贈行七也  
申[重也]命掌次[掌次 掌設幕之官 禮記 掌次 註云 修正處所卽今之帷帳次知官也]張淨室  
要叙別 八也 臨告別 求妙訣 乃詢[詢與瞬同  
以目使人也]從者 舉真要 有若詢父圓藏虛源玄影四禪中 得清淨者  
緒抽[詩蓼莪章云 緒抽作杼抽 杼 持緯者也 抽 受經者也  
又杼 音處 機上行緯具梭也 抽 引也 言梭持緯絲 出無於經間而受絲也]其慧  
表纖其旨 注意無怠 沃心有餘[書云 啓乃心沃朕心]上甚悅  
拜[拱手而拜曰 昔文考爲捨瑟之賢 [子路曾皙冉有公西華侍坐  
子曰 盍各言爾志 三子各言其志後 子曰 點爾何如 鼓瑟希 鏗爾捨瑟而作  
對曰 異乎三子之撰 子曰 何傷乎 亦各言其志也 曰 暮春者春服既成  
冠者五六人童子六七人 浴乎沂風乎舞雩詠而歸 夫子歎曰吾與點也]今寡人忝避席之子[孝經  
子曰 先王有至德要道 以順天下民用和睦  
上下無怨 爾知乎 曾子避席曰 參不敏何足知之云 曾皙  
曾子父名 俱爲孔子弟子也]繼體[紹父之體] 得崆峒之請[莊子 黃帝聞廣成子在崆峒山  
往問至道之精 成子曰 自而 治天下 雲氣不待族而雨  
草木不待黃而落 日月之光益以荒矣 奚足以語至道 帝退三月  
往問治身 成子曰 至道之精 無視無聽 無撓爾精 乃可長生云] 服膺[中庸云  
回之爲人擇乎中庸 得一善 則拳拳服膺而弗失之 註 拳拳  
奉持貌 服猶着也 膺 也 奉持而着之心 之間 言能守也] 開混沌之源[莊子云  
南海帝爲儻 北海帝爲忽 中央帝爲渾沌 儻與忽時與遇於渾沌之地  
渾沌待之甚善 儻與忽謀報渾沌德曰 人皆有七竅 以視聽食息  
此獨無有 當試鑿之 日鑿一竅 七日而混沌死 註 儻 音叔  
儻忽取其神速爲名 混沌以和合爲貌 元氣未分前也 渾沌死 言不順自然  
強開耳目也 渾沌並上聲] 則彼涓濱老翁[姜太公] 真釣名者  
圯上孺子[圯 音夷 楚人謂橋爲圯 卽下邳圯上 漢書云 張良遊下邳  
遇父孺子可教 出一編書曰 讀此爲王者師 遂去不復見 旦日視其書

乃太公兵法也] 蓋履迹焉 雖爲王者師 徒弄三寸舌也 曷若吾師語  
密傳一片心乎 奉以周旋 不敢失墜 太傅王雅[本也] 善華言[中華之言  
卽漢文也] 金玉其音 不患衆咻聒[孟子 衆楚人咻而聒之 咻 謹  
聒 亂也] 而能出口 成儷語[四六駢儷之文] 如宿構云 大師既退 且往應王孫蘇判鑑  
共言數返 卽歎曰 昔人主有有遠體 而無遠神[神知]者  
而吾君備 人臣有有公才 而無公望者 而吾子全 國其庶乎[近於治也  
孟子云 齊其庶乎] 宜好德自愛 及歸謝絕 方是 遣輜軒 [輕車  
或輕舉使臣] 標放生場[立四方禁標 使獵士不入其中 故謂之放生]界  
則鳥獸悅 紐[紐 音丑 說文 系也]銀鉤[筆也] 扎[寫也] 聖住寺題  
則龍蛇活[筆形也] 盛事畢矣[崇佛至也] 昌期忽兮 [獻康王昇遐也]  
定康大王[獻康之弟]莅阡 兩朝[景文王獻康王]寵遇 帥[帥 音卒  
從也] 而行之 使緇素 重使迎之 辭以老且病 太尉大王 [卽位之初  
帝命賜太尉 封新羅王] 流恩表海 仰德高山 嗣位九旬 馳訊十返俄聞 [  
音期 通也]腰之苦 遽命國醫往爲之[治也] 至則請苦狀  
大師微破顏曰 老病耳 無煩治 糜餼二時 必聞鍾後進 其徒憂食力虧陽戒掌枹者[今之鍾頭也  
枹 音桴 擊鍾槌也] 陽密擊 乃日隔而命撤將化往  
命旁侍 警遺訓于介衆[左傳 晉士景伯問于介衆 註 介 大也]曰  
已過中壽[上壽百 中壽八十 下壽六十] 難逃大期[死也] 我儂[儂  
音農 謂我爲儂]遠遊 爾曹好住 講若畫一 守而勿失 古之吏[蕭何曹參]尙如是  
今之禪宜勉旃[旃 與之同也] 告決裁[裁 纔同]罷  
懃然[莊子云 老聃新沐 方將被髮而乾 懃然似非人間 註 懃 音執  
凝定貌 又不動貌]而化 大師性恭謹 語不傷和氣 禮所云 中退然[禮記云  
中退然 註云 中 身也 退 謙也 性恭之順 如身之不勝諸衣也]  
言呐呐然[呐 音懶 言難也 呐呐者 聲低而語緩也 如不出諸口也]者乎  
鬻[鬻 音橫 學舍] 侶[學侶]必日以禪師 接賓客 未嘗殊敬乎尊卑  
故滿室慈悲 烝[衆也]徒悅隨 五日爲期 俾來求者質疑 諭生徒則曰  
心雖是身主 身要作心師 患不爾思 道豈遠而[汝也] 設是田舍兒[農夫]  
能擺脫塵菴 我馳則心馳矣 道師教父 寧有種乎 又曰 彼所啜  
不濟我渴 彼所噉 不救我餒[餒 音內 飢也] 盍努力自飲且食 或謂教[教宗]禪[禪宗]爲無同  
吾未見其宗[不同之宗] 語本夥頤[陳涉世家云  
楚人謂多爲夥 服虔曰 頤者助聲之詞] 非吾所知 大較[較音角  
大略] 同弗與[許也] 異弗非[禮記儒行篇註 與其所可與 不必同乎己也  
非其所可非 不必異乎己也 同於己者 或鄉愿 公而不與 異於己者  
或行怪惡而不非] 晏坐息機 斯近縷褐被者歟 其言顯而順  
其旨奧而信 故能使尋相爲無相 道者勤而行之[道經云 上士聞道 勤而行之]

不見有岐中之歧[楊子 有亡羊 岐中多歧 故不知所之 喻大道本一而人各異說]  
始壯及衰 自貶爲基 食不異糧 衣必均服 凡所營葺  
役先衆人 每言祖師嘗踏泥[佛造祇垣精舍 舍秋爲匠 迦葉踏泥]  
吾豈暫安栖 至捷[捷 音連 運也 負擔]水負薪 或躬親 且曰 山爲我爲塵[言名山由我居而汚也]  
我安得安身 其克己勸物 皆是類 大師少讀儒家書  
餘味在脣吻 故酬對多韻語 門弟子名可名者 厘二千人  
索居[獨居貌]而稱坐道場者 曰僧亮 曰普慎 曰詢父 曰心光 諸孫誦誦[誦  
音侏 衆也]厥衆濟濟[盛貌] 實可謂馬祖毓[毓 古育字  
長也]龍子[指大師也] 東海掩西河焉 論曰 麟史[春秋]不云乎 公侯之子孫必復其始  
則昔武烈大王[太宗金春秋也]爲乙祭時 爲屠豕貊  
乞師計 將眞德女君命 階觀昭陵皇帝[唐太宗] 面陳願奉正朔[年號]易服章  
天子嘉許 庭賜華裝[中華之服裝也] 授位特進 一日召諸藩王子宴  
大置酒 堆寶貨 俾恣滿所欲 王乃杯觴則禮以防亂 繪綵則智以獲多  
泉[洎同]辭出 文皇[唐太病也]目送而歎曰 國器 及其行也  
以御製并書溫陽晉祠二碑 暨御撰晉書一部[太宗卽位之初 魏王泰請撰晉書]賚之[賚  
音賴 賜也] 時蓬閣[校書館]寫是書 裁竟二本 上一錫儲君[太宗太子]  
一爲我賜[武烈大王] 復命華資官[接伴使] 祖道[黃帝子纁祖  
好遠遊死於道 後人爲行神 註云 纁祖死於道 故云祖道  
遠行者祭之 以保行程 祖 祭道神也] 青門[長安城東門卽灞城門]外  
則寵之優 禮之厚 設犇旨乎智者 亦足駭耳目 自茲 吾土一於魯[子曰  
齊一變至於魯 魯一變至於道] 八世之後 大師西學而東化  
加一變至於道 則莫之與京[左傳懿氏 辭云 五世其昌 并于正卿 八世之后  
莫之與京 註 卿 音羌 京 大也] 捨我謂誰 偉矣哉 先祖[武烈大王]平二敵國[高句麗百濟也]  
俾人變外飾[易服章] 大師降六魔賊  
俾人修內德 故得千乘主 兩朝[景文獻康]拜起 四方民萬里奔趨  
動必頤使之[賈誼曰 頤指如意 言易使也] 靜無腹非者 庸詎非應半千[口池筆硯云  
古讖云 黃河水一千年一清 聖人出 五百年一清 賢人出]  
而顯大千[金剛經云 三千 大千世界所有珍財以用普施 註云  
三千 大千中千小千]者歟 復其始之說[指上麟史引文也] 亦何慊乎[慊  
音歉 恨也 意不滿也]哉 彼文成侯[張良謚號]爲師漢祖 大誇封萬戶位列侯  
爲韓相子孫之極 則 [ 音穹 小貌]矣 假學仙有終始果能白日上昇去  
於中止得 爲鶴背上一幻軀爾[言子房托仙之非] 又焉琕[琕  
音促 齊等]我大師拔俗於始 濟衆於中 潔已於終矣乎 美盛德之形容  
古尚乎頌 頌偁類也[詩大序所謂美盛德之形容 以其成功  
告于神明者也 蓋頌與容 古字通用 故序以此言之也] 扣寂[扣寂 遠公註

扣虛課寂]爲銘 其詞曰 可道爲常道[道德經云 道可道 非常道註  
道本無名 若道可爲者 乃有爲之事 非常道也 可道 如禮不虛道之道  
常者 恒久不變之謂] 如穿草上露 卽佛爲眞佛 [卽馬祖說法意云  
卽心卽佛爲眞佛] 如攬水中月 道常得佛眞 海東金上人 本枝根聖骨  
瑞蓮資報身[脩臂授蓮] 五百年[應應半千句也]擇地[雞林] 十三歲離塵[出家]  
雜花引鵬路[授華嚴于浮石] 窾木[窾木 舟也 窾音款  
空也] 浮鯨津 觀光[悟道]堯日下[中原] 巨筏悉能捨 [指徹公化去後浪游]先達[高僧]皆歎云  
苦行無及者 沙之復汰之 東流是天假[沙之云云  
唐武宗會昌年中 仍戒賢僧 沙汰佛法 勅外國僧各還本國云云  
故天假] 心珠瑩麻谷 目鏡燭桃野[商受本記 東海桃索山有太桃樹  
根盤五千里 東西南北 枝長各三千里 是以東土謂之桃野]既得鳳來儀  
衆翼爭追隨[班史云 昭帝時 鳳集魯郡 羣鳥從之] 試觀龍變化[比大師也]  
凡情那測知 仁方[東土]示方便 聖住強住持 松門遍掛錫  
巖徑難容錐 我非待三顧[昭烈三顧諸葛亮於草堂之中] 我非迎七步[通載云  
北齊文宣王謁僧稠 稠不坐不迎 其徒有勸迎者 稠曰  
昔賓頭盧尊者 迎阿育王 起行七步 致王七年失國 貧道雖寡德 冀王獲福耳]  
時行則且行 爲緣付囑故 二王[景文王獻康王]拜下風 一國滋甘露  
鶴出洞天秋[出山] 雲歸海山暮[入山] 來貴乎葉龍 [說苑云  
哀公不禮子張 子張去曰 君好士如葉公 葉公子高好龍 天龍降之 窺頭於牖  
施尾於堂 葉公失魂 五色無主 此非好龍 好似龍非龍也] 去高乎冥鴻[冥  
空 色斯之鴻 上句喻入王宮 此句喻還山] 渡水陔巢父[高士傳云  
許由字武仲 聞堯以天下讓焉 遁於潁水之陽 箕山之下  
堯又召爲九州之長 由不欲聞之 洗耳潁濱 巢父牽犢欲飲之 見由洗耳曰  
汚吾犢口 遂牽犢上流 今師則入京 故反陔巢父] 入欲超朗公[通載云  
釋僧朗風度凝遠 飲啗不常 每在京洛 循乞飲饈 未嘗入山W  
今師則還山曰超也] 一從歸島外[自中原返東國]三返遊壺中[列仙傳云  
費長房爲汝南市掾 見一老翁賣藥掛一壺於肆頭 市罷 入壺中 唯長房觀之  
因再拜奉酒脯 翁乃與俱入別有世界 壺中比王宮也] 羣迷漫臧否  
至極何異同 是道澹無味 然須強飲食 他酌不吾醉 他飧不吾飽  
誠衆黜心何 糠名復糝利 勸俗飾身何 甲仁復胄義[禮記云 載仁而行  
抱義而處 又云儒有忠信 以爲甲冑] 汲引無棄遺 其實天人師  
昔在世間時 學國成琉璃 自寂滅歸後 觸地生蒺藜[西域記云 玄奘法師到摩竭國菩提樹下  
金剛座上 蒺藜叢生] 泥洹一何早[通載 老子至流沙嘆曰  
吾生一何晚 泥洹一何早 不見釋迦文 中心空懊惱]今古所共悲  
甃石[建塔也 甃 音秋 井甃 又結砌也] 復刊石[豎碑也] 藏形且顯跡

鵠塔點青山 龜碑撐翠壁 是豈向來心 徒勞文字覩[覩音麥相視貌]  
欲使後知今 猶如今示昔 君恩千載深 師化萬代欽 誰持有柯斧[中庸云  
詩云 伐柯伐柯 其則不遠 執柯而伐柯 睨而視之 猶以爲遠  
君子以人治人 其人改之則止] 誰倚無絃琴 [比師無生說法也  
晉陶潛得素琴一張 不設絃而撫之曰 但得琴中趣 何勞琴上聲] 禪境雖沒守  
客塵寧許侵 雞峯待彌勒[付法藏傳云 迦葉結集付法已 持應器與僧伽梨  
入雞足山 三峯合爲一 乃至彌勒出世後 出定而奉獻也  
末會後與大眾登山 彈指則方出世也] 將在東雞林